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837 1982년 5월31일(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Monday, May 31,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인 쇄 인 : 박 정 서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JUN 1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사채 주범은 이철희
"장영자여인은 말려 들어갔다"
수사방향 전환, 뒤늦게 새주장

(서울28일=연합)장영자여인 사채사건을 수사중인 한국 대검찰청은 "이번 사건의 주역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처럼 장여인이 아니라 남편 이철희 전중앙정보부차장"이라고 28일 발표했다.

이씨는 79년 10월 박정희대통령 피살당시 유정회출신 국회의원이었고, 의원직을 계엄령 직후 물러났다.

수사반은 이씨가 이 때부터 아랍-한국 합자은행 설립과 외국에 목장을 사두기 위한 자금조달 방법으로 변칙적인 방법에 눈을 돌렸다고 말했다.

검찰에 의하면 이씨가 장여인과 결혼한 것은 사랑이 아니라 편의를 위해서였다. 이씨는 장여인과 결혼전 장여인의 재력과 연줄을 조사했다.

예컨대 장여인의 형부 이규광씨는 전두환대통령의 처삼촌이다. 이규광씨의 형 이규동씨는 영부인 이순자여사의 부친이므로 장여인과 이순자여사는 사돈지간이다.

이철희씨는 전 정보부 부하들을 시켜 태화산업을 조종했고 이들을 통해 업체에 대한 정보를 얻어 이를 증권시장 조작에 이용했다.

이씨는 또한 산업정보전문의 회사를 태화 산업의 방계로 설립하기까지 했다.

대검은 태화 소속 이씨의 전직 부하들을 조사하고있다.

이씨와 장여인은 2명의 은행장등 17명의 혐의자들과 같이 구속돼 있다.

이씨 부부는 미화 8천만 달러를 6개 기업체에 융자해 주면서 총액2억7,500만 달러의 어음을 담보로 받아냈다.

이들은 이 약속어음을 현찰로 바꾸려했으나 은행들이 거절하자 증권시장에 큰 교란을 초래했고 단기사채자금을 고갈시켜 공영건설및 일신제강등 2개의 큰 회사를 도산의 위기로 몰아넣었다.

한편 정치근 신임 법무장관은 임시국회에 보낸 보고서에서 「이번 사건은 억대잡부를 꿈꾼 이철희씨가 주동했고 장영자여인은 부유하고 대통령영부인 이순자여사와 사돈지간이라는 인연이 있기 때문에 남편 이씨의 모의에 끌려들어간 것」이라고 밝혔다.

정장관에 의하면 그는 79년 한국·아랍 합자은행 설립을 위해 자금을 모으기 시작했고 미국 알라바마주의 광산구입을 비롯해서 해외투자계획을 세웠다.

57세의 이씨는 계획이 실패하면 해외도피를 구상, 외화까지 마련해 둘 정도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정장관은 이순자여사의 삼촌이며 대한광업진흥공사장인 이규광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관련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철희—장여인이 이용한 족벌관계◆

전두환 이순자 ⟷ 이규동
대통령 영부인 (대한노인회장 사임·예비역 장성)
↕ ↕
전경환 이규광 • 장성자
(새마을본부 사무총장 사임) (광업진흥공사장 사임·예비역 장성)
↕
장영자 이철희

범례 • 부부간 ⟷ 부녀간 ↕ 형제간

정장관은 또 이철희 부부가 정치자금을 냈다는 소문은 전혀 근거없다고 부인했다.

사채사건 임시국회 열려
야당, 장관문책·특위구성 주장

(서울28일=연합)국회는 28일 이철희-장여인 사채사건을 토의하기 위한 4일간의 임시국회를 개회했다.

이번 국회에서 야당은 국회조사단 구성을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상 최대의 스캔들인 이번 사채사건으로 22명의 국무위원중 11명이 교체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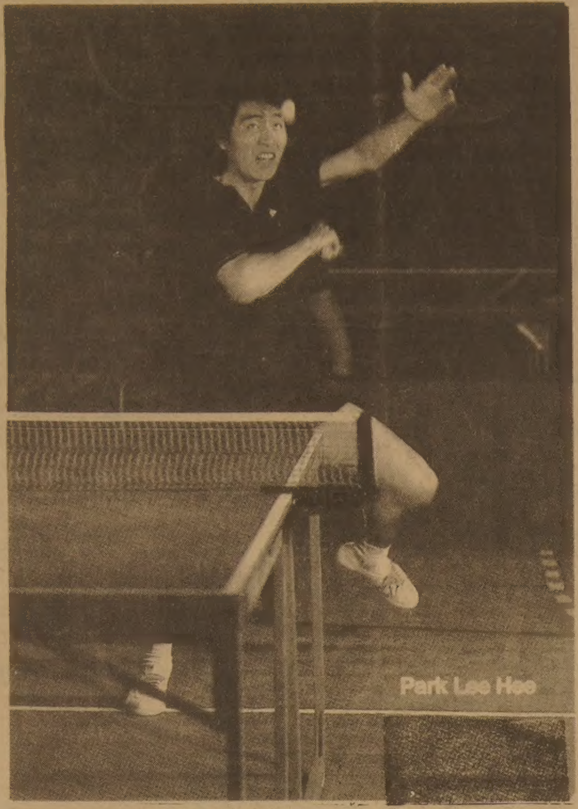
가장 책임져야할 재무장관은 유임됐다.

야당은 유창순총리, 김준성부총리, 나웅배재무장관의 사임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에서 여당 민정당은 국회특별조사위 구성이나 장관사임을 요구한 야당의 주장을 모두 거절키로 했다.

유창순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1)이번 사건은 정신개혁운동이 전국적으로 일고 있는 시지에 발생, 더욱 충격적이며, 2)정부의 책임을 통감하고, 3)사건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기조처를 강구중, 4)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위한 장기조처를 연구중이다, 라고 밝혔다.

유총리는 인프레이션을 이 계획대로 10% 미만으로 유지됐고 국제수지가 호전됐으나 전반적 경기는 수출부진, 상품 수요감소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2일부터 노위치대회에 출전할 한국유일의 프로선수 박이희의 멋진 수비폼.

노위치 국제탁구 2일개막
한국 유일의 프로선수 박이희출전

오는 6월2일부터 6일까지 토론토 이토비콕·올림픽·스태디엄에서 개최되는 상금 2만5천달러의 세계프로탁구 남자선수권대회 「노위치 유니온 그랑프리」에 한국유일의 프로 탁구선수 박이희선수가 출전한다.

박선수는 81년까지 한국대표선수였고 현재 서독에서 분데스리그 프로선수로 활약하고 있으며 30일 아침 토론토에 도착 홀리데이 인에 여장을 풀었다.

「노위치 유니온 그랑프리」는 프로및 아마추어"모두에게 공개되는 세계5대 프로탁구선수권대회중 하나로 이번 대회에는 한국·유럽·일본, 세계의 강호 16명을 초치, 4개그룹으로 나눈뒤 각조 2명씩 8명이 결승토나멘트를 벌인다.

박선수는 81년 한국대표선수로 말레지아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 9위에 입상한후 프로, 아마 통털어 82년 세계랭킹 13위이다.

81년 서독 프로에 진출한 박선수는 수비형 선수로 쉐익핸드 스타일(펫을 쥘때 악수하는 폼)의 선수이다.

이번 캐나다대회에는 전 세계챔피온인 항가리의 이스트·존녀(75년), 79년 챔피온 일본의 세이조·오노등 세계의 강호 15명과 캐나다 대표로 유고출신 이민자인 조란·코사노빅이 출전한다.

프로,아마가 총출전하는 이번 대회에서는 공산권에서 오는 아마추어 선수들을 보호키 위해 아마추어 선수에게는 상금을 주지 않고 각나라 탁구협회에 기부된다.

이번 대회 입장권은 $5~$10(결승전)까지이며 12세 미만의 어린이나 65세 노인에는 반액할인된다.

장소: 이토비콕·올림픽·스태디엄(590 Rathburn Rd.)

◆선수명단(16명)
A조: 1)J·존녀(항가리) 2)J·드보라섹(체코) 3)P·스텔웩(서독) 4)U·벵트손(스웨덴)
B조: 1)M·올로스키(체코) 2)L·구차스키(폴랜드) 3)Z·갤리닉(유고) 4)세카모토(일본)
C조: 1)A·그루바(폴랜드) 2)M·아펠그렌(스웨덴) 3)J·팬스키(체코) 4)E·보갠(미국)
D조: 1)박이희(한국) 2)오노(일본) 3)J·뮬나(항가리) 4)Z·코자노빅(캐나다)

◆대회일정(2일~6일)
◉2일~4일=각조예선(풀리그)
◉5일=준준결승및 준결승
◉6일=결승(하오3시30분)

박이희선수출전시간은 2일밤 9시30분, 3일 8시10분, 4일 8시50분이며 5일과 6일은 예선성적에 따라 달라진다. 2일~4일의 예선전은 밤7시30분부터 개최되며, 5일,6일의 결승 토나멘트는 하오1시30분부터

인터뷰 민족상 공로상의 박재선씨
타이거팀 조직,「스포츠한국」알려

"송구스럽다. 별다른 일을한 것도 아니고 나 외에도 숨은 봉사자들이 많은 것 같은데··"하고 말끝을 흐리는 한일민족상 공로상에 확정된 박재선(54)씨.

오는 6월26일로 시상식날짜가 결정됐다는 소식을 들은 박씨는 "글쎄, 상을 받게돼서 좋으나 오히려 그날 열리는 고교동창야구대회에 뛰어가고 싶은 심정이다"면서 체육인다운 열을 올린다.

대부분의 교민들이 그의 이름은 잘 몰라도 야구, 축구, 배구, 탁구등 어떤 교민체육행사에서도 박씨의 모습을 한두번쯤은 보았을 것이다.

박씨는 야구장에서는 두꺼운 마스크를 쓰고 주심을(특히 결승전) 맡으며, 축구장에서도 호루라기를 입에 물고 젊은선수들과 함께 운동장을 누빈다. 그의 직책은 대부분이 심판장, 명쾌한 판정을 내리면서도 게임의 흐름을 중요시하고, 아마추어 선수들에게 너그럽게 대하기도한다.

박씨가 체육에 관계한 것은 소년시절부터이다. 국민학교때는 야구, 중학교(함흥 영생중학)때는 농구, 축구, 대학(서울공대)에서는 탁구등 무슨 운동이든 가리지 않는다.

◆민족상 공로상 수상자 박재선씨.

이미 직장에서도 배구, 탁구팀을 조직했던 박씨는 66년 캐나다로 이민온 후 체육활동을 계속하는것이 소망이었다.

뉴·브론스위크에서 68년 토론토로 이주한 후에는 즉시 스포츠팀 창설작업을 했다. 69년 연합교회 배구팀을 시초로 무엇이든지 운동과 관계되는 일에는 박씨가 꼭 참여했다. 점점 교민들의 숫자도 늘어나 75년에는 토론토에서 한인교포들과 일본인교포들의 제1회 한·일친선야구대회를 주관할 수 있었다.

박씨의 가장 큰 공적은 청소년축구팀 타이거스의 창설. "75년에 조직, 79년까지 토론토시내의 각 지역팀(주로 에트니그룹)들과 1년에 약20~25게임을 벌였다. 선수들만 이끌고 아무 응원단도 없는 시내 각 운동장을 누비었다"는 박씨는 직장시간외에는 운동장에서 살다시피 했다.

오는 7월 열리는 제1회 어린이야구대회(본사주최)의 진행을 맡은 박씨는 "야구는 북미생활의 일부이다. 어느 집이나 야구클러브가 있고, 교포2세들의 체위향상, 한국인의 얼을 심기위한 대회이다"고 설명했다.

오늘의 예금금리

종 별	기 간	신용조합	일반은행
정기예금	30일	14.5%	13~13.5%
	90일	15.25%	13.75~14.5%
	180일	15.5%	13.75~14.75%
	365일	15.75%	14.75~15.25%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 : 533-9387~8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각종보험

B) 497－3800
R) 284－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캐나다 외환은행
364－2890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랙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20A BLOOR ST. W.

미시사가 한글학교

학예회의 초대

저희의 미시사가 한글학교 어린이들이 그동안에 배운 노래와 연극과 춤등을 모아 아래와 같이 조그마한 잔치를 마련했으니 오셔서 정성어린 시간을 더욱 빛내주시기바랍니다.

일 시 : 6월5일(토) 오전10 : 00～오후1시
장 소 : 미시사가한글학교강당 (Queen Elizabeth Senior Public School, Mississauga)
내 용 : 연극·무용·합창·합주

※특별히 학부형회에서 준비한 한국고유음식으로 다과회를마 련 했읍니다.

여름한글학교

◉기 간: 7월5일~7월30일 (4주간)
◉시 간: 9:00~11:30 A.M.(한글공부)
11:30~12:30 (점심)
12:30~3:00 (특별활동)
금요일은 오전 수업
(마지막 주일 캠핑예정)
◉장 소: T.L.Kennedy Secondary School (N.of Dundas & Highway 10)
◉등 록 금: $40
◉연 락 처: 279－5974 Mrs. 김
827－7057 Mrs. 최
(매토요일 한글학교 접수: 6월12일까지)

1982년 5월 27일

미시사가 한글학교
문가자·이춘수

NORTH YORK AUTO BODY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24시간 토잉써비스★630－0000
어느때를 막론하고 토잉해 드립니다.
● 사고차량 완전수리
● 페인팅(OVEN BAKED FINISH)
● 수리중 차량대여
● 각종차량 일체취급
TOWING 완전설비된 LICENSED
교포우대
송 대 헌
749－0555(B)
881－4053(R)
215 TORYORK DR
1 block North of Finch
West of Weston Road.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각종행사 6월초 만발

미술·음악·체육·종교등 14가지

날씨가 풀리고,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각종 교민행사가 만개하기 시작했다.

이번주 본보 「금주의 행사」란에 실린 것만도 14건에 달한다. 이것은 작년 6월1일자 본보 일간발행이후 최다행사 기록을 나타낸다.

즉 5월31일~6월6일 1주간의 행사들을 분석하면 스포츠행사 2, 종교행사 4, 동창모임 4, 예술행사(예술제·음악회·미술전) 3, 리셉션 1이 된다.

이같은 행사성행은 이곳 한인사회가 그만큼 활발하게 친교를 더하고, 발전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고무적 현상으로 평가되고 있다.

휴가와 캠핑, 여행등 대자연으로 달려가 삶의 환희를 만끽하는 황금계절을 맞아, 저마다 다투어 옥외로, 야외로 향하는 자연경향으로 미루어, 앞으로 더욱 많은 옥외행사들이 대폭 증가일로 현상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있다.

※「금주의 행사」란을 이용하실 개인·단체는 담당자 김종환 기자(533-2361)로 연락하면 된다.

※또한 「교민업소 소개」란을 이용, 자기 업체의 변동·개업등 소식을 실리고 싶은 업자는 담당자 유승민 기자(533-2362)로 연락 바라고 있다.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 · 2361

◀금주의 행사 (5월31일~6월6일)▶

◆5월27일~6월9일 구자승 개인전
곳: Setadel화랑
(302 킹·이스트·토론토)
연락처: 598-2119

◆1일(화) 하오3시~8시 실협사무실이전 리셉션
곳: 실협사무실(627A Bloor St.W.)
연락처: 533-7923

◆2일(수)~5일(토) 하오7시30분 국제탁구선수권대회
('82 Norwich Union Masters)
곳: Etobicoke Olympium Gymnasium
(590 Rathburn Rd.)
연락처: 362-2961(Rick Hardy)
참조: 한국프로선수 박이희 출전

◆3일(목)~6일(일) 하오8시 심령대부흥회
강사: 최흥석 목사
곳: 서머나감리교회(Sheppard와 Finch사이 Yonge St.에 위치)
연락처: 751-3611

◆3일(목)~6일(일) 하오8시 남북미성회
강사: 김창인 목사
곳: 중앙장로교회 (502 Bathurst)
연락처: 274-5305

◆4일(금) 하오7시~6일(일) 하기수양회(협신선교협회 주최)
강사: 김영자 반석기도원장
곳: 협신기도원(6 Hockley Valley Rd.)
연락처: 245-1687

◆4일(금)~6일(일) 하오7시30분 특별성회
강사: 나운몽 목사
곳: 오순절장로교회(754 Indian Rd.)
연락처: 762-1495

◆5일(토) 상오10시 제2회 캐나다한인친선탁구대회
곳: 994 Carlaw Ave.(웨스트·웃 주니어하이스쿨)
연락처: 533-2361 (송광호)

◆5일(토) 상오10시30분 홍익동문야유회및 총회
곳: Albion Hills Conservation(8km North of Bolton on Hwy 50)

◆5일(토) 상오11시 이화여고동창 봄맞이야유회
곳: Downsview Dells Park(Jane과 Keele사이 Sheppard Ave.)
연락처: 494-4906 (송민자)

◆5일(토) 하오7시30분 씨알예술제 '82
곳: Central Technical School
(Bathurst × Harbord)
연락처: 441-2986

◆5일(토) 하오7시30분 보라매 창립총회
곳: 한인회관
연락처: 767-2241(윤여경)

◆5일(토) 하오8시 자선음악회(토론토한인합창단)
곳: 한인연합교회(300 Bloor St. W.)

◆5일(토) 상오10시30분 경남고교동창야유회
곳: 달링턴 프로빈셜·파(Picnic Area 1)
연락처: 244-2873

방학을 알차게

Y어린이 여름학교

토론토 Y한글학교(교장 김창열)는 예년과 같이 올해도 여름방학동안 「Y여름학교」를 연다.

7월5일(월)부터 8월27일(금)까지 8주간 매주 5일간(월~금) 상오9시반부터 하오3시까지 Heydon Park Secondary School(칼레지·스트릿 남쪽 두블럭 Dovercourt)에서 열리는 이 여름학교는 유치반~9학년생까지 선착순 80명을 모집한다. 수업료는 월 $110이며, 한집에서 2명 이상일 경우 할인이 있다.

한글·한국문화·수영·체육·야외견학(소풍)·영화감상·미술이 필수과목이고, 선택과목으로는 태권도·피아노·무용·공작이 있다. 개인지도로 기타·영어·수학·과학·불어·미술을 실시한다.(●문의처: 536-1166 Mr. Kim)

한편 노인및 어른을 위한 영어교실은 월요일과 목요일 상오9시반~11시반 무료로 실시한다.

토론토대 입학시험제

84년부터 실시결정

토론토대학교 이사회는 20일 올해 동대학교에 지원한 고교생들은 84년 부터 평준화된 입학시험을 치르도록 결정했다.

지원자들 출신고교들의 성적평가 기준이 천차만별임을 크게 유의한 이사회는 지난 몇달간의 토론끝에 표결에 부친바 압도적으로 입학시험 실시안을 가결했다.

입시비는 $20이며 시험출제와 관리는 미국의 전문시험 출제소에서 한다.

영화관람료 인상

성인 $5, 노인 $2

은막을 보기 위해서 금을 지참해야할 때가 온 것같다. 메트로 토론토의 영화관람료가 또 오른다.

28일부터 메트로지역의 18개 페이머스·플레이어스(Famous Players)소속 영화관들은 관람료를 $5로 올리고, 70mm 돌비·사운드 영화에 대해서는 $5.50을 받는다. 미성년자와 노인들은 각각 $3.50, $2이다.

씨네플렉스(Cineplex) 대변인도 조만간에 씨네플렉스 소속 영화관들의 관람료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며 몇몇 특별영화에 대해서는 이미 $5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페이머스·플레이어스와 씨네플렉스는 오데온(Odeon)과 더불어 캐나다 유수의 극장연합이다.

영화관람료는 1년전에 $4에서 $4.50으로 인상됐었다.

국산차 생산증가

액화천연개스차 개발

(서울)79년이후 침체일로를 걷던 한국 자동차생산업계는 신종승용차 개발로 국내판매고가 늘고있다.

현대자동차는 4·5월 2개월간 신종승용차 「포니 2」를 7,500대 생산, 1일 생산고가 100대를 넘어섰다. 또 새한자동차에 의해 개발된 액화천연개스를 연료로 쓰는 배기량 1,300cc의 「맵시」도 하루 70~80대 팔리고 있다.

제임즈·햄 토론토대 총장

4년임기 끝나면 내년 은퇴

제임스·햄 토론토대총장이 내년 여름 임기가 끝나는 대로 은퇴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햄총장은 27일 "내년에 63살이 된다. 지난 19년중 16년을 대학운영에 관계했었다. 이제 저술활동에나 전념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 4년간 캐나다 최대의 대학, 토론토대학의 총장직에 몸담아 온 햄씨는 전기공학을 전공했고 공대학장을 지냈었다.

측근들은 그가 총장직을 교섭받았을때 그다지 달가와 하지 않았으나 의무감에서 거절치 못한 것으로 전했다.

"대학총장직이 매력적인 시대가 아니다"고 말하는 햄총장은 기술이 사회에 끼친 영향과 군중이 어떻게 새 기술을 수용하는가에 관한 책을 집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행상식〉 ③

CPAir를 이용한 모국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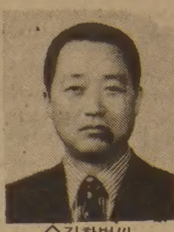
김창범(신세계여행사)

비행기에서 내리기에 앞서 일본입국신고서를 나누어 준다. 만일 동경에서 당일 연결편으로 서울로 가는 사람은 이것이 필요하다. 이들은 비행기에서 내리면 CPA직원이 입구에서 안내해준다. 보통 대한항공 001편으로 연결되므로 내리자 마자 탑승 Gate를 찾아가서 비행기표를 보이고 탑승권을 얻어서 비행기로 나가면 된다.

동경에서 하루쉬고 가는 통과여객은 긴복도를 지난후 입국수속을 받는다.

이때 캐나다 여권 소지자는 입국비자가 필요없으므로 기내에서 작성한 입국신고서와 여권 및 비행기표만 보이면 된다. 한국여권 소지자는 입국수속의 대열에 서기앞서 그 근처에 임시 탁자를 차려놓고 나와서 기다리는 CPA직원에게 표를 보이고 통과여객증명서를 받아서 입국수속에 첨부하여 제시한다.

입국수속이 끝나면 아랫층으로 내려가서 손에들고 들어가는 짐의 세관검사를 받고 복도로 나오면 CPA카운터로 찾아간다. CPA직원이 항공표를 확인하고 호텔쿠폰을 준다. 동시에 그 옆에 대기해있던 호텔안내원이 손에 든 가방을 받아 들고 밖으로 안내하여 뻐스에 태워준다. 호텔쿠폰에는 저녁이나 아침식사까지 포함돼 있는데 이튿날 일찍 일본항공편이나 서북항공편으로 출발하는 사람은 저녁만 주고, 오후 KAL편으로 갈때는 아침식사까지 포함해준다.



◇김창범씨

동경에서 숙식은 무료

외국거주자, 1만달러까지 허용

나리다공항 인근에는 6개정도의 호텔이 있는데 그중 하나에 보내진다. 한국사람은 각자 다른 호텔에 예약돼 있더라도 동행의 의사를 표시하면 같은 호텔 유숙이 가능하다. 뻐스로 10분 정도면 호텔에 도착한다. 후론트 데스크에서 호텔쿠폰을 보이고 몇가지 기입하는 등록수속을 마치면 방이 배정된 열쇠와 식권을 준다. 호텔에 따라 다르나 일본 식당이 있는 곳에는 금액에 해당하는 최고급 저녁식사를 즐길 수 있다. 알콜음료수는 별도이다. 호텔에 따라서 아침식사가 좋은 곳이 많다. 두부가 든 된장국에 따뜻한 흰 쌀밥과 다꾸왕으로 치루는 아침식사는 양식만 강요당해 오던 한국분들에 다소나마 식욕을 돋구어 준다.

동경에서 일박하고 떠날때 연결비행기편에 따라서 호텔에서 1시간반전에 뻐스가 출발한다. 각자 항공편을 알고있는 호텔측에서 사전에 연락해 준다. 나리다 국제공항은 South Wing과 North Wing으로 구분돼 있으므로 자기가 타는 항공회사를 찾아가서 표를 보이고 탑승권을 얻는다. 이때 공항세조로 일화 2,000엔(US$7)을 지불하고 아랫층 출입국관리소를 거쳐 항공기대기소에 도착하여 방송이 시작되면 비행기에 올라탄다. 동경에서 서울까지 2시간 정도.

김포에 내리면 먼저 검역을 통과하고 출입국관리소에서 입국수속을 받는다. 동경을 떠나서 얼마 안되어 기내에서 배부하는 입국신고용지와 세관용지를 준비하였다가 이때 제출한다.

다음은 짐을 찾아서 통관을 한다. 통관용지와 함께 여권을 제시하고 짐검사를 받는다. 특별히 정보가 들어오지 않는한 짐검사는 간단하다. 외국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일 경우 만달러까지 신고없이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또 쓰다남은 돈을 만달러까지는 신고없이 가지고 나올 수 있다.

장로교 공개사과 요구

불교도들 명목사 발언 규탄

(서울28일=연합)약4백명의 조계종 승려와 주로 학생들인 불교신자들은 27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장로교단 소속 명진형 목사 규탄대회를 가졌다.

불교에서 기독교로 전향한 명목사는 지난 25일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 부흥회에서 "불교 사찰들은 악마의 소굴"이라고 했었다.

불교도들은 이번 집회에서 장로교단이 명목사의 발언에 대해 공개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성토대회후 거리로 몰려 나오려했으나 경찰에 의해 제지당했다.

한국일보
533-2361

〈식자안내〉
컴퓨터 사진식자기
★ 가격저렴
★ 빠른 서비스
한국일보사
☎: (416)533-2361

교황, 아르헨도 공식방문

영국 6일간 방문뒤이어 내달10일에

(바티칸시티-) 교황 요한·바오로2세는 다음주 영국을 방문한뒤 다시 6월10일 아르헨티나를 공식방문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요한·바오로2세는 이날 성베드로광장에 모인 순례객들에 인사를 보내는중에 한보좌관으로부터 아르헨티나정부가 그의 방문을 수락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한편 아르헨티나정부는 26일 교황 요한·바오로2세가 오는 6월11일~12일 이틀동안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토마교황청 관리들은 교황의 아르헨티나방문은 6월10일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황은 포클랜드사태로 취소하려던 영국방문을 예정대로 실시키로 결정, 5월28일부터 닷새간 영국을 방문한뒤 6월2일 로마로 돌아온다.

기생충감염 우려

중동의 한인들

(서울26일=연합) 중동지방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기생충에 감염될 우려가 크다고 한국 연세대학교 의과대학교수 2명이 보고서에서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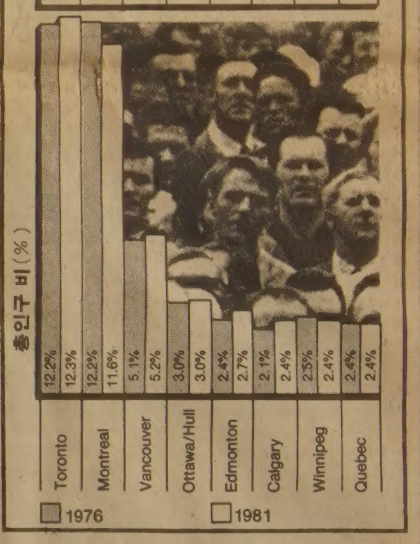
최근 한국기생충 학계에 발표된 이들의 보고서에 의하면 북예맨에서 일하다 본국에 돌아온지 3~6개월된 토목기술자 3명의 오줌에서 시스토소마 기생충이 발견됐다.

이 기생충은 물에서 서식하며 인체에 들어가면 혈관에 붙어 피를 빨아 먹는다. 이 기생충을 가진 사람은 보통 빈혈증세를 일으킨다.

보고서는 3명의 토목기술자가 북예맨의 개울에서 수차례 목욕하다 감염된 것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다. 이들은 목욕후 가려움증으로 고생했다.

캐나다 주요도시 성장도

성장율(%) 1976-1981							
6.1	-.1	7.8	2.2	16.5	24.1	.4	5.2



◆캐나다 통계국 집계에 의하면 캐네디언의 75%가 인구10만 이상의 도시에 살고있다. 그리고 총 인구의 30%가 캐나다의 3대도시 토론토, 몬트리얼, 뱅쿠버에 거주하고 있다. 위의 그래프가 보이는 것처럼 에드몬톤 캘가리 같은 지역의 도시들이 급성장 하고있다.

〈여동원수필선〉(4)

영어와 불어 틈새에서

내가 가게를 유대인으로부터 인수받던 날 그분은 내게 장사조건 2계명을 신신당부 일러주었다.

2천년동안 남의 나라에서 눈치로 장사를 해먹고 산 오랜 경륜에서 얻은 장사철학일 것이니 심오한 뜻이 담겨있을 거라생각하고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10계명을 지키듯 나는 장사 2계명을 지킬 것을 맘속 깊이 집어넣었다.

그런데, 그 계명이란 것이 뭐 별달리 거창하고 '어려운 그런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것이었다.

그 첫째 계명은,

"헬로우"와 "생큐"를 입에 앵무새처럼 발라두어라.

그 둘째 계명은,

"이 나라는 영어와 불어를 사용하는 국가라 모든 상품엔 영어와 불어가 씌어 있다. 이곳은 영어사용도시이니 손님에게 영어글씨쪽만 보이게 진열하라".

이 하잘것 없고 싱겁기짝 없는 2계명을 나는 오늘날까지 굳게 지키고 있다. 과연 그들(유대인)다운 충고임을 갈수록 깨닫는다. 그들이 어느나라에서나 장사로 돈을 벌어 잘살고 있는 지혜는 거창한데 있지 않고, 바로이런 것이었구나 감탄한다.

2살배기 어린 것이 눈깔사탕 하나 사도 "생큐"요, 성냥 하나를 내쪽에서 공짜로 주면서도 먼저 "생큐"요, 누군가가 문을 열었다 하면 보지 않고도 "헬로우"를 하고, 가끔 바람이 문을 열어도 무의식중에 "하이"다.

"헬로우", "생큐"! 이것은 바로 친절봉사의 기본자세가 아닌가.

웃는 얼굴에 누가 침 뱉으리요!

뱉은 잠시 가게 문을 열기 전에 집 서랍속에 모셔두고, 삼각지의 순이처럼 입웃음, 눈웃음 살살 치며 "헬로우", "생큐", 고객을 왕처럼 모신다.

둘째 계명도 로마에 가면 로마인이 되는 이치를 유대인들은 돈버는 상술에 철저히 적용, 써먹은 것이다.

그들의 종교, 그들의 언어, 그들의 풍속을 2천년을 한결같이 흩어진 세계의 곳곳에서 굳게 굳게 기적처럼 지키면서도 장사하는 현장에서만은 그 지역감정을 건드리지 않으려는 용의주도한 슬기와 요령의 지혜를 나도 본받기로 한 것이다.

대수로울 수 없을 것같은 불어쪽을 감추라는 둘째계명, 갈수록 심오한 상술의 도가 아닌가 깨닫게 된다마는 산처럼 쌓인 그 많은 상품 하나 하나를 몹시 피곤한데 값을 붙이고, 진열할 때마다 빙빙 돌려가며 불어와 영어를 확인하기란 그렇게 쉬운일이 아니다.

시간이 금인데, 그냥 척척 올려 놓으면 좋으련만 돈버는 것이 그렇게 쉬운가, 계명을 지키자, 지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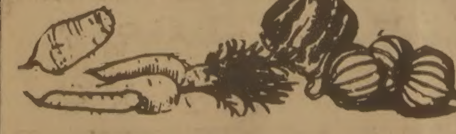
그런데 하루는 중년여자 한분이 머리 샴푸를 찾는다. 그것도 바로 샴푸 바로 앞에서였다. 내가 손으로 "바로 거기에 있지 않읍니까"하고 가리키니까 그때서야 "아이 씨이, 아이 돈 노우 프렌취"

글씨만 다를 뿐, 그림은 같은 그 물건을 뻔히 알면서 하는 수작에 내 아내에게 하듯 그렇게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전 주인의 2계명을 또 상기하며 참았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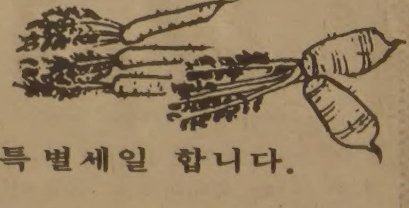
나보다 한발 먼저 이민와서 어려운 여건속에서 개척한 영, 불의 선배이민자들의 은혜, 내 모르는 바 아니며, 또 외면하자는 것도 아니나, 그들이 "캐나다"라고 하는 이 넓고 아름다운 나라를 일단 만든이상, 사이좋게 지내면 얼마나 좋으련만 마치 이곳에 영국을 건설할 것처럼, 프랑스를 건설할 것처럼 설쳐댈 때는 우리같은 새우족은 틈바구니에 끼어 눈치를 봐야하니 이민사회 이런 곳에도 문제는 있구나.

영국을, 프랑스를, 이태리를, 중국을, 그리고 한국을 이곳 캐나다의 넓은 구석구석에 심으려는 어리석고 어처구니 없는 민족주의자들이여! 새발의 피같은 내 말도 좀 경청해 주시구려.

나는 내가 자란, 나를 만든 한국적인 것, 모든 것을 절대로 절대로 버릴 순 없다. 그러나 그것을 남에게 강요하거나, 남이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한국적인 것의 내가 이곳 사회에 조화를 이루어 사는 현명함을 나는 오늘도 찾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특별대매출



한국 미나리, 속은배추, 햇무 대량입하 갈비, 불고기, 파운드당→여름 특별세일 합니다.

쌀1,000자루(1콘테이너)및 마른 상품과 생선(1콘테이너)이 들어왔읍니다.

●쌀D·Y가주미		15.95	~~17.95~~
●사보로이찌방		7.99	~~10.95~~
●D·Y참기름		7.99	~~9.95~~
●D·Y우동국수	5Lb	3.99	~~4.99~~
●D·Y막국수	5Lb	3.99	~~4.99~~
●D·Y소면	4Lb	2.99	~~3.79~~
●한국고추가루	(김치용)Lb당	2.99	~~3.99~~
●D·Y새우젓	Lb당	1.59	~~2.89~~
●햇김	100장	10.95	~~14.95~~

●D·Y엿기름	Lb당	1.99	~~2.79~~
●D·Y메주가루		1.99	~~2.89~~
●회조개	2Lb bag	7.99	~~10.95~~
●멍게	1Lb bag	3.99	~~5.95~~
●물해삼		4.99	~~6.99~~
●낙지		6.99	~~9.99~~
●생굴		2.99	~~3.49~~
●일본라면	30봉지	14.99	~~17.99~~

※쌀은1자루씩만 팝니다.
⊙삼양궁중면·장수면 (볶은고추장, 찹쌀모찌, 찐빵, 냉면 등 대량입하)

양은다라, 찜통, 냄비 대량 입하

비데오 테입 판매대여.

한밭식품 466 SOUTH SERVICE RD. MISS
274—5401 625—1078 임수철 설동란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年$99, 月$9,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영창악기의 웨그너 피아노 대리점 생겨

대표 박성희씨 "음질좋고 값이 싸"

◆박성희씨

피아니스트 박성희씨가 웨그너·하우스·오브·뮤직(Wagner House of Music)이라는 웨그너 피아노대리점을 25일 개업했다.

일본 야마하피아노와 기술제휴한 한국영창악기의 제품인 웨그너피아노는 미국시장에서 이미 "영창"이란 이름으로 인기를 얻고 있으며 야마하와 같은 수준의 품질이나 값은 훨씬 싼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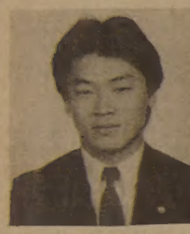
박성희씨는 27일 3년전 캐나다에 상륙한 웨그너피아노는 몬트리얼의 맥길대, 엘버타 대등의 음악대학에서 사용되며 특히 그랜드 피아노는 캐나다 전체 그랜드 피아노 판매량의 30%를 차지하고있다고 전했다.

가격은 웨그너의 베이비·그랜드 가격이 야마하 대형 업·라이트 가격과 맞먹는 정도.

부동산업자 황용현씨의 부인인 박씨의 「웨그너·하우스·오브·뮤직」의 전화는 446-1431

새 GM딜러에 손명철씨

교민 특별봉사 다짐



◆마이클·손

손명수 태권도 사범의 동생인 태권도인 손명철(마이클·손)씨가 제너럴·모터즈 자동차 딜러로 일하게 됐다.

로얄·욕 서쪽인 3200 Bloor St. W.에 위치한 쉬보레 & 올즈모빌(Chevrolet & Oldsmobile) 딜러 험버뷰회사(Humber view) 세일즈맨인 손씨는 G.M.의 각종 승용차, 밴트럭 혹은 중고차를 사거나 리스할 때 많은 교민들이 찾아줄 것을 바라고 있다.

전화는 236-1011(B) 763-1155(R)

리온즈가구점

세일즈맨 조석민씨

◆조석민씨

교민 조석민(Kevin Cho)씨가 캐나다 최대규모의 가구도매및 소매점의 하나인 리온즈가구점(Leon's Furniture)의 세일즈맨으로 활약중이다.

가구는 물론 카페트, 전축, 세탁기등 각종 가정용품을 취급하는 리온즈가구점의 영업시간은 월~토 오전10시부터 저녁10시까지 오픈한다.

주소는 20 Mclevin Ave.(쉐퍼드×마캄)

조석민씨의 전화번호는 291-3818(B), 749-9687, 746-0981(R)이다.

교민동정

◆이축길(전 사진협회장)= 다년간의 아파트생활을 청산, 2주전 미시사가지역(딕시×버난돌프 근처. Tel 625-0562)에 아담한 저택을 구입. 지난 23일 저녁 고종욱 신부 집전으로 축성했다. 이 자리에는 가톨릭성령세미나 지도차 한국에서 온 김창렬(가톨릭의표원장)·정희욱(경북 영양성당)·여충구(충남아산군공세리성당)·김민수(경남함안군 대산성당)의 4신부가 축성식에 참석, 새집 식구들을 축복했다.

⊙씨알학교

여름캠프 학생 모집(60명)은 12학년 이상이 아니고 2학년 이상임을 정정합니다.

한국일보
533-2361

◀독자의 광장▶

발음표기와 개명

정창우

홍콩에 가면 可口可樂 이란 간판을 많이 볼 수 있는데 Coca Cola를 한자어로 표기한것이며 뜻도 재미있다. 한번은 동경에서 영화관에 붙은 큰 간판에 "xxxx ガンマン"(강맘)이라고 써 있는것을 보고는 무슨말인가해서 한참을 생각했는데 옆에있는 그림이 서부의 사나이인 것을 보고는 아— Gun Man 이구나하고 알아차리고 쓴 웃음을 지었다. 일어와 한자의 예를 보았지만 많은 영어가 이런식으로 표기가 되는것을 볼때 우리 한글의 표기력이 얼마나 뛰어난것인가를 알수있으며 점수로 치자면 80—90점은 되는 셈이고 많은 이민자가 모여사는 이곳에서도 우리 한국사람의 영어 발음이 뛰어난다는 것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유감스러운 일은 우리의 많은 성(姓)을 올바르게 영어로 옮기지 못해 정씨가 청(Chung)씨, 전씨가 천(Chun), 박씨가 팍(Park)씨, 그리고 고씨가 코(Ko)씨로 불리워지는 것은 어딘가 개운치 못한감이 든다. 성이 바뀌었다고도 볼수가 있다. 정씨는 Jung으로, 박씨는 Bark으로, 고씨는 Go로 할수없나하는 아쉬움이다.

50년대에 해외여행을 했을때에는 한국에서 여권신청하면 신청자가 신청서에 이름을 영어로 적어넣은 그 스펠링대로 여권에 써줬는데 60년대에 들어서는 여권과에서 성씨의 스펠링을 통일한다고 해서 일람표 같은것을 만들어 놓고는 위와같이 성을 바꾸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 공항에 내릴때부터 정씨인 내가 미스터청으로 불리워지는 것이 찜찜하다.

이곳에와서 시민권 신청을 할때 Chung을 Jung으로 할 수 없겠느냐고 했더니 법원에 개명신청을 해야한다고하여 바쁜생활에 번거롭기도 하여 그대로 지내오고 있는데 이제는 내 본성을 찾기위해서 개명신청을 해야 할 판이다. 이제라도 한국의 관계부처에서 틀린 점을 시정하여 앞으로 해외에 나올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제대로 불리워질수 있어야겠고 개명신청을 하는일도 없도록 해줬으면 한다.

한국사람에게 약간 까다로운 영어 발음이 L과R, B와V등이 있는데 L과R을 구별하는데는 L을 ㄹㄹ로, R을 ㄹ로 표기한다든가 하면 좋을것을 잘못하면 Long도 롱이고 Wong도 롱인 것 이다.

신문에 한창 오르내리는 Folkland기사를 보면 "포클랜드"로 쓰고 있는데 "후오클랜드"라고 썼으면 좋을 것이고 "타이거·피시 어뢰발사——"는 Tiger fish일테니 "휘쉬"가 옳지 않을까한다. 또 Florida를 플로리다, France를 프랑스, Fashin을 패션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Plorida, Prance, Pashin이 되는것이 아닌가. 이곳에와서 자란 우리 자녀들이 한글을 깨우치고 한국신문에 "포클랜드"라고 쓴것을 읽고는 영어로 Polkland라고 spelling을 만들어서 Folkland 옆에 좀 있는 섬으로 생각한다면 무언가 틀려도 많이 틀렸다. 또 호주수상 Fraser를 "푸레이저"로 했으니 남의 이름 지명등을 올바르게 쓰고 붙일수있는 한글표기로 시정이 되야겠고 우선 Canada에서 발행되는 한국신문만이라도 인명, 지명만을 영어로 써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심성의껏, 염가로 봉사합니다.
단체손님 환영,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한국일보
광고
문의처
533-2361

〈장편연재〉

영원의 방랑객 ㊼

고 마태오

제4장 딴따라 미사의 파동

나는 즉시 내 방으로 돌아와 "모래알 마당"신문사에 전화를 걸었다. 오는 주일날 오후 드롤레 거리에서 문제의 사나이였던 부리노가 회개하고 가두전도를 하게 되는데, 그 광경을 기사화 하라는 내용의 말을 전했다. 당시 모래알에는 여러개의 신문이 있었으나 그 중에서도 "모래알 마당"은 주로 시중의 화젯거리를 취급하는 신문이었다. 그리고 또한 이신문은 반교회적인 경향을갖고 있었으며, 특히 교회의 보수성과 제도를 신랄하게 비난하고 있을 때였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부리노의 가두전도는 이 신문사의 호기심을 충분히 일으키고 남으리라고 나는 생각했었다.

나는 토요일밤 주일미사 독서와 복음성경 풀이를 타자한 원고를 들고 부리노를 찾아갔다. 우리둘은 밤이 깊도록 그가 다음날 해낼 가두전도를 준비했다. 주일미사 성경에 맞는 신편도 여러개 선택해서 찬송곡에 맞춰 노래도 불러봤다. 모든 준비는 완료되었다. 부리노가 가두전도에 대한 이름을 하나 지어달라기에 "딴딴다라 미사"라고 지어주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그때 그렇게 내 머리에 떠올라온 것이 딴딴다라 미사였기에 그렇게 명명해 줬던 것이다. 부리노가 딴딴다라의 뜻이 뭣이냐고 묻기에 나는 "노래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딴딴다라라고 말해줬다. 그는 그러한 뜻을 가진 딴딴다라 미사에 깊은 애착을 느끼는것 같았다.

주일날 오후2시 나는 자동차를 멀찌감치 세워놓고 차안에서 부리노의 활동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딴딴다라 미사"라는 간판을 자기 집앞에 세워놓고, 그 밑에서 기타반주에 맞추어 노래하고 있었다. 그의 노래솜씨는 일급이었다.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고 있었다. 어떤 노인부부는 집에서 의자까지 가져와서 아예 편안한 자세로 앉아 노래를 듣고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수도 늘어났다. 내가 멀리 있어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부리노는 노래하다 중단하고 뭔가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었다. 아마도 성경풀이를 하고있는 모양이었다. 모여든 사람들의 수도 30명은 넘을 것 같았다. 이제 사람들은 부리노를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때 누군가가 열심히 사진을 찍고 있었다. 부리노는 아랑곳하지 않고 정성껏 노래 부르고 있었다. 이 정도면 대 성공이라고 생각하며 나는 사제관으로 돌아왔다.

다음날 아침 모래알 마당에 부리노가 기타치며 노래하는 모습의 큼직한 사진과 함께 그가 말한 성경풀이를 중심으로 한 내용의 기사가 전면에 실려 있었다. 기사 세목도 아주 충격적 이었다.

"교회는 성당에서 길거리로 나와라."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가져라."등의 선동적인 타이틀 이었다. 신문기사에는 그 딴딴다라 미사에 참례했던 몇몇사람들과의 인터뷰도 곁들여 있었다. 신문기사에 따르면 사람들의 반응은 아주 좋았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의 대부분이 교회에 대해서는 비판적 이었다. 그들은 한결같이 교회를 부르조와라고 비난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가두전도반을 조직하여 주일날 이런식으로나마 주님을 찬미하자고 제의하고 나서기도 했다.

하여튼 부리노가 시도한 "딴딴다라 미사"는 내가 예상한 만큼의 대성공을 이루었다. 틀림없이 이 신문기사가 교회당국에 충격을 줄것이며, 동시에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깊은 반성의 기회를 줄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었다. 특히 쌍·루이·드·프랑스 본당 신부들이 무시해 버릴 수 없는 사건이 되리라고 생각하며 나는 마음속으로 지극히 만족하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기이에 본당신부가 〈모래알 마당〉을 들고 흥분된 표정으로 나를 찾아왔다. 그분은 자리에 앉자마자 입을 열었다.

"태오 신부, 이거 어떻게 된 거요?"

"글쎄 올시다. 본당신부님, 저도 오늘 아침에서야 신문을 보고 알았읍니다."

나도 놀라는 표정을 짓고 태연하게 말했다.

"부리노가 가두전도할 것은 예상하고 있었으나, 그것이 이처럼 신문에 기사화될 줄은 미처 생각 못하고 있었소. 혹시 이 사건에 당신이 관여하지 않았나 생각되어 찾아왔소."

"전번에 신부님께 말씀드리고 양해를 받은대로 부리노에게 강론준비를 시켜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외의 일에는 관여한 바 없읍니다."

"잘 알겠소. 오늘 오전중에 주간사목회의을 가질 예정인데, 당신은 이 문제를 토의할때 깊이 참견하지 않는것이 좋을거요. 일부 보좌신부들은 부리노의 가두전도에 당신을 관련시켜 이 사건을 보고 있는것 같은데, 그들을 자극하는 발언을 삼가는 것이 현명할것 같소."

"잘 알겠읍니다, 본당신부님."

(계속)

빅·세븐선물센타
각종한약. 우황청심환
화장품등
533—7966 김 영 철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창립 제 5주년을 맞이하면서 그 축하의 잔치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귀한 일꾼들을 세우는 장로 장립식을 거행하고자 하오니 오셔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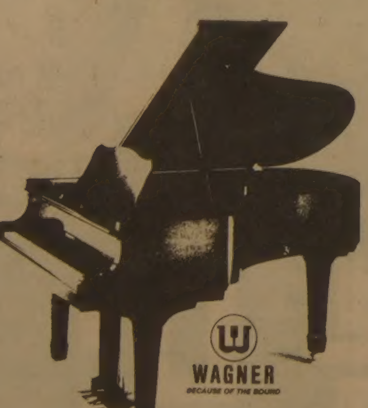
◉장로장립: 윤치복 집사, 최태호 집사

◉장　소: 해밀턴 한인교회
1570 Main St. West, Hamilton

◉일　시: 1982년 6월 6일(주일)
오후 3시30분

해밀턴한인교회
담임목사 김낙중

Everybody's talking about WAGNER..
BECAUSE OF THE SOUND THE QUALITY AND THE VALUE



WAGNER PIANO 는

*품질의 높음이 세계적으로 알려져 구라파와, 미국은 물론 카나다에서 수많은 음악전문가들의 호평을 받고 있으며
*카나다의 최우수 대학인 몬트리올의 McGill University 음악대학, University of Alberta 음악대학, Humber College 음악과 등에는 이미 Wagner Piano를 다량 애용중이며,

*상당수의 U of T음악교수들, 카나디안음악인들, 토론토한인음악인들이 Wagner Piano를 소유하고 있읍니다.
*Wagner Grand Piano 는 카나다 전체 Grand Piano 판매량의3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증가일로에 있읍니다.
*Wagner Piano는 12년간 본사에서 품질을 보증합니다.
*Clear and Precise Sound, Uncompromised Quality and Unbelievable Price는 Wagner의 자랑입니다.

WAGNER HOUSE OF MUSIC
JASTOM TRADING COMPANY LIMITED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ARIO M3B 1Z3
☎ (B) 446-1431, 449-8644　(H) 286-1548　대표 박 성 희

부동산및사업체
매매 알선 상담

SINCERE REALTY INC.
2814 VICTORIA PARK AVE.
WILLOWDALE, ONT. M2J 4A9

* 주택·대지·아파트
* 가게·상가·사업체
* 이민이나 면세를 위한 투자
* 토론토에 새로 오셨거나 오실분
* 좋은 사업계획에 투자나 동업가능

각종 사업체와 부동산 일체의 매매를 위하여 신속 정확하게 성심 성의껏 노력 하겠아오니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과 이용이 있으시길 희망합니다.

—경　력—

★수퍼마켓 소유 운영2년
★무역회사 소유 운영2년
★부동산업 종사 7년이상
★케네디안 대학 졸업

채준성
DAVID CHAE

(416) 497—8900 (B)
(416) 633—7892 (R)

한국일보
의 理想은 健全한 新聞

「貸金業法」제정 私債양성화

政府검토 研究班설치 實態조사 對策수립

國稅廳에 신고않으면 처벌
利子·담보 上限線설정…規制

정부는 私債양성화 방안으로 私金融 담당기관인 상호신용금고를 대형화하고 신규설립을 허가하는한편 사금융을 규제할수있는 貸金業法제정을 검토하고있다. 검토중인 貸金業法은 대금업자의 신고를 의무화, 사채금리의 최고한도와 담보상한선 설정등 사금융을 규제하는내용을 포함하게되며 이법이 시행되면 모든 사채업자는 의무적으로 국세청에 신고해야하고 종전처럼 신고를 하지않고 음지에서 사채놀이를 하면 처벌된다.

信用金庫신설·大型化·활성화와 병행

금융제도개편문제를 검토하기위해 설치된 금융제도심의위원회(공동위원장 羅雄培재무장관, 具本湖한양대교수)는 26일상오 외환은행회의실에서 모임을갖고 사채시장의 양성화를 골자로한 상호신용금고의 현황과 활성화방안을 검토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정부당면경제대책추진 실무협의회(의장 기획원차관)는 26일 한국경제개발연구원(KDI)주관으로 한국은행 단자회사 학계등의 전문가로 연구반을 구성, 사채시장 양성화를 위한 장단기대책을 수립키로 결정했다. 이 연구반은 3~6개월간에 걸쳐 국내외의 실태를 파악한후 본격적인 작업을 하되 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등 공개적으로 추진토록 했다.

한편 26일열린 금융제도심의위원회는 전문위원이 제시한 사금융양성화 방안을 심의만하고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 전문위원들이 제안한 신용금고 활성화방안은 신용금고의 업무를 확대하고 금리를 실세화하며 신규설립과 지점설치등을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상호신용금고의 업무 확대방안으로는차입금한도를자기자본의 5배에서10배로늘리고현재 2천만원인동일인대출한도를 대폭확대하며어음할인한도를 자기자본의 2배에서 총여신의50%로 늘리는 방안등이제시되었고 금리실세화를 위해서는 은행금리에다 일정률(10%)을 더하는 기준금리제 또는 최고금리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호신용금고의 신규설립은 허가주의가 아니라 일정기준에 맞으면 모두 허용해주되 과당경쟁이 예상되는 경우는 지역별 TO제를 적용하고 아울러 단일점포로는 업무신장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점설치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했다.

이와함께 금고설립에 따른 보완조치로 비은행 금융기관 전문감독기관을 설립, 제2금융권의 중앙은행역할을 수행하며 기관간·지역간의 자금수급조절기능을 담당케하는 동시에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지도감독및 조사연구를 맡도록하는 방안도 검토의 대상이되고있다.

私債陽性化法 다음會期넘겨
李民正총무

民正黨은 26일 정부로부터 私債陽性化를 위한 法案이 이번국회에 제출되더라도 拙速처리의 우려가있다고보고 그 처리는 다음국회로 넘길방침이라고 李鍾贊총무가 밝혔다.

地方道포장에 千2百億

경제活性化일환 國道8百億…빠르면 내달着工

정부는 5·18 경제활성화조치에따라 벌이기로한 2천억원규모의 도로포장 사업을 지방도로에 1천2백억원, 國道사업에 8백억원으로 나누어 투입, 빠르면 6월중에 일부공사가 착공될수 있도록 대상사업의 조기선정을 서두르기로 했다.

26일하오 열린 정부의당면경제대책추진실무협의회(위원장 鄭寅用경제기획원차관)는 농촌지역에대한 노임살포와 도로망확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은행 起債로 벌일 도로포장사업은 내무부와 건설부가 협의, 대상지역을 선정하되 부분포장으로 중단상태에 있거나 주요지방도로에 연결되는 미포장國道중심으로 8백억원, 지역주민의 숙원도나 유통, 농가 취업기회창출등을 종합감안, 지방도로사업에 1천2백억원의 자금을 투입키로 결정했다.

또 도로포장사업에따른 농촌지역의 노임살포, 소득증대, 고용효과등을 높일수 있도록 지방건설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 지금까지 지방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중 2억원미만짜리에 한해 지방건설업체에만 입찰자격을 주던것을 3억원미만짜리로 그대상을 확대키로 결정했다.

이날 실무협의회는 앞으로私債양성화는KDI의실태파악을토대로각계전문가들의정책협의회를통한 토론과정등 공개적으로 정책방안을 모색해나간다는 방침을 굳혔다.

國政特調委案 제출

民韓·국민당 國會열리는대로

民韓黨과 국민당은 오는28일 임시국회가 개회되는대로 李哲熙·張玲子부부의 巨額어음사기사건을 다루기위한 國政조사권발동을 위한 特調委구성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議政동우회도 27일 상오의총을 열고 特調委구성을위한 野圈의 행동통일여부를결정한다.

民韓黨은 또한 이번사건과 관련 28일 국무총리辭退권고결의안과 부총리·財務·法務장관의 解任결의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을 마련, 국민·議政동우회와의 공동제출을위한 교섭을 벌이고있다.

林鍾基 民韓총무는 26일 『만일 特調委구성 결의안이 국회운영위에서 부결될 경우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을 추진할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만일 民正黨측의 반대로 特調委구성이 거부된다면 野圈연합방안을 강구할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무총리와 부총리·財務·法務장관에대한 사퇴권고및 해임결의안을 오는 28일 개회식직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李東鎭국민총무도 이날『張여인사건의 핵심부분인 배후세력의 여부와 정치자금의流入부분에 대한 진상규명을위해 民韓黨과 공동으로 特調委구성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民正黨측은 야당측이 特調委구성 결의안을 낼경우 政黨국회상임위인 운영위, 그리고 필요하다면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否決처리시킨다는 방침을 마련하고있다.

英·아르헨 대규모破壞戰

포클랜드事態 아르헨 또 英구축함 1隻 大破

대처, "撤軍않으면 유엔決議 拒否權행사"

【런던·부에노스아이레스25日AP·AP=聯】포클랜드 사태를 둘러싼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무력대결이 대규모 파괴전으로 확대되고있는 가운데 아르헨티나는 독립기념일인 25일 새로운 공격을단행, 영국구축함1척을 대파시키는한편 지난21일 영국의 동포클랜드 상륙작전이 감행된이래 처음으로 英國軍의 교두보확보사실을 시인했다.

한편 마거리트·대처영국수상은 이날 하원연설을 통해 포클랜드분쟁은 아르헨티나군이 철수하지않는한 끝나지않을것이며 영국은 유엔安保理가 휴전안을 결의하더라도 이에 거부권을 행사할것이라고 선언했다.

대처수상과 하원에 출석했던 존·노트국방상은 이날늦게 ITN·TV를 통한 긴급방송에서 아르헨티나군이 25일 산카를로스교두보를 해상지원하는 영국함대에『대규모 공습』을 가해왔다고 말하고 이공격으로 영국함정 1척이 대파됐다고 덧붙였다.

영국국내통신 PA는 아르헨티나기의 공습으로 대파된 함정이 구축함으로 믿어진다고 보도했다.

한편 아르헨티나정부는 이날 성명을 발표, 동포클랜드에 상륙한 英軍2천명이 1백50㎢의 지역을 점령했다고 시인했다.

이 성명은 동포클랜드서쪽에있는 산카를로스만에 상륙한 영국군이 동서10㎞, 남북15㎞에 이르는 지역을 장악하고 이곳에대한 병력및전쟁 물자보급을 강화하고있다고 밝혔다.

스리랑카國 通商相 全대통령, 接見

全斗煥 대통령은 26일 스리랑카의 랄리스·아툴라스므달리 通商海運장관을 접견했다. 〈사진〉

이자리에는 金東輝상공장관과 金宇中 大宇그룹회장, 카스페르즈 스리랑카 海運公社사장이 배석했다.

蘇製무기 比밀반입 中東경유 게릴라에

【마닐라25日AP=聯】소련제무기들이 중동을 거쳐 필리핀의 반정부게릴라들에게 밀반입된 사실이 25일 공개된 필리핀군당국의 문서에서 밝혀졌다.

英·아르헨 「72時間休戰」 항목 삭제된 安保理修正案 동의

安保理소식통 밝혀

【유엔本部26日AP·UPI=聯】영국과 아르헨티나는 25일 에이레가 유엔安保理에 제출한 포클랜드사태결의안중 72시간동안의 휴전항목을 삭제한 우간다 파나마 자이레등 비동맹국가들의 수정안에 일단 동의를 표시했다고 유엔安保理소식통들이 말했다.

소식통들은 영국이 ▲포클랜드전투의 72시간 휴전 ▲하비에르·페레스·데·케야르유엔 사무총장의 평화중재재개등을 골자로 한 에이레측의 결의안에 대해 아르헨티나軍이 포클랜드군도에서 철수하기전에는 휴전에 응할수없다고 부정적인 태도를보여왔으나우간다를주축으로한 安保理비동맹회원국이 휴전조항을 삭제한 타협안을 제시하자 이에 동의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우간다등 비동맹국의 타협안은 페레스·데·케야르 총장의 협상재개와더불어 英國·아르헨티나 양국이 유엔사무총장의 협상노력에 협력할것이며 페레스·데·케야르 총장은 협상개시7일이내에 중재노력 중간보고서를 安保理에 제출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民權黨서 國調權발동 촉구성명

民權黨은 26일 임시국회소집과 관련 성명을발표『張여인사건에 시급히 國政조사권을 발동하여 遠視的이고 大局的인 견지에서 검찰이 못다한 배후와 자금의 행방을 소상히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은 또『改閣과 民正黨의 당직자 일부 사퇴는 국민의 의혹을 푸는데 관련이 없는일』이라면서『이번국회야말로 의회의 신뢰여부가 판가름되는 국내외의關心事』라고 주장했다.

전국우체국 내달에 居置式예금등 新設

체신부는 26일 농어촌 주민과 영세민을 위해 오는 6월부터 전국 우체국에 보통예금과 거치식 우편예금제도를 신설했다.

보통예금은 현재 은행의보통예금과 같으며, 거치식 우편예금제도는 은행의 정기예금과 통지예금을 통합한 새로운 예금제도로 이용대상은 개인·법인·단체등 제한이 없고 예치한도액은 최저1만원이다.

이자지급은 만기때 또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매월 지급받을수도 있는데 예치기간에 따른 이자율은 다음과같다.

▲1년만기(연12·6%) ▲6개월만기(연12·2%) ▲3개월만기(연12·0%) ▲30일만기(연10·8%)

◇아르헨軍의 로키트裝着

아르헨티나空軍 무장병들이 25일 지상공격용 푸카라 전투기의 로키트발사기안에 로키트를 장착하고있다.【부에노스아이레스25日AP=聯】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페灣戰종식 가능성

이라크선 대대적 反擊어려워"

호람샤르奪還계기

【베이루트26日UPI=聯】이란군의 호람샤르 탈환은 20개월간에 걸친 이란·이라크전의 종식을 알리는 전조일지도 모른다고 관측통들이 26일 말했다.

군사및 정치분석가들은 이라크의 호람샤르입원에서 최후의항전을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이란군에 대해 대대적인 반격을 가하기는 극히 어려울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이들은 이란군이 이라크수중에 남아있던 유일한 이란도시인 호람샤르를 탈환함으로써 이라크로서는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이란과의 평화협상에서 흥정거리가 거의없어진 셈이라고 말했다.

社會漫評

各國무기 實驗場

地平線

일본 京都박물관에 가보면 法志菩薩像이란 平安時代(8~12세기)彫刻이 있다. 두개로 쪼개져있는데 안에서 또하나의 얼굴이 보이는 묘한 것이다. 善麗의 얼굴이 超現實的으로 보여 慈悲스런 인상을 받지만 야누스처럼 아주 다른 두개의 표정을 느낀다는 사람도많다. ▼지난 5일에 구속되었으니 벌써 20여일이 지났는데도 張女人의 얼굴은 시민들 머리에서 아직 지워지질 않는다. 아니 임시국회까지 뒤늦게나마 내일부터 열리는판이니 그얼굴을 잊을수는 더욱 없겠다. 이미 알려진것처럼 그女人이 저지른 1천8백억원의 어음사기사건으로 피해본 사람 3천4백명, 어음장수로 신고된것만도 4천3백51장이나 된다. 얼핏보기에 부드러우면서 속된말로 부잣집 맏며느리감이 복스럽게 보이는 이女人의 어디에 그런 엄청함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정녕 두개의 얼굴, 속얼굴을 못보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말할수밖에 없다. 동양식으로 운이나쁘고 팔자가 세어서 그랬는지모르나 여하튼 기네스북에오를만큼 손꼽힌女人. ▼인생의 절정기인 30代女人의 長點8가지를 벤저민·프랭클린은 친 일이있다. 첫째, 나이어린여자와 달라 세상을아는일을 알기때문에 서로 얘기하기가 쉽고 결혼해도 배울점이 많다. 둘째, 여자는 얼굴이 빠지면 사내의 마음을 붙잡으려고 희생적인 배려를 하게된다. 남편이병들면 그간호는 기대 이상이다. 세째, 아이시중을 덜하게되고 年上인 경우엔 아이낳을걱정을 안해도된다. 네째, 성생활에도 익숙하다. 다섯째, 나이가 드는것은 먼저 얼굴에 주름이생기고 피부에 윤기가 없어지며 다음에목, 가슴, 팔의 순서로 찢기가 쭐어드는데 30代 여자는 스스로를 꾸며 예쁘게 보이려고 노력할줄을 안다. 여섯째, 20代처녀때와 달리 남에게 관대하다. 일곱째, 상대했을때 죄책감이 덜하다. 여덟째, 사귈때 감사를 많이하고 남들기에 열심이다. ▼中年여성들이들으면 벌컥 화를낼얘기다. 하나 俗世에 살다보면 이런 교훈도 張女人사건과 연관시켜 별의별 생각을 하게된다. 임시국회도 열리는 이마당에 그女人의 얼굴을 잊을수있게 속시원하고 깨끗한 마무리를 하루빨리 지어주기 바랄뿐이다.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35—7200

SunLife
OF CANADA

김 신 명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건물
• R·R·S·P.
922—3111 (B)
793—5531 (R)
791—8196 (R)

YOUNG SOOK '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 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민 영 숙
(B)368-7961 (R)690-5217

주제: "북녘땅에 잃은 형제
복음으로 다시 찾자"

북한 선교를 위한

강 사

북한선교회 이사장
충현교회 당회장 김 창 인 목사

남북미성회

기간 : 1982년6월3일(목)~6일(주) 시간 : 매일저녁8시
장소 : 중앙교회 502 Bathurst St. (Bathurst St.×College St)
주최 : 북한선교회 전화 : 961—8361 • 759—2006

막판勝負걸고 必死의 接戰

숨가쁜 포클랜드…英·아르헨의 布陣

처절한戰線… 한치도 양보못한다

【부에노스아이레스26日=李梓昇특파원】 갈티에리·아르헨티나 대통령은 「5월혁명기념일」인 25일 『우리들은 말비나스도에서 고난의시기를 맞고 있다. 우리국토를 한치도양보하지 않겠다』는 말을 남기고 남대서양작전사령부가 있는 코모도르·리바다비아로떠났다. 육군참모총장 자격으로 일일독전차출진 한것이다. 말비나스(포클랜드)전쟁은 끝이 보이기 시작한것같다. 마지막 한판의 승부가 남아있다. 말비나스의 산·카를로스지역에서 연5일째 대치하고 있는 아르헨군과 영국군은 치열한 근접전까지 벌이고있는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아르헨 신문들은 연일 「치열한 저지전」, 「지상군, 처절한전투」 라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제목을달고 있다.

아르헨군소식통들은 영국군이 현재 장악하고있는 산·카를로스지역은 1백50평방㎞에 불과하나 산·카를로스항에서 남쪽으로 30㎞떨어진 포트다윈에 인접한 지역까지 산·카를로스해협을 끼고 넓게 포진하고 있다고 지적, 영국군이 다윈의 바로 인접지역까지 진출한것을시사했다.

아르헨군은 현재 푸에르토 아르헨티노 (포트 스탠리)에 7천여명, 다윈에 1천5백여명을 배치하고 있는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영국군상륙후 다윈지역에 얼마의 병력이 증강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영국군이 장악하고 있는 산·카를로스항에서 아르헨티나군의 주기지인 말비나스의 수도 포트스탠리까지는 불과 90㎞, 서울과天安정도의 거리이다.

그러나 이지역은 경사가 심하고 암석이 많은 구릉지대로 되어있을뿐만 아니라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는 하나밖에없어 속전속결의 기동전은 어려울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포클랜드전투는 지금까지 지상전보다는 海空戰이 부각되고 있다. 영국군은 야음과 안개를 타서 산·카를로스항에 병력과 장비보급을 계속시도하고있고 아르헨군은 공군기와 해군기를이용해서 이를 저지 하는데 사력을 다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25일 영국군이 지난21일 기습상륙한 이후 영국함정 19척을파괴내지 격침 불능케하고 27척을 파손,모두 46척을 파괴내지 파손했으며 시·해리어機 28대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으며 아르헨 전폭기 60대가 격추됐다고 밝히고 있다.

양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영국기동함대는 사실상 온전한것이 한척도 없는셈이며 아르헨전폭기는 약30%가 손실된 셈이다. 양측 주장에 과장이있다해도 지난5일동안 해공전의 치열상을 말해주는것이다.

아르헨 군사소식통들은 영국함대가 전투력을 대폭상실했으므로 승산이 있으나 미국이 지원하는경우 양상이 달라질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영국군도 산·카를로스지역에 래피어 地對空미사일,구축함정의 시울프및 시·캐트 艦對空미사일로 초현대적인 對空미사일망을 구축하고있어 아르헨의 우세한 공군력도도전을 받고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영국의 해상보급과 아르헨공군기의 활발한출격으로 미뤄보아 아직은 양측이 서로의 상대적우위에대해 치명적타격을 주지는 못하고 있는것 같다.

지상전에서는 아르헨 공군력이 압도적 견제역할을 못하는한 영국군은 숫자적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유리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르헨군 관측자들도 영국과 아르헨지상군의 대결을 「프로와 아마추어」의 대결로 보고있다.

영국군은 노련한 직업군인인 해병대와 공정대로 돼있고 반면에 이에 맞서는 아르헨군은 만19세~21세까지의 전투경험이 없는 신병과 소집예비병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소집예비병들도 군복무경력이 1년밖에 되지않아 사실상 초년병이나 다름없다.

아르헨은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군복무기간은 1년에 불과하고 군복무중에도 하루반을 근무한 뒤 반나절의 자유시간을 갖는 편안한 생활이다. 아르헨의 군사관측자들은 『병사들이 연령에 비해서 노련하게 대처한다』고 말했다.

夜陰틈타 兵力증강 大型航母격침 노려

兩軍피해 막심… 미사일戰 임박

아르헨 英國

이러한 자랑뒤에는 병사들의 무경험에대한 우려가 깔려 있는것이다. 이에 따라 아르헨은 퀸·엘리자베드2號를 타고 포클랜드로 향하고 있는 2천여명의 영국군 증원군이 상륙부대에 가세한다면 전세는 만회할길이 없을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증원군의 일부인 6백50여명의 네팔인 용병 그루카부대는 아르헨티나인에게는공포의대상이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민들은『그루카용병은 키는 작고 까무잡잡 하지만 단도에 피를 묻히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사나운 싸움군』이라 하면서 『큰일이다』고 우려하고 있다.

만화에서도 그루카부대의 이러한 전설적용맹성이 풍자되고 있다.

아르헨군은 항공모함 허미즈號나 인빈시블號와 증원군수송선 퀸·엘리자베드號 격침에 한판 승부를 거는것 같다.

아르헨 현지신문들은 군소식통을 인용 『이들 수퍼·스타級 함정이나 선박의 격침을 위해 셰필드號 격침으로 위용을 보인 엑소세 미사일을 장비한 에탐드전폭기를 산·카를로스작전에 투입하지 않고있다』고 대서특필했다.

아르헨 신문들은 이미 지난21일 상륙작전에서 증원군 1천여명을 상륙시킨 캔버라號 격침을 셰필드號 격침때 처럼 크게 보도했다.

아르헨티나 주장대로 캔버라號가 격침되었다 해도 이것은 빈집을 후려친것이나 다름없는데 이를 대서특필 하는데는 아르헨해군의 거함 벨그라노號 격침에 대한 보복심리와 거함에 대한 一戰의 기대가 밑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인것으로 해석된다.

헤이그 미국무장관은 영국군의 조기승리를 예상했다. 그러나 보도관제속에 아르헨티나군의 일방적 전과만을 대하고있는 대다수 아르헨 국민들만은 불안속에서도 여전히 아르헨의승리를 믿고 있는것같다.

◇경계삼엄… 英特攻隊員 포클랜드에 상륙한 한 영국군특공대원이 상륙정으로부터 중화기를 하역하는동안 경계에 나서고있다. 【AP】

英、駐獨 砲部隊차출

現地서철수 포클랜드로

【런던25日AP=聯】영국정부는 블로 파이프 地對空미사일을 장비하고있는 서독주둔 영국군포부대를 포클랜드에 파견하고 있다고 정부소식통들이 25일 밝혔다.

이 소식통들은 서독의 라인지방에 주둔하고있는 영국군포부대가 포클랜드로 가기위해 현지에서 철수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 포부대의 철수계획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 공식 통보됐다고 덧붙였다.

적군의 저공전투기와 헬리콥터에 의한 공격으로부터 보병부대를 보호하기위해 고안된 블로 파이프 미사일은 무게가 18㎏밖에 안되는 휴대용 소형미사일로 견착식 발사기로부터 발사된다.

블로 파이프 미사일은 초음속으로 무선에의해 광학적으로 유도되어 목표물을 가격하며 엄지손가락으로 작동되는 조종장치에 의해 탄도를 수정할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미사일은 특히 포클랜드 산·카를로스의 영국군교두보를 공습한 아르헨티나제트기와 같이 레이다망을 피해 잠입하는 적의 저공비행기를 공격하는데 효과적이다.

이미사일은 미국의 레드아이미사일과는 달리 아르헨티나의 지상공격용 푸카라 전투기와 같은 프로펠러추진 비행기를 효과적으로 파괴할수 있으며 소형차량에서도 발사할수있는 이점을 가지고있다.

이스라엘·시리아機 空中戰

레바논서 미그機 2臺격추 주장

【텔아비브25日AP=聯】이스라엘제트전투기들은 25일 중부 레바논상공에서 시리아의 미그전투기들과 공중전을 벌여 그중2대를 격추시켰다고 이스라엘군사령부가 발표했다. 이스라엘군사령부는 이스라엘전투기들이 이날상오 일상적인 정찰임무를 수행하던중 베이루트상공에서 시리아전투기들과 조우, 곧 이어 벌어진 공중전에서 미그기 2대를 격추시키고 모두 무사 귀환했다고 말했다.

이란、후세인政府 顚覆촉구

戰爭종식 조건 아랍圈엔 對이라크 支持중단도

【베이루트·테헤란25日UPI·AP=聯】이란영내 이라크군의 최후보루였던 호람샤르를 탈환한 이란은 25일 이란-이라크전종식의 대가로 사담·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정부의 전복을요구하고 아랍은 건국들에대해 이라크를 지지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와동시에 이란군은 퇴각중인 이라크군에 마지막일격을 가하는 한편 분쟁의 원인인 샤트·알·아랍 수로의 이라크측 영토에 포격을 가했으며 이라크군은 호람샤르북쪽에서 새벽공격을 가해온 이란군을 격퇴하고 이란군 2천7백명을 사살했다고 테헤란방송과 이라크통신이 주장했다.

호자톨레슬람·하셰미·라프산자니이란국회의장은 호람샤르 탈환한지 하룻만인 이날 이란은 이라크영토를 침범할 의도가 없다고 강조하고 그러나 이란·이라크전을 끝내고 대신 후세인정부를 전복해야한다고 촉구했다고 테헤란방송이 보도했다.

◇호람샤르로 진격하는 이란軍 장갑차와 탱크에 분승한 이란기갑부대가 호람샤르를향해 진격하고 있다. 이사진은 이란관영 IRNA통신이 제공했다. 【호람샤르24日AP電送=聯】

教皇、28일訪英

포島事態 惡化불구

【바티칸시티25日路=聯】로마교황청은 25일 교황 요한·바오로2세가 오는28일부터 6일간 교황으로서는 사상처음으로 영국을 방문할것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교황청은 요한·바오로2세가 28일 로마를 출발, 6일동안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를 방문할것이라고 밝혔다. 영국과 아르헨티나간의 포클랜드분쟁으로 교황의 영국방문계획은 불확실한상태에있었다.

요한·바오로2세는 영국 방문중 엘리자베드여왕을 예방하고 캔터베리에서 영국聖公會지도자인 로버트·런시대주교와 합동예식을 집전하게된다.

그러나 런던과 로마의 교회지도자들은 北아일랜드사태와 관련해 교황의 방문중 대규모 항의시위가 벌어지지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영국의 과격신교도들은 지난2개월동안 교황의 영국방문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여왔다.

내달초엔 아르헨에

【바티칸시티25日AP=聯】교황 요한·바오로2세는 6월초순에 아르헨티나를 방문할지도 모른다고 바티칸의 아르헨티나 외교소식통이 25일 말했다.

이 소식통은 교황청보담당책임자인 아킬레·실베스트리니 대주교가 교황의 아르헨티나방문계획에 관한 친서를 레오폴도·갈티에리 아르헨티나 대통령에게 전달하기위해 25일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떠날것이라고 말했다.

叛軍소탕大攻勢

蘇·아프간軍 미그機등동원

【이슬라마바드25日UPI·AP=聯】소련군과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은 지난주 회교반군소탕을위한 제6차대공세를 개시, 주요반군거점인 판시르계곡에대해 미그전폭기 중무장 헬리콥터 탱크 장갑차를 동원한 대대적인 공격을 전개했으나 아프가니스탄 반군들의 완강한저항으로 퇴패했으며 아프가니스탄정부군 1개부대가 반군에 투항했다고 이슬라마바드의 외교소식통들이 25일 말했다.

한 소식통은 지난79년12월 소련군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이후 6번째가 되는 이번 대공세가 지난20일 개시되었다고 전하면서 전투상황에 관한 상반된 정보를 종합하면 소련군과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은 카불북쪽 80㎞지점 굴바하르근의 판시르강에 부교를 건설한후 미그기와 헬리콥터의 엄호하에 판시르계곡가운데로 진격했으나 반군의 공격을받고 퇴각한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폭로

작년에 폭파한 이라크原電 原子彈3개 제조중

【예루살렘25日AP=聯】작년 6월7일 이스라엘 제트機들이 폭파한 이라크 원자력 시설에서는 3개의 원자탄을제조하고 있었다고 메나헴·베긴 이스라엘 수상이 25일 폭로했다.

이라크가 바그다드근처의 타무즈에있는 프랑스제 원자로를 이용, 핵무기를 생산하고있었다고 베긴수상이 공개적으로 비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베긴수상은 이날 바르·일란 대학에서의 연설에서 『만일 이원자탄이 이스라엘에투하되었다면 60만명이상의 희생자가 생겼을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때문에 나는 이스라엘군에게 이라크 원자로를 파괴하도록 명령했었다』고 말했다.

外信 알파

◆루마니아 大統領 시리아着=니콜라이·차우세스쿠 루마니아 대통령은 25일 시리아 공식방문을위해 다마스커스에 도착했다고 시리아관리들이 말했다.

차우세스쿠 대통령의 이번 시리아방문은 지난79년8월 아사드 대통령의 루마니아방문에대한 답례형식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한편 스테판·안드레이 루마니아外相도 이날 카말·하산·알리 이집트外相의 초청으로 4일간의 이집트방문을 시작했다. 【다마스커스=AP】

◆와인버거來8월이스라엘訪問=캐스퍼·와인버거 美국방장관은 오는 8월말이나 9월초 이스라엘을 공식방문할 것이라고 국방성의 한 고위관리가 25일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와인버거장관이 訪美중인 아리엘·샤론 이스라엘 국방상과의 회담에서 이같은 결정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워싱턴=AP】

◆波自由勞組, 戒嚴종식 抗議투서攻勢=폴란드自由勞組지하단체들은 25일 폴란드국민들에게 폴란드계엄령이 반년을 맞는 다음달13일을 전후한 1주일동안 당국을 상대로 계엄통치종식을 요구하는 항의투서공세를 벌이라고 촉구했다.

폴란드의 남부지역 두곳에서 이날 유포된 自由勞組지하단체 전단은 폴란드국민들에게 다음달7일부터 1주일동안 정치지도자석방·自由勞組부활·계엄령철폐등을 요구하는 대량의 무기명친필서한을 보내라고 촉구했다. 【바르샤바=UPI】

◆헤이그, 이·요르단高位層접촉=알렉산더·헤이그 美국무장관은 25일 하산 요르단 황태자및 아리엘·샤론 이스라엘국방상과 개별적으로만나 이란이 對이라크戰을 확대하려들 가능성에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워싱턴=UPI】

◆美, 對이無償軍援 1억弗 늘려=美상원외교위원회는 25일 이스라엘에대한 무상군사원조를 1억달러 증액하기로 가결했으며 상원은 요르단이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정을 수락하지않는한 美행정부의 對요르단 첨단무기 판매계획을 취소하도록 권고하는 건의안을채택했다. 【워싱턴=AP】

◆이디오피아 政府軍 만6천여명 全滅=1만6천여명의 이디오피아 정부군이 최근 에리트리아 북부『해방지역』에서 게릴라들의 대규모 공격을 받고 전멸했다고 에리트리아 인민해방전선 (EPLF)이 24일 파리에서발표했다.

이 코뮤니케는 또 지난2월16일 개시된 제6차 대공세에서 이디오피아군 2만2천명이 부상하고 1천3백명은 EPLF에 포로로 잡혔다고 주장했다. 【파리=AP】

◆아르헨, 가미가제式 공격=영국기동함대소속 특공대가 확보한 교두보공격에 나선 아르헨티나 공군조종사들은 2차대전중 일본군조종사들이 즐겨 사용한 가미가제(神風)식 공격으로 나와 영국군을 놀라게 하고있다.

예를 들어 영국기동함대소속 앤틸로프號를 격침시켰던 아르헨티나 공군기는 이 함정에 거의 충돌하기전 그 主마스트를 들이받아 찢어놓기도했다고 영국기동함대에 탑승취재중인 英國BBC방송의 브라이언·핸라헌기자는 전했다. 【런던=AP】

메아리

크렘린 繼走者

1961년 빈에서 美·蘇정상회담이 열리고 있을때 니키타·흐루시초프는 존·F·케네디에게 귓속말을 했다.

『크렘린이 決定票를 던진 덕택으로 당신이 大統領에 당선된줄 아시오』

흐루시초프는 연신 니글 니글한 웃음을 지으면서 U2스파이 정찰기의 조종사 개리·파워즈를 미국대통령선거 종료때까지 석방치않기로 크렘린이 결정했기때문에 케네디경쟁자였던 닉슨이 『적어도 5백만표는 잃었을것』이라고설명했다.

아닌게 아니라 그때 케네디는 근소한 票差로 닉슨에 辛勝할수 있었다. 그래서 크렘린이 케네디當選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흐루시초프는 弄半眞半으로 이런 어이없는 말을 건넨것이다.

요즘 크렘린에서 브레즈네프黨서기장의 후계자를 놓고 여러말들이 전해지고 있다. 그동안 거론된 인물을 보면 (지난2월 수슬로프死亡후 부터) 고르바초프(50), 키릴렌코(75), 체르넨코(70) 黨書記 政治局員등 이었는데 24일 열린 黨中央委員會全體會議가 소련의 비밀경찰인 KGB(국가보안위)의 우두머리 유리·안드로포프 政治局員을 黨書記까지 겸하도록 결정함으로써 이제는 체르넨코를 제쳐놓고 그가 새로운 크렘린후계자로 주목을 끌게되었다.

美國 대통령을 크렘린이 「選出」했다는 흐루시초프의 強辯을 일단 그대로 두고 이번에는 거꾸로 크렘린後繼者지명에 美國이 과연 어떤 「決定的역할」을 할수있을까를 한번 생각해본다.

레이건 大統領은 지난9일 유레카大學演說을 통해 크렘린權力異動이 다가옴으로써 『世界는극히 중대한 고비』에 다다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核減縮 (우선½씩) 案과 美·蘇協商再開를 내놓았다. 이〈제스처〉는 크렘린의 다음 繼承者가 平和指向的이고 軍事膨脹止揚주의 자라야 한다는점을 시사한것으로 풀이할수있다.

그러나 안드로포프가 이런 美國의 示唆에 상응한 인물인가하는데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그는 현역군인으로 소련軍部의 입김을 받는 인물이란 평이 나돌고 있다. 美CIA서 최근 대통령에게 보고한 극비문서에서도 안드로포프를 그런 인물로 꼽았다고 워싱턴·포스트紙는 전하고있다.

美國의 對蘇強硬論者인 리처드·펄국방차관보가 『크렘린에서 누가 후계자가 되든, 캐더린大帝이래의 전통을 그대로 잇는데는 변함이 없을것이다』고 전망한것 처럼 소련의 南下와 팽창의 역사는 중단되리란것이 일반적 관측이다. 안드로포프KGB두목은 더욱더 平和의희망과는 거리가 벌어진 존재로 비쳐왔다. 크렘린에서 비롯될 짓을 기대하는 美國의 「決定票」는 어떻게 될까?

海外토픽

아파트에 벌레득실

★녹스빌博覽會관람객투숙

녹스빌세계박람회의 관람객들을 위한 숙박담당자들은 빈 호텔객실이 남아돌아가는데도 불구, 호텔보다 값도비싼데다 바퀴벌레가들끓는 아파트와 창문도 화장실도 없는 개조된 담배창고의 방에 관람객들을 투숙시켜 말썽.

호텔요금은 1박에 40달러인데 비해 이들 아파트는 최저가 68달러로 88달러를 지불하고 이런데서 하루를 묵은 한 관람객은 호텔방이 다찼다고 해서 이곳에 왔는데 알고보니 빈 호텔투성이더라면서『도둑맞은 기분』이라고 분개.

또 그는 값은 그렇게 비싼데도 옷걸이하나, 수건한장 없을뿐아니라 바퀴벌레 천지였다고 불평을 털어놓았는데 이같은 사정은 담배창고를개조해만든 방들도 마찬가지라는것. 【녹스빌=UPI】

歌手오스먼드 화촉

★신랑은 농구선수靑年

가수겸 배우인 메리·오스먼드양(22)이 오는 6월26일 미국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의 한 모르몬교회에서 브리검·영대학 농구선수출신인 스티브·크레이그군(25)과 결혼식을 올린다고 오스먼드양의 부모가 최근 발표.

오스먼드가의 한 대변인에 따르면 오스먼드양과 크레이그군이 대학선수시절을 보낸 뒤에서 처음만나 지난18개월동안 데이트를 계속해왔는데 크레이그군은 졸업후 프로로 전향, 지난해에는 랭캐스터·라이트닝팀소속으로 콘티넨탈·리그에 출전했다고. 【오렘 (유타주)=UPI】

아테네市 公害심각

★개인차량 運行금지

그리스정부는 24일 날로심각해지고 있는 도시공해에시달린 나머지 수도 아테네 중심가에서의 개인차량운행과 공장의 생산활동을 잠정적으로 전면금지시켰다.

안토니오스·트리트시스환경청장관은 이같은 금지령은 지난 이틀동안 아테네하늘을 덮고있는 스모그현상이 사라질때까지 앞으로 하루 이틀동안 계속될것이라고설명. 【아테네=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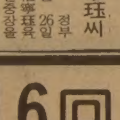
飛行중 安定劑마셔

★精神病걸린 軍人에 補償

지난78년 국내비행도중 옷에스며든 강력한 동물용 신경안정제인 DCP때문에 공연히 폭언을 해대는 일종의 정신병에 걸렸다고 주장, 소송을 제기한 한 해군대위가 이스턴·에얼라인사로부터 3만1천4백달러의 보상금을 받게됐다고.

피터·슈멜러라는 이해군대위는 자신이 샌디에이고에서 플로리다州의 펜사콜라까지 비행한후 옷에 쏟아진 DCP때문에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는 기벽에 걸려 아내를 잃는등 큰피해를 입었다고주장, 20만달러의 보상금지급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펜사콜라 공항에서 그의짐이 손상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3만1천4백달러만 지불하도록 판시. 【샌디에이고 (美캘리포니아州)=路】

國防次官 權寧珏씨



정부는 26일 權寧珏육군중장을 6월2일字로 豫編시켜 국방차관에 임명키로 했다. ★얼굴2면

◇權차관略歷 ▲慶北安東출신·51세 ▲原州大卒 ▲군단포병사령관 ▲국방장관보좌관 ▲師團長 ▲韓美연합사참모부장 ▲合參局長 ▲軍團長

한국일보 533-2361

大韓航空만이 每週 16回 韓國으로 出発합니다.

로스앤젤리스↔서울 NON-STOP 運航

每週 3回(水·金·土) B747SP

정성껏 봉사하는 우리민족의 날개—

KAL 大韓航空

편명	KE011	KE001	KE015	KE050	KE007
출발일	水金土	火木土日	火木日	月金	火木金*日
뉴욕					23:55
로스앤젤리스	14:00	10:00	23:20		
앵커리지			▽		02:15 03:40
호노루루		12:20 13:20		02:20	
동경		16:10 17:20			
서울	19:00	19:30	06:40	06:50	06:30
도착일	木土日	水金日月	木土火	火土	木土日火

편명	KE012	KE002	KE016	KE060	KE008
출발일	水金土	月水金土	火木日	木日	火木金*日
서울	16:00	18:00	21:30	20:30	19:00
동경		20:00 21:30			
호노루루		09:40 12:10		09:50	
앵커리지					08:30 10:10
로스앤젤리스	11:00	20:20	16:30		
뉴욕					21:50
도착일	水金土	月水金土	火木日	木日	火木金日

▽앵커리지 급유 경유 *KE007, 008 금요일 출발편은 6월1일부터 증편운항

대한항공 ☎ (416) 862-8250
390 BAY ST. SUITE 720, TORONTO, M5H2Y2

★ 자세한 것은 대한항공이나 각 여행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여행사 535-6004 ●신세계여행사 536-2155
●제일여행사 535-2377 ●한국여행사 531-4607

한국일보 특집판

포클랜드戰爭 그衝擊과 教訓을 본다

미사일萬能 未來戰축도

驚異의 정확성으로 「攻擊만이 勝利」

포클랜드전쟁은 무엇을 가르쳐 주고있나.

아르헨티나의 데탕다르전투기가 수평선너머에서 발사한 佛製AM39엑소세미사일 한방에 영국최신예구축함 세필드號(4천1백톤)은 남대서양속으로 水葬됐고 아르헨티나의 유일한 순양함 [illegible]너럴·벨그라노號는 컴퓨터조종어뢰2발에 운명을고했다.

미사일한방이면 어떠한 巨艦도 끝장을 내주는 超정밀병기戰爭。비록 제한적이긴하나 오늘날 남대서양 거친파도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포클랜드전쟁은 상상에 그쳤던 미사일의 위력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미사일을 만든 무기생산업자、군사전략가들조차도 미사일위력에 새삼 놀라 입을 벌렸다。스페인내전이 제2차대전의 오픈 게임이었던것과 같이 포클랜드전쟁은 미래의 전쟁이 과연 어떤 식으로 벌어질 것이라는 그단면을 보여줬다。

이는 재래전에 익숙해있는 美·英등 서방강대국의전술·전략개념의 근본을 뒤흔드는 충격을 던졌다。

전략문제전문가들은 세필드호와 벨그라노호가 모두손쓸사이도 없이 격침된것을보고『미사일戰에는 攻·守양면을 적절히 전환해왔던 종래의 전략개념을 버리고 공격우선전략을 수립해야한다』는 교훈을 얻고있다。

영국퇴역해군제독인 힐·노턴경은『적이 어떻게 나올것인가를 기다리던시대는갔다。먼저 쳐야한다』고 주장했다。미사일의 경이로운 정확성과 파괴력은 공격자를 승리자로 만든다는 것。

특히포클랜드분쟁은 美해군전략의 중추적 역할을하고있는 항공모함의 장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졌다。

레이건행정부는 미해군을 최강으로 만들기위해 1천6백80억달러라는 거액을 들여 총15척의 초대형 항공모함을 건조한다는 계획아래 1차로 핵추진항모2척을 건조할예정이다。

마침 이때 20만달러짜리미사일한방에 5천만달러를 들여 건조한 세필드호가 맥없이 거꾸러진것을 목격한 미 전략전문가들은 항공모함도 세필드호신세를 면치 못할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사일맛을 직접본 영국의 군사전문가들은『巨艦작전시대는 갔다』는 성급한 결론마저 내리고 있다。

포클랜드전쟁은 첩보위성의 발달로『大洋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사실을 실감케했다。

사실상 아르헨티나는 세필드호가 영국기동함대를이탈、홀로 항해하던 정확한조치를 포착할만한 정보시스템을 갖고있지 않았다。소련은 이미 포클랜드사태가 발생하기전인 3월31일 코스모스345호 레이다첩보위성을 처음 남대서양지역에 쏘아 올린후 모두6~8개의 고성능첩보위성을 계속적으로 띄워 영국과 아르헨티나군의 동태를 손바닥보듯 내려다보고 있었다。

또 포클랜드사태가 가열되던 지난15일에는 소련은 核동력레이다가 장치된 첩보위성을 쏘아 올렸다。이 위성은 짙은 구름층을 뚫고 정보를 수집할수 있는 것으로 미국이 이지역에 띄운 2개의 위성을 능가하고 있는것으로 전해졌다。미정보소식통들은 아르헨티나가 세필드호를 명중시킬수 있었던것은 위성에 의한 소련의 정보제공덕분으로 믿고있다。

반면 미국도 영국측에 위성을 통해 얻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첩보위성은 지상사진촬영뿐아니라 작전본부와 기지간、함대와 함정간、전투기와 기지간의 교신내용도 낱낱이 탐지한다。따라서 2차 대전당시 적함정의 정확한 위치를 모르고 망망대해에서 위용을 자랑했던 항공모함은 바둑판의 돌같이 상대방에적나라하게 노출되기때문에 적의 주공격대상이 되고 만것이다。

물론 美항공모함은 대공미사일 대규모구축함대 신예전투기등 자체방어체제를 완벽하게 구축하고있을 뿐아니라 적에게 피격당했을때를대비、선체벽을 2중으로하고 2천개의 방수부품을 갖추는등 정교한 피해통제시스팀을 자랑하고있다。

그러나 영국이 세필드호를 예인하던중 폭발위험때문에 스스로 격침시켜버린것은 항공모함도 피격되면「하나의 폭탄」이되고 만다는 사실을 일깨우고있다。특히 항모는 비행기연료 자체연료 다량의무기를 적재하고 있기때문에『떠있는 주유소 내지는 화약고』라고 항모반대론자들은 꼬집고 있다。

한편 포클랜드전쟁은 항공모함을 비롯、모든함정은 잠수함의 밥이될만큼 취약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노출시켰다。

영국기동함대는 고성능전자장치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가 보유하고 있는 3척의 잠수함의 위치를 포착하지 못해 포클랜드해역접근에 어려움을 겪은 반면에 아르헨티나 벨그라노호가 영국핵잠수함콩커러호에 격침됐다。유일한 항모 베인티치코·데·마요號는 영국의 핵잠수함 4척의 공격위협에 떨어 본토연안에 발이 묶여있어야했다。

영국 전략문제 전문가들은 전면공격을 감행할 경우 가장 큰 위험은 아르헨티나가 보유하고 있는 바로 잠수함 3척을 꼽고 있다。그다음이 상대적으로 우세한 공군력과 악천후를 들고있을 정도다。

미국잠수함함장들은 해군훈련작전시 항모에 접근、공격하기란「식은 죽 먹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경험을 털어놓고 있다。

물론 미항모는 오스카와같이 원거리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에 대응하는 체제를 갖추고있으나 潛艦미사일을 완벽하게 요격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따라서 미기동함대는 소련의 잠수함을 먼저 발견하고 공격하는것이 상책이지만 오스카급잠수함은 정보위성을 통해 공격을·즉각 탐지할수 있기때문에 미사일공격을 쉽게 피할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있다。

이같이 포클랜드전쟁을 계기로 美해군의 항모전략에 많은 취약점이 지적되고 있으나 아직은 국무성을 중심으로한 항모지지론이 우세한편이다。

'지난 전세계도처에 1백50개에 달하던 美해군기지가 현재는 30개로줄어든 상황에서 제해권 확보는「움직이는 기지」인 항모에 의존할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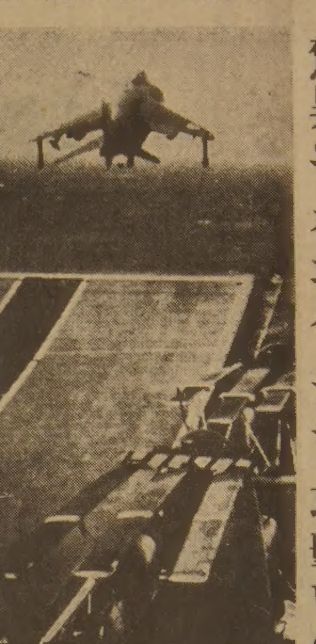
戰爭史는 항상 변화를 겪는다。

1차대전의 총아였던 기관총은 2차대전에서 탱크에 압도됐다。또 오늘날 중무장탱크로부터 신예전투기에 이르는 무기체제는 전자유도미사일에 무용지물이 될 처지에 있다。

강대국들은 끊임없이 현무기체제를 無力化시킬수 있는 또 다른 무기체제를 개발해왔다。포클랜드전쟁을 지켜보고있는 미국과 소련은 전자유도 미사일에 대응하는 전새무기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우주공간에 군사기지를 세우고 레이저광선을 쏘는 시대가 멀지않은 것같다。

【崔海雲기자】



◇포클랜드의 아르헨티나 공군기지에 공습을 감행하기 위해 英항모 허미즈호를 이륙하는 해리어機。

攻·守戰略 흔들리고 航母취약점 드러나

「바보들의 戰爭」

最新武器의 性能경연장

첫선도 相當數…西方武器끼리 치고받고

포클랜드전쟁은 여러가지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요소를 지니고 있다。

그중의 하나는 이번전쟁이 마치 서방각국의 최신무기 견본시장같았다는 점을 들수있을 것이다。

하늘에서는 영국제 수직이착륙기 해리어機와 프랑스제신예기 미라지가 조우하고 바다에서는 영국제어뢰가 미국제순양함을 두동강내고 프랑스제 미사일이 영국 구축함을 격침시키는등 서방각국의 최신무기들이 첫선을 보였다。

서방무기와 東歐무기의 싸움이라는 종래의 일반적인 전쟁과는달리 서방무기끼리의 격돌을빚은 이번전쟁에서 美、英、佛、西獨등 서방각국의 무기로 무장한 아르헨티나는 당초예상과는달리 영국에맞서 당당히 버텨내고있다。

아르헨티나가 사용한 서방각국의 각종 최신무기는 그성능을 유감없이 발휘했고 당초 아르헨티나의 전력을 우습게생각했던 영국은 물론 아르헨티나에 무기를 공급했던 서방각국들마저 아르헨티나의 戰力을 과소평가한것에 스스로 놀라고있다。

이같은 놀라움은 최근 東西 선진국들의 제3세계 및 개발도상국들에대한 경쟁적인 무기판매정책의 당연한 소산이다。서방 선진국들은 60년대이후 경쟁적으로 개발도상국들에 대해 무기판매를 해왔다。

유엔은 70년대를「군축의 10년」으로 설정했었으나 재래식무기의 확산은 60년대에비해 4배로 증가했고 50년대에 비하면 8배로증가했다。

세계에서 거래되는 무기들의 75% 가량이 대부분 선진공업국에서부터 제3세계、개발도상국들로 흘러들어간다。

무기거래는 액수로 보아 세계경제에서 가장 급속한 성장을 이룬 부문이다。

◇영국의 최신예구축함 세필드號를 격침시켜 가공한성능이 입증된 프랑스제에탕다르 폭격기와 탑재폭탄및 미사일。화살표는 엑소세미사일。

生産量 75% 開途國판매

힘키워 「養虎遺患」될수도

핵병기및 재래식병기의 연간 생산고는 1천2백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같이 무기거래액수가 늘고있는 것은 과거 구식병기만을 가졌던 개발도상국들이 점점더 값이비싸고 정밀한 신병기를 원하고있기때문이다。

한편 선진국으로서도 더욱 정밀한 무기를 개발、생산하기 위해서는 기존무기의 처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기판매는 줄어들지않고있다。

선진국의 개발도상국에대한 무기공여는 과거에는「원조」의 성격이 짙었으나 차차「판매」쪽으로 기울어져 가고있다。

즉 과거에는 무기판매대금 상환기간도 길었고 이자율도 낮았으나 이제는그렇지않다。

70년대이후페르시아만산유국들에 대한 무기판매경쟁이 불붙었던것도 中東의 정치적 불안정이 큰이유였지만 저변에는 오일달러의 환수라는것이 서방각국의 당면목표였다。

무기판매경쟁에서 가장 열심히 뛰는것은 프랑스다。

현재 미국、소련에 이어 제3위의 무기판매국인 프랑스는 상대국의 정치적상황에는 관계없이 무기를 원하는 나라에는 어디에나 판매한다는 원칙아래 자국생산무기의 75%가량을 외국군의 무장용으로 판매하고있다。

프랑스의 무기수출산업의 성장률은 프랑스 전체 수출성장의 2배에 달한다。

미국은 한때 세계의 무기판매확대현상을 우려、카터행정부가 무기판매상한선을 설정하고「인권규제」을 강화하는등 여러가지 규제정책을 폈으나 미국의 규제는 별다른 효과를 보지못한채 소련、프랑스등의 무기판매액 성장만을 가져왔다。

레이건등장이후 미국의 對外무기판매정책은 다시 선회、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소련의 경우 중동등에 무기를 판매한돈으로 서방으로부터 기술과 식량을구입한다。

그러나 제3세계에 대한 무기공여가 과거처럼 미래에도 효과를 볼수있을지는 확실치않다。

무기판매가 판매국과 구입국간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유대를 강화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 베트남이나 이란에서 당한 것이나 소련이 이집트에서 당한것은 무기판매를 외교수단과 연결지었다가 실패한 가장큰 예로 들수있을 것이다。

전세계무기거래의 75%를 흡수하는 제3세계의 군비강화는 필연적으로 전세계적으로「힘의 확산현상」을 초래한다。

무기를 판매하는 선진국들은「힘의 확산현상」에도 불구하고 세계정세에는 자신들이 보유하고있는 核戰力으로 유지해나갈수 있다고 믿고있지만 그렇지못하다는 것은 여러차례 실로 드러났다。

포클랜드전쟁에서 영국이 겪고있는 괴로움은 서방선진 무기판매국에게는 무기판매경쟁이 가져온 養虎遺患의 귀결이다。

【朴永鎬기자】

격침된 英세필드號는 싯가 1억8천3백만弗

英 5월중순까지 11億弗

숫자로본 英·아르헨戰費

현대전은역시 값비싼 비지니스이다。

현대무기가 정밀도를 더해가는만큼 치는쪽이나 맞는편이나 전비소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셈이다。특히 81척의 대함대를 8천마일 떨어진 남대서양까지 이동시킨 영국은 훨씬 큰 부담을감수하고있다。

영국이 5월중순까지 사용한전비는 약11억달러로 군사·경제소식통들은 추산하고있다。

영국이 포클랜드에 살고있는1천8백명의 영국계주민들의 주권을 위해 싸운다고 하면 영국은지금까지 주민한사람의 주권보존을 위해 61만달러(4억3천만원)를 퍼부었다는 계산이 나오고 있다。

소식통들은 허미즈호、인빈서블호등을 중심으로한 영국기동함대가 남대서양에 진출하는데 든 경비만도 3억6천5백만달러이며 이 함대의 작전비용은 하루5백40만달러(38억4천만원)에 이른다고 전하고 있다。

여기에 무기、연료외에 군병력의 유지비용과 51척의 민간보조함에 승선한 선원들의 급여등 부대비용도 어마어마할 것이다。

한편 영국이 지금까지 소형선박으로부터 퀸·엘리자베드2호와같은 대형민간함정을 임대하고 개조、운영하는데쓴 비용도 이미 3천6백만달러를 넘어섰다。

영국은 퀸·엘리자베드호에 대해서는 1일사용료로 1백80만달러(12억8천만원)를 지불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영국이 아르헨의 미사일에 잃은 구축함 세필드호(3천5백톤)만 해도 71년 진수당시는 5천만달러에 불과했으나 지금 그와 같은 함정을 건조 대체한다면 1억8천3백만달러가 들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또 작전중 손실한 주력전투기 시·해리어기 3대와 킹·헬리콥터 2대의 대체비용이 3천4백만달러에 달한다。

여기에 벨그라노호를 격침한 어뢰2발 미사일등 공격무기의비용 5백50만달러를 합하면 영국이 지금까지의 전투에서 입은 직접적인 손실만도 6억달러에 육박하게된다。

하지만 이토록 비싼 전비에도 불구、2백43억달러의 年국방예산과 45억달러의 특별준비금을확보하고 있는 영국은 당장 큰 압박은 받지는 않고 있는것같다。

또한 아르헨티나에 4억5천만달러를 합작투자하고 있는 영국기업가들로서는 아르헨시장을 잃는것이 배나 비행기의 손실보다 더욱 가슴아픈 일일 것이다。

한편 아르헨티나는 영국처럼 원거리함대를 유지하고 있지는않으나 실제적인출혈은더욱심각하다。

아르헨은 4월2일의 포클랜드 무력점령이전에 이미 군사시설건설、병력보충등에 영국함대의 파견비를 상회하는 5~6억달러를 지출한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2일 영국의 타이거피시어뢰를 맞은 벨그라노호는 구입당시(51년)의 가격이 7백80만달러로서 지금 이와같은 순양함을 새로이 구입하려면 큰출혈을 감수해야할 형편이다。

아르헨은 포클랜드 침공후에도 5억~8억의 직접적인 군사비를 지출했으며 아르헨티나의 스위스주재 마르티네스대사도『아르헨티나는 EEC의 경제제재조치로 하루 수백만달러의 막대한손해를 보고있다』고 토로한바 있다。

이때문에 아르헨은 수출을 유지하기위한 방편으로 페소貨를 10%평가절하하고 가솔린값을 30%인상했다。

EEC가 만약 1년간 對아르헨 금수조치를 계속한다면 아르헨은 약17억달러의 손해를 보게된다。

따라서 외채상환과 이자로 72억달러를 갚아야 하는 아르헨으로서는 전쟁의 계속은 국가 파탄을 의미하는 것이다。

【徐爽根기자】

아르헨

軍시설·兵力보충에 5~6億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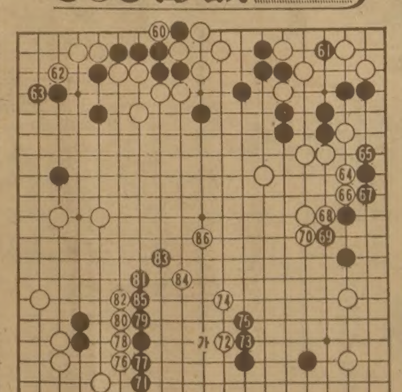
開戰이후만 또다시 5~8億弗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21局 第7譜 60~86 (각5시간、덤5집반)

白(7段)徐奉洙(4勝1敗)

黑(4段)姜勳(4勝1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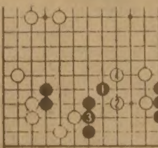
白60으로 패를해소하고 黑61로 우상귀와 교환한 이자체는 이해득실이 비슷하지만 좌상귀에 白62를 선수하여 白은10여집을 벌어들인 결과였다。

그리고白64。우상귀쪽에 黑세가 생긴이상 우변을 보강할시기다。黑65에는 꼬리쪽 1점을 버릴요량으로 白66이하70까지 밀어붙이고 모양을 갖췄다。물론 호조의진군이다。

黑71。이제와서는 최대의곳이다。黑은 하변입대를 확보하고 집으로 대항할밖에 없지만 71은 76자리와 어느쪽이 확실한지 어려운장면이었다。

徐7단은 우세한 판국을무사주의로 마무리지을 생각으로 白72、74로 경쾌한 행마였다。黑은75로「가」에껴붙이면은 저항하지만 승산이없다해서감경책을썼는데 白76에 대한 黑77이 어쩔수가 없었던 모양이다。

白 快調의 進軍



이수로 참고도의 黑1이면 실전보의 白78을 예방하게 되지만 白2、黑3이 불가피할때 白4가 너무도 好形이다。그러나 실전보도 白은76이하82까지 좌측을 확보하고 84、86으로 시원스레 진출하여 계속 패조의 진군이다。

【一凡】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120>

朴婉緖 作 / 金光培 畵

明暗 ㉞

수지가 먼저 서둘러 밖으로 나오자 기욱도 별수없이 따라나왔다。

『용무가 있다는데까지 데려다줄까?』

『혼자 갈게요。오늘은 이만 헤어져요。』

수지는 기욱과 당장 헤어지고싶은 조바심으로 발을 굴렀다。

기욱은 순조롭게 잘 나가다가 왜 이러지?잠깐 미심쩍게 생각했지만 여자의 생리적인 변덕에 대한 그의 속된 지식이 그럴땐 내버려두는게 수라는 판단을 내리고 쉽게 그녀를 놓아주었다。

수지는 혼자가 되자 오목이한테 불같은 질투를 느꼈다。만약 인재의 상대가 오목이 아닌 딴 여자였더라면 나먹자니 싫고、나 주자니 아까운 정도의 가벼운 심술이 고작이었을텐데 오목이가 되고보니 그게 아니었다。똑똑하다고는하나 무일푼의 제대로 된 학벌하나없는 고아주제에 인재를 넘보다니 인재가 너무 아까왔다。구해주고 싶었다。구해주고나서 그다음에 어쩌겠다는 생각같은건 나중이었다。진창에 멋모르고 빠지려는 사람을 우선 구해놓고 볼 일이었다。

수지는 인재가 너무 아까와서 어서어서 구해줘야겠다는 생각에 급급한 나머지 오목이한테 이십년전에 헤어진 동생으로서의 정이나 연민은 느낄겨를도 없었다。

그녀는 곧장 양식집으로 되돌아갔다。크리스를 살리에가 낮게 놓여지고、테이블보는 눈부시게 희고 그 위 유리컵엔 장미꽃이 두어송이 꽂혔고、식사를 끝낸 두사람은 막 차를 마시고 있었다。

수지는 자신도 좀전에 기욱과 같이 식사를 한 낯익은 분위기건만 그 두사람 사이만이 유난히 아늑하고 정겨운 것 같아 그것까지 샘이났다。

인재는 그동안 몰라보게 때를 벗어 매너가 세련되고 오목이를 바라보는 눈은 성실하고 순박해보였다。그녀는 문득 그녀의 저돌질에서 인재의 성실성과 순박함을 달지않고 빼놓은건 커다란 과오처럼 뉘우쳤다。

큰 실수이긴 하지만 결코 돌이킬수 없는 실수는 아니리라。수지는 어깨를 펴고 자신만만하게 곧 그들의 식탁으로 다가갔다。그리고 인재보다는 오목이한테 먼저 아는척을 했다。

『너 목이 아냐?이거 도대체 얼마만이냐?』

『수지언니!』

수지가 호들갑스럽게 반가와하는 것과는 딴판으로 오목이는 얼굴에 핏기가 싹 가시면서 흰 식탁보에 찔금 코피를 엎질렀다。인재도 난처한 기색이었다。그러나 수지는 애써 하나 가득 관대한 미소를 띠고 인재한테도 아는척을했다。

『자기 나 몰라 이런 미인을 감춰놓고 있을 줄은 몰랐어。이따 가만 안놓아둘 거야。』

그건 엄포라기보다는 인재하고 얼마나 친하다는 쉬 과시하기위한거여서 오목이를 더욱 당황하게 했고、인재에게도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었다。

『수지야말로 어떻게 미스최를 알지?미스최 우리 이웃에사는 아가씨야。그뿐이야。오해하지마。』

『미스 최?응 이상하다。미스 온데。목아、너 혹시 그 동안에 어디 입양했니?』

『언니、그 얘긴 제발 나중에』

오목이가 가냘프게 떠는게 보였다。

『입양을 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인재가도리어 즉각적인 호기심을 나타냈다。수지는 재빠르게 두 사람사이를 짐작했다。오목이가 신분을 감추고 인재에게 접근했고、인재의 오목에 대한 감정은 아직은 별로라는 걸 알게되자 그녀는 그 작은 분위기를 마음먹기 따라선 유리그릇처럼 산산히 깨뜨릴수도 있다는 자신을 가졌다。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巨龜莊

북미최대의한국식당

한식, 중화요리, 화식, 케네디안식

거구장

주소 : 5 BETHRIDGE RD.

전화 : 742—1618

○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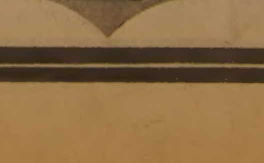
○ 은은하고 감미로운 음악…

○ 흥겨운 댄스를위한 노래가락…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매일공연

〈영업시간〉 월·화·수: 오전11~ 새벽1시
목·금·토: 오전11~ 새벽2시
일요일: 오후2시~ 새벽1시



웨트레스급히 구합니다.
742—1618

한국일보 (특집판)

포클랜드戰爭 그衝擊과 教訓을 본다

現代戰실험장된

볼수는없고 듣기만하는 戰爭

선전으로 이용하는 포클랜드 戰況보도

포클랜드분쟁은 전세계의 보도진들에게 쓰라린 직업적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다. 우선 전장이 망망대해라는 지리적 어려움이 있고 영국과 아르헨티나 양국정부의 보도통제 또한 심각한 문제가 되고있다.

영국기동함대에 동승한 27명의 종군기자를 제외하고는 어느기자도 육지에서 6백㎞나 떨어진 섬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전장에 접근할 수가 없다. 이른바 들을 수는 있어도 볼 수는 없는 전쟁이다.

기자들은 현장접근이 어려운 까닭에 양국정부의 발표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전시에 흔히 그러하듯 양국정부는 언론기관을 선전에 이용하려든다.

한쪽 정부가 자기 편에 유리한 내용의 일방적 코뮈니케를 통해 전황을 발표하면 다른쪽 정부는 상반된 주장을 한다. 이러한 코뮈니케의 장막은 영국정부와 영국 방송공사(BBC)간에 보도자세를 둘러싸고 애국심논쟁을 불러일으키는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있다.

양쪽 정부에서 발표하는 전황이 엇갈리고 정부에서 중요한 일기예보조차 서로 다르기때문에 기자들은 정확한 판단을 내릴수가 없다. 따라서 신문은 양쪽주장을 나란히 싣는 방법밖에 없다.

지구의 어느곳에서 일어난사건도 다보여줄수 있다는것을 자랑삼고 있는 TV도 무력하기는 마찬가지. TV는 영국수상 관저 다우닝가 10번지를 드나드는 대처수상의모습을 되풀이해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미국 CBS의 이브닝뉴스 담당프로듀서인 밴·고든·소터씨는 『시청자들도 이미 이런것에 익숙해졌겠지만 TV뉴스 종사자들이 쓸모없는 필름을 방영하면서 얼마나 깊은 좌절감을 느끼는지 이해할줄로 안다』고 말했다.

영국국방성의 프레스센터에는 1백여명의 기자들이 몰려있는데 이안·맥도널드대변인은 『우리의 보고는 가능한 정직하고완전한것』이라고주장한다. 기자들도 이 말이 대체로 믿을만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기동함대의 종군기자들은 오히려 불편을 겪고있다.

종군기자들은작전세부상황의 보도를 제한받고 있으며 보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전투해역에서는 수㎞씩 벗어나 있다.

현재 포클랜드섬에는 아르헨티나 관영 텔람통신사의 기자들만 유일하게 파견돼있고 외국특파원들은 5월초 전쟁구역에서 물러나라는 명령을 받았다.

아르헨티나 본토에는 각국에서 급파한 특파원이 7백40명에 달하고있으나 이들의 취재범위는 지극히좁다. 27명의 취재단을 이끌고온 미국CBS의 데이비드·밀러기자는『문제는접근이다. 대부분의 나라는 군대가 공보실을 운영하는데 여기는 그것이 없다』고 불평한다.

기자들의 현장접근불능이 가져온 영국BBC의 애국심논쟁은 BBC가『영국정부에 의하면…』하는 식으로 정부의발표를 불신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데서 비롯됐다. 대처수상이 이에 불만을 터뜨렸고 데일리·메일紙등 보수파신문들이 이에 동조, BBC를 공격했다.

그러나 BBC측과 가디언紙등 진보파언론들은『전쟁에서 진실이 첫희생물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반박하며 지금까지의 태도를견지하고 있다.

영국정부의 언론에 대한 비교적 관대한 태도와는대조적으로 아르헨티나정부는 외국기자에 대해서뿐아니라 국내언론에 대해서도 엄격히 보도를 통제하고있다.

통제로 일기예보조차 엇갈려

引用式발표로 愛國心 논쟁도

현대전은 군사력뿐 아니라 국민의 단결된 힘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동원할수 있는가에 승패가달려있다. 이런 의미에서 전쟁이 장기화할수록 권위주의적이며 전체주의적인 아르헨티나정부의 언론에대한 통제는 자국의 손해만 가져올듯하다.

그한 예를들면 영국이 포트스탠리공항활주로를폭격한 후에 아르헨티나정부는 이 공항활주로에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필름을방영하면서 폭격은 목표물을 명중시키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국민들은 이 발표를 믿지 않았다. 폭격하던 날의 포클랜드날씨는 잔뜩 흐렸는데 필름에 나타난 날씨는 햇빛이 비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기자들이 겪는 수난은 많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지난달13일 영국기자 3명을 간첩혐의로 체포한 외에 지난12일 2명의 노르웨이기자와 1명의 스웨덴기자를『국가안보를 위태롭게한』혐의로 추방했다. 【朴來富기자】

◇각국의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코스타·멘데스아르헨티나 외상. 엄격한 보도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까닭에 공식발표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기자들의 무질서한 취재경쟁이 벌어지곤 한다. 【사진 李梓昇특파원】

指導者성격이 和·戰좌우

「고집」이 可恐할결과 초래할수도

포클랜드사태가 협상의 돌파구를 찾지못한채 전쟁의파국으로 치닫고있는 이유중하나로 마거릿·대처 영국수상과 갈티에리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한치 양보없는 완고한 성격을 들수있다.

그중에서도 미국의 버넌·월터즈무임소대사가 지적했듯이 같은 여자인 대처수상이 너무 설쳐대고 있는지도 모른다. 영국과 아르헨사이에 협상가능성이 멀지만은 않다.

다만 협상을 가로막는 장벽은 두사람의 사내다움이다. 그러나 원래 여자의 사내다움은 남자의 사내다움보다 더 진한 면이있다.

물론 무력분쟁이나 전쟁발발의 가장큰 원인은 그당시의 시대상황에서 찾아야한다.

그것이 위기상황일수록 최고정책결정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커지게 마련이고 그의성격이 정책결정에 직접 반영될 길이 넓다.

포클랜드 사태의 가장 큰 이유는 군부통치와 물가고와 높은 실업률에 염증을 느낀 아르헨티나 국민의 관심을 외부로 돌리는 아르헨티나 군지도층의 속셈에서 찾을수있다.

하지만 만약 대처수상과같은 보수강경파가 영국수상이 아니었다면 과연 대규모 기동함대가 포클랜드로 항진했을지는의문이다. 또 갈티에리와 같은 철두철미한직업군인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과연 아르헨티나가 영국의 시위에 맞설수 있었을지도 의문이다.

보잘것없는 영토분쟁이었던 포클랜드 사태는 양국지도자의 실속없는 명분싸움으로 인해 자칫하면「바보들의 전쟁」이 돼버릴 기로에 처해있다.

개전 1년8개월째로 접어든 이란―이라크전쟁도 이와 비슷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이란과 이라크양국은 전쟁을계속할 이유나 목적을 잃어버린지 오래다.

앞으로의 무력분쟁이나 전쟁은 갈수록 빠른 정책결정을 요구하고 그 결정은 정책결정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가공할 결과를 가져오게 할수도 있다. 핵보유국이 확산되어 중소국가도 핵을 보유할경우 한나라의 오판은 세계종말을 의미하게 될것이다.

인류의 장래가 美·蘇강대국 지도자의 核단추에만 달려있지않고 몇십개국 지도자의 개개인의 성격에 좌우될수있다.

세계각국간의 상호의존성이 높아지고 한나라의 도발은 바로 인류의 장래문제와 직결됨에 따라 최고정책결정자의 개성과 판단은 갈수록 비중을 더해 갈것으로 보인다. 【圭】

EEC國도 서로 利害달라

實効없는 對아르헨 경제制裁

79년 미국의 對소련곡물수출금지조치가 아르헨의 비협조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던 前例에서 알수있듯이 많은 경제제재조치는 제재를 가하는 집단의 단합이 성공을 좌우하는 열쇠다.

영국이 지난달17일 對아르헨 경제제재를 선포하면서 유럽공동체(EEC) 국가들과 미국을 끌어들인 것은 제재효과를 극대화하기위한 포석이었으나 국가간의 이해관계로 볼때 애초부터 지속적일수가 없는 협력편이었다.

아르헨의 주요교역상대는 서방국가이기 때문에 경제제재가 오래 끌면 지탱할수없다. 그당연한 결과로 한달시한으로 선포된 이경제제재조치를 한달 더 연장해 달라는 영국측의 요구에 10개 EEC국가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1차시한 만료 3～4시간을앞두고 겨우 1주일을 더 연장키로 합의했으나 이탈리아와 에이레는 연장여부를 결정하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탈리아는 아르헨과의 연간교역량이 17억달러선으로 EEC국가중 가장큰 교역파트너이고 아르헨국민의 40%가 이탈리아系라는 특수사정을 기권이유로 내세웠다. 또 영국에의해격침된 순양함 헤너럴·벨그라노號의 실종승무원의 대부분이 이탈리아系로밝혀져 對아르헨경제제재를 계속할경우 정부가 붕괴위기에 직면할것이라고 엄살을 부리고있다.

에이레는 당초 1차 경제 제재조치에 동조한 까닭이 『무력행사를 용치않는다』는 유엔결의안을 믿었기 때문이었지만 이미 무력행사로 수백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경제제재는 더이상 명분이 없다는 점을 불참이유로 삼고있다.

이같은 에이레의 주장은 EEC국가들사이에 큰 설득력을 갖고있다. 영국이 무력을 사용할경우 이 경제제재는 언제든지 철회될수 있음을 다른국가들도 분명히 하고있는 것이다.

상징적인 의미밖에 없을뿐 아니라 처음부터 발이 안맞게 되어있는 對아르헨경제제재조치가 포클랜드사태에 돌파구를 마련하리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환상일 것이다. 【乾】

九谷瀑布 視野가려

"經費많이든다" 손쉬운 給水시설 工事로

【春川】강원도 春城郡이 京春가도의 장관인 九谷폭포에 관광지조성공사를 하면서 급수시설 여과기를 폭포 바로앞 진입로 오른쪽에 5m높이로 설치, 폭포를 가려놓아 경관을 해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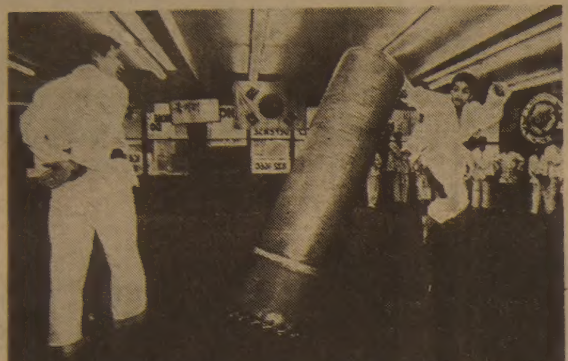
九谷폭포의 관광지조성공사는 春城郡이 지난해 9월토지매입비등 6억9천만원을 들여 한국포장건설(대표 梁鳳雄)에 맡겨 22일현재 96%의 공정을 보이고있는데 春城郡은 九谷폭포 진입로 1.2㎞를 돌아가 장관의 폭포수를 바라볼수있게 九谷폭포광장에 8각정을 세워놓았으나 이 여과기가 바로 폭포앞에 우뚝서 폭포의 시야를 가리고 있는것.

한국포장건설의 具滋雄(42) 현장소장은 문제의 여과기설치에 대해 『당초 郡과 공사계약할때부터 폭포 약1백m 진입로 오른쪽 언덕에 세우기로 설계해 무리가 없을줄 알았다』면서 『폭포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이보다 더 오른쪽산에 설치할수도 있으나 암반이 많아 수원지 조성등 공사비가 더 많이 든다』고 밝혔다. 【聯】

◇장관인 九谷폭포를 가린채 보기흉하게 세워진 여과기。폭포와의 거리가 1백m밖에 안되는데다 길옆에 서있어 경관을 크게 해치고있다. 【聯】

5千여 韓國 동포들 支援성금·入隊自願도

아르헨도 祖國이다



◇아르헨티나 현지 청소년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고있는 교포 趙엔리사범. 태극기와 「국기태권도」라는 액자를 도장중앙에 걸어놓고 태권도구령도 한국어로 외친다. 【사진 李梓昇특파원】

【부에노스아이레스=李梓昇특파원】『아르헨티나의 모든 외국인들은 아르헨티나인과함께 뭉쳐있다』고 국영TV방송 APC는 거의 매시간마다 템포빠른 행진곡을 배경에 깔면서 아르헨티나거주 15개국 외국인들의 아르헨티나 지지 궐기대회장면을 CM처럼 비쳐준다. 한국교포들이 태극기와 아르헨티나기를 함께 흔들면서『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하고 고함치는 모습도 눈에 띈다.

아르헨티나의 한국교포는 5천여명. 주재국의 전쟁상태로 이와중에 말려들게된것은 미국교포를 제외하고는 아르헨티나교포가 처음인 것 같다.

한국교포들이 아르헨티나 지지궐기대회를 가진것은 지난 4월21일. 교포의류상점 50여개가 집중되어 있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번화가인 온세지역에서 아르헨티나인 상인조합이 궐기대회를 개최하자 이들과 나란히 『아르헨티나』를 외쳐댔다.

온세지역은 아르헨티나 전지역에 공급되는 봉제품의80%를 조달하는의류도매시장. 아르헨티나의 「평화시장」이다. 이 시장에 한국교포들이 본격 진출한것은 불과3년, 아직 뿌리가 얇다.

한국교포들은 이날의 궐기대회에 대비해서 1주일전부터 궐기대회 준비위원회를조직, 汎교포적으로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했다.

이보다앞서 일본정부가 영국지지선언을 하자 일본인경영세탁소가 투석세례를 받는등 불상사가 있었다.

일본인들은 이사건이 있은 후 아르헨티나의 노동총연맹이 주최한 궐기대회에 참석했었다.

한국교포들은 이 대회에는 참석치 못했었다.

外國人중 첫「救國」궐기대회

困辱치른 日人들과 대조적

따라서 교포들은 모두가 이심전심으로 궐기대회를 한번 가져야겠다고 생각하고있던 참이었다.

이날하오5시 온세상가 거리에서 궐기대회가 열렸을때에는 한국교포 1천여명 이상이 모였다.

최근 몇년동안 보지못했던 대집회였다. 아르헨티나인군중 5백여명의 거의 배나 되는 숫자였다.

교포들은 아르헨티나인 상인들과는 별도로 대회를갖고 갈티에리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낭독한뒤『한국교민들은 아르헨티나를 지지한다』는등의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2㎞떨어진 푸라사·데·마조(대통령관저)까지행진, 메시지를 대통령비서실에 전달했다.

이날 대회에는 아르헨티나 관계당국 차가 호송을맡아주었다.

때마침 러시아워 시간이라 연도를 메운행인들이 박수를 보냈고 일부는 교포들의 행렬에 합세하기까지 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애국성금 5억페소를 모아 전달했다.

외국인들이 독자적으로 궐기대회를 가진것은 한국교포들이 처음이었다.

이날 이후부터 브라질, 페루, 파라과이, 일본, 이탈리아등 15개국주민들이 줄이어 궐기대회를 가졌다.

교포가운데는 아르헨티나 정부가 애국성금 모금운동을 공식적으로 펴기이전에 1억페소(7천달러)를 헌금한 사람도있다.

교포들은 또한 5월8일에는 시내중심부에있는 벨라사레 중학교를 빌려 사오세의 교포어린이로 구성된 은하무용단의 애국성금 모금공연을 갖기도했다. 교포 8백여명, 아르헨티나인 3백여명등 1천1백여명이 참관했다.

관람료 수입 2천만페소는 애국성금으로 헌납했다.

남의 땅에 살려면 주변상황에 민첩하게 적응해야 한다.

이민역사 17년인 아르헨티나 교포들은 한때 내분과 어려운 생활등으로 이미지가 좋지않기도 했으나 이제는 교민회가 없어져 내분의 불씨가 사라졌고 경제적여건도 개선되어 어제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민초기부터 봉제업과 관련을 가져 현재 교포의 70%가 봉제업에종사하고있고 20%가식료품, 나머지 10%가 세탁업, 구두수선업등에 종사하고있다.

교포들은 거의 1백%가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살고있어 이번 포클랜드전쟁에는 직접 영향은 받지않고있다.

또한 지구의 제일 밑바닥도시인 우수아이아에서 공장을 경영하는 文明根씨등 6가구의 한국교포들도 아무런 지장없이 생업에 종사하고있다.

또 해군기지가 있는 바이아블랑카를 모항으로 하여 원양어로에 나서고있는 계약선원 1백10명 (한국의 한성기업주식회사와 아르헨티나의 푸로메·델·말사와의 합작회사소속)도 안전조업을 하고있다고 한성기업 기지장 丁五鉉씨는 전했다.

아르헨티나 교포들은 경제적인 이유에서라도 아르헨티나인이나 마찬가지로 말비나스사태가 평화적으로 타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것같다.

특히 징병적령기의 자녀가 있는 교포들은 더욱 그러하다. 아르헨티나정부는 현재 62, 63년생의 젊은이들에게징병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교포젊은이들 가운데 대상자는 10여명 내외인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아직까지는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외국인이라서 소집영장이 통보되지는 않고있다.

그러나 이들에게 끝까지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런가하면 영주권이 없는 어느 교포청년은 징집연령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에노스아이레스 병무청에출두, 입대를자청하여 즉석에서 시민권을 받은뒤 집에서 대기하라는 통고를 받았다.

아르헨티나이민사회는주재국의 국난을통해 다져지고있는 것같다.

「代母」 노동부 婦女지도관 金熙瑛씨

땀 젖은 勤勞者 월급봉투 생각하면…

첫인상이 누님같다. 노동부 부녀지도관 金熙瑛씨 (45·사진)。

金씨는 최근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크게 늘었다고 하지만 여성공무원 중에서는 가장 직급이 높은 중앙부서의 국장급(부이사관)이다.

그러나 높은 직급만큼 책임도 크다. 전국에 3백만명을 헤아리는 부녀자및 청소년근로자들의 권익을 옹호해주고 후생복지를 보살펴야 하는것이 그녀의 책임이다.

어쩌면 기숙사 사감같기도한 표정으로 전국의 여성근로자들을 보호하고 따뜻하게 감싸주는것은 그녀가 꼭 여성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별로 나아지지 않은 노동환경, 저임금, 차별대우에 맞서 동생같은 전국의 여성근로자를 보살펴온 경력이 1남1녀를 둔 모성으로 승화된 때문이라면 지나친 찬사일까.

그래서 관료 냄새가 물씬풍겨야할 「金국장님」을 잘아는 사람은 그녀를 모두 대모 (代母)라 부른다. 자신도 그 호칭을 더 좋아한다.

편지로, 전화로 혹은 직접 찾아와 걱정을 털어놓는 근로자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항상 이들에게 정성어린 상담을 해주고 보살펴 주는데 젊음을 바친 그녀에게 代母란 별명은 차라리 훈장일수도 있다.

60년 대학을 졸업, 61년 국무총리실 의전비서로 공직 생활을 시작한 그녀는 74년 당시 노동청 부녀소년 담당관으로 여성 근로자와 인연을 맺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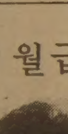
『백지처럼 순박한 근로청소년에게 어떤 색깔을 물들여 주느냐하는 것이 기성세대의 책임입니다』

그녀는 아직은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고 외곬로 치닫기쉬운 청소년근로자가 이질적인 한가지 색깔에 물들어 다른 색깔을 보지못할때가 가장 가슴아프다고 말한다.

따뜻한 말한마디가 외로운 근로자에게는 좋은 보수보다 더 절실하다는것을 하루에도 몇번씩 느껴 만나면 기업주를 만나 이를 깨우쳐 주고 하소연하는게 큰일과다.

입에발린 구호나 겉치레대우가 아니라 가족처럼 따뜻한 애정을 나누어줄때 그들은 회사를 가정처럼 의지하고 따른다는것을 알면서도 실천하지못하는 많은 고용주들이 안타깝기만하다고 말한다.

대모 金국장에게는 요즘 걱정이 하나 늘었다. 땀에젖은 월급봉투가 대견스럽기만한 근로자를 보고있노라면 「張여인」이 얼마나 미운지모른단다. 근면과 성실, 절약이 전부인줄알고 살아가는 근로자들에게 「張여인」은 너무나 큰 「아픔」을 주었다는것이다. 【盧基昌기자】



女子의 마음

잃어버린 자전거

친정 어머님 생신을맞아 오랜만에 나들이를 하고 돌아와 보니, 중학교 2학년짜리 아들 녀석은 얼굴이 볕에 그을린채 곤히 잠들어있었다.

왜 이렇게 일찍 자느냐고 물어봤더니, 딸 아이가 하는 말이『준이는 오늘친구 자전거를 빌어타고 하루종일 시내를돌아 다니다가 들어왔다』는 어처구니 없는 대답이었다.

준이는 자전거를산지 일주일이되던날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었다. 준이는 그후 행여 어느길목에서라도 찾아낼수가 있을까하는 일말의기대를 버리지 못했으며 오늘도 자전거를 찾아 보려고 일요일 하루를 그냥 쏘다녔던 모양이다.

어중간하게 먼 거리에있는 학교를 자전거로 통학하고 싶어하던 준이는 작년여름 방학이 끝날무렵부터 신문 배달까지하였고몇달일한돈을 저축하여 자전거를샀었다.

그런데 월말고사 준비때문에 학생회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나와보니자전거가 없어졌더라면서 기운없이 돌아오던 날은 저녁도 굶은채 그대로 잠들어버리고 말았었다.

손때도 묻기전에 잃어버린 은빛 찬란한 자전거가 오죽 찾고싶었으면 유난히도 무더운4월의 뙤약볕을 아랑곳않고 쏘다녔을까? 지쳐서 잠들어있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자전거를 훔쳐간「검은마음」을 향해서 참으로 오랜만에 분개해 보았다.

【최인문·광주시동구산수1동436의4 10통1반】

MARVIN STARR

〈취급종류〉

소형차 :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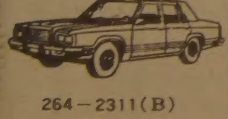
중형차 :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 스테이션웨곤, PARISIENNE, LESABRE, ELESTRA, PARK-AVENUE, 밴트럭, USED-CAR

◎차종류에 따라 Cash Rebate(Bonus)있음

◎카나다에서 Buick Line 으로는 Top Sale dealer임

*Best After Service *Best Price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 × Eglinton

조 의 문

大中華藥材行

GREAT CHINA HERBS CENTRE

녹용과 인삼을 건강관리에

좋은 보약으로 당신의 건강을 유지해 드립니다.

동양인에게는 역시 인삼, 녹용처럼 좋은 약은 없읍니다.

● 우황청심환, 우황, 녹용, 웅담, 사향, 해구편, 정주사

中國良藥 大量供應

건강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한의사 DR오와 예약해 주십시오. 지금이 바로 보약을 잡수실 시기입니다.

※수요일은 문을 닫습니다.

482 DUNDAS ST. W. TOR. ONT.

MAILING : BOX 5181

STN. A TOR. M5W 1A0

☎ : (416) 977－8858-9

10AM → 8 : 30PM

특별 성회

강 사 : 나 운 몽 목사 (한국오순절성결회 감독 복음신보사 사장)

일 시 : 1982년 6월 4일(금)부터 3일간, 매일저녁 7시30분

장 소 : 오순절장로교회 (754 Indian Rd. Tor.)

연락처 : ☎ 762－1495 ☎ 630－0735 ☎ 536－9545

오순절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세택

일반 開業醫「重稅」반발

國稅廳、올所得稅부과…論難

"昨年比24배도… 상상課稅다" 개업醫

"所得비해 稅金 너무적었다" 國稅廳

대한醫協 조세對策委 만들어 對應

국세청이 올해부터 일반「개업의」에대한 세무사찰을 강화, 소득세를 지난해에 비해 2~10배에서 최고 24배까지 올려부과하자 개업의들의 반발이 거세다. 일부 영세「개업의」들은 이「엄청난 증세」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계를내거나 이전계획을 세우고있는곳이 속출하고있고 대한의협에는「조세대책위원회」까지생겼다.

그러나 세무당국은『개업의의 유명도, 주변동네의 생활수준등을 종합평가한 근거로 세금을 증수케될것이다』고 주장하고『이번 부과조치로 그동안 개업의사들이 소득에비해 세금을너무적게낸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하고있다. 개업의의 세계에 별안간 이같은「증세파동」이 몰친 사실은 세무당국이「의보환자」수를 근거로 일반환자수를 계산해 낼수있게 된에따라 생긴것으로 알려져「파동」의결과가흥미롭다.

26일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오는31일이 납기만료인 금년도 소득세가 작년에비해 2~10배에서 최고 24배까지 오른경우도있다.

이에대해 세무당국은 개업의들의 소득과 납세액을 추적조사한결과 이들이 그동안 소득에비해 엄청나게 적은세금을 내어왔다는사실이 밝혀졌고, 이에따라 금년들어 과표를 현실화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울 중구 을지로4街의P산부인과의 경우는 80년도총외형이 3천만원으로 잡혔으나 81년도에는 5천3백여만원으로 인정되어 지난해보다 2배에 가까운 세금이 나왔고 J산부인과는 작년에 70만원의 소득세를 냈으나 금년에는 10배가넘는 7백만원이 나왔다.

또 S피부비뇨기과의 경우도 지난해보다 10배에가까운 소득세고지서가 나왔으며 서울新村의 C외원은 80년도외형이 1천6백만원이었으나 81에는 5천4만원을 올린것으로 세무당국이「인정」, 금년에는 5배에가까운 세금을 내야할 관이다.

의사회측에따르면 이같은세금통보로 일부영세의원들은 고지서를 받고난후 폐업계를 제출했거나 폐업 또는 이전을 준비하는 곳도많다는 것이다. 의사회측은 세무당국이 장부를 기재안한 병·의원에대해서는 무조건인정과세를하고 장부를 기재한 병·의원에 대해서도 장부대로 소득을 인정하지않고 별도의기준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기때문에 소득세가 10배이상폭등하고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대한의협안에「조세대책위원회」를 구성, 회원의사들의소득, 고용인수, 재산, 부양가족실태를 조사, 세무당국에 반박자료를 제출키로했다.

또 세무당국이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회부되는 의보환자진료숫자를 근거로 의보환자와 일반환자의수를 6대4나 7대3의 비율로잡아 과세했다고 주장, 이는 터무니없는것이며 인정과세를 넘어「상상과세」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세무당국은 의사들이 장부를 소득보다 훨씬 적게 기재하고있는 많은 사례가 적발되었기 때문에 장부를 인정할수 없는 경우에는 병원장의 네임밸류, 병·의원의 주변동네의 생활수준, 건물의 평수, 인근 동업자들의 소득수준등을 종합판단, 소득세액을 추계해서 결정하는수밖에 없다고밝혔다.

한편 상당수의 의사들은 자신의 소득세가 10배이상을랐는데도 시인하면서도 작년도에낸 세금액수를 밝히기를 거부했다.

한편 대한의협의 한관계자는『세금을 올려도 연차적으로 올리지않고 일시에 대폭올려 병원경영에 충격을주고있다』고 주장했다.【金薰기자】

◇놀라버린 醫師 요즈음 개업의들은 엄청나게 오른 소득세고지서를 받아들고 어리둥절하다.【서울S의원에서】

「張여인國會」앞두고 檢察 또한차례 진땀

李씨소환등 陣痛…수사秘話

張여인사건 수사로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난 검찰은 지난 20일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한후에도 쉴틈도없이 28일있을 국회답변자료를 마련하느라 또한차례 진땀을 빼고있다. 검찰은 임시국회가 열리면 그동안 시중에 나돌던 온갖 의혹들이 한곳에 모아져 집중적으로 쏟아질것에 대비, 완벽한 자료준비에 부심하는한편 공소유지를위한 광범위한 방증수사도 계속하고있다.

검찰 한 고위간부는『수사에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한다』면서『의원들이 법무장관의 답변을 들을게 아니라 수사기록전체를 가져다 샅샅이 보았으면 좋겠다』고말했다. 특히검찰은李圭光씨의알선·수재죄와 은행지점장들의 업무상 배임죄적용에 무리가 많다는 재야법조계의 의견에 따라 이부분에대한 보완에 힘쓰고있다.

이때문에 수사에 동원됐던 29명의 검사가운데 절반이상이 아직뒤처리에매달려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통해 이미 張여인이 관련기업체등에 5백76억원을 빌려주고 84억원의 이자소득을 올리고도이에대한 종합소득세 20억원을 사실상 포탈한것으로보고 탈세액을 추징토록 국세청에통보했다.

한편「張여인사건」수사의 분수령이었던「李圭光씨소환」에서 검찰수뇌진과 법무장관사이에 서로 밀치고 당기는 숨막히는 진통의순간들이 3일간이나 계속됐었다는 수사비화가 개각뒤인 25일 드러났다.

李圭光씨의 구속에 이르기까지에는 李씨를 구속수사하자는 검찰과 계속『신중히하자』는 李鍾元법무장관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불꽃을 튀겼고 끝내는「고위층」이 법도의 판단으로 직접판가름을 내는 과정을 밟았다는것.

검찰과 장관의 대립은 검찰이 李씨에대한 범죄사실을 잡은 15일새벽5시부터 李씨에게 구속지시가 내려진17일 하오7시까지 정확히 62시간동안 계속됐는데 이시간은張여인의 배후에관한여론이 비등하기 시작한시기여서 적정한수사의 타이밍과 리듬이갈망되던 순간이기도 했다.

특히李씨의 연행여부를 결정하기위해 장관실에모였던 15일 저녁에는 李鍾元장관과 鄭致根검찰총장、徐東權대검차장、李鍾南중앙수사부장 사이에는이를두고 서로 고함이 오가고 낯을붉히는 격론까지 벌였던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이자리에서 검찰팀은 李씨의 소환을 전의했고, 李장관은「신중한 결정」을 주장한것으로 전해졌는데 14일 하오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위층이『불미스런 사건에 저촉되는사람은 나를 포함,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하라』는 지시에 대한「해석」이 달랐기때문에 나온 이견이었던것같다.

援護자금 횡령…會社설립

大田원호支廳 前 과장 令狀

聯立주택지어 3억詐取

【大田】大田西部경찰서는26일 원호대상자에게 지급해야할 각종 대부금 7천8백여만원을 가로챈뒤 연립주택을 지어 또다시 3억여원을 편취하고 달아났던 전大田지방원호지청 운영과장 최병일씨(45·大田市龍雲洞247)를 부정수표단속법, 업무상횡령, 사기배임등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大田지방원호지청운영과장으로 재직당시인 지난 80년6월24일 원호대상자 백종분씨(여·大田市仁洞24)가 자활기금으로 신청한 2백50만원중 1백40만원만 지급하고 1백10만원을 착복하는등 지난79년부터 80년12월까지 같은수법으로 15회에걸쳐 7천8백여만원을 착복했다는 것이다.

최씨는 이자금으로 지난79년 삼천기업을 설립, 大田市玉溪洞에 옥계연립주택 23가구를 건립, 23명에게 가구당 6백80만원에서 1천2백만원까지받고 분양한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않고 다른사람에게 근저당, 3억여원을 사취한혐의도 받고있다.【聯】

크레디트카드 詐欺

거래停止후 假名으로 高價品구입

30代 1명구속

서울南大門경찰서는 26일 延在雄씨(35·사기등 전과12범·서울道峰區上溪洞136의8)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의하면 延씨는 지난80년 서울中區巡和洞 방원빌딩 201호실에「롯데상사」라는 회사를 차린 뒤 같은해 11월3일 롯데쇼핑센터 크레디트·카드 회원으로 가입, 카메라 7대, 라이터 17개등 모두 5백13만원어치의 고가품을 과다구입해 거래정지가 되자 지난해 7월 연규일이란 가공인 명의로 다시 카드를 발급받아 카메라 10대, 시계 7개, 컬러TV 2대등 4백93만원어치의금품을 빼내 시중에 팔아 현금을 가로챘다는것.

延씨는 크레디트 발급회사들이 신청회원이 몰리자 신청인과 보증인의 주소를 확인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 사기를해왔는데 발급회사에서 확인전화가 오면 직원들을시켜 실제인물인것처럼 대답하도록 시켜왔다.

趙治勳本因坊 첫방어전열려

고바야시 9단과

【東京26日=宋孝彬특파원】趙治勳本因坊(25)의 첫 방어전이 26일 日本神奈川縣하꼬네(箱根)強羅온천에서 시작됐다. 도전자는 每日新聞주최의 제37기 本因坊戰본선에서 7연승으로 도전권을 쟁취한 고바야시·고이찌(小林光一·29) 9단.

고바야시는 趙名人·本因坊·十段·鶴聖의 가장큰 숙적으로 68년이래 공식전적에서 5승6패로 앞서있다.

제1국의 승부는 27일늦게 가려지며 제2국은 6월3、4일 열린다.

突風·벼락… 소나기

西海중부海上엔 暴風주의보

25일에 이어 26일 상오에도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과 嶺南일부지방에 돌풍과벼락을동반한소나기가내렸다.

이날 새벽부터 내리기시작한 비는 하오2시 현재 서울5·9㎜、仁川13·1㎜、水原15·5㎜、春川23·1㎜、東草5·9㎜、江陵5·8㎜、蔚珍3·0㎜의 강우량을 보였는데 하오부터는 지역에따라 간간이 갰다.

중앙기상대는 일본 동쪽해상에 북태평양고기압이 폭넓게 자리잡고 있고 우리나라 서북쪽에는 기압골이 위치하고있어 기층이 불안정한데다 서해중부 해상에 폭풍주의보까지 발효중이어서 중부지방에 돌풍을 동반한 소나기가 내렸다고 밝혔다.

못자리등에 浸水

新安 智島邑

【木浦】25일하오4시30분께 전남新安郡智島邑鄕島里염동마을앞 북촌방조제 일부가 붕괴돼 못자리등 1천8백여평의농토가 바닷물에침수됐다.

新安군청에 따르면 이날사고는 만조때 2백여m의 방조제중 갑자기 2개소가 2m가량씩 붕괴됐다는것.

이사고로 이마을 申一燮씨(43)의 못자리 1백20평과 모내기를 한논 1천6백평이 침수됐다.【聯】

修學여행버스、트럭받아

高校生 25명다쳐

【金泉】26일하오1시께 경북金陵郡大德面花田1里金泉~巨昌국도상에서 경남 南海수산고교 2학년 학생54명을 태운 부산제일관광소속 부산5바1382호 관광버스(운전사이실근·43)가 길에서있던 트럭을 피하려다맞은편에 멈춰있던 서울7가8678호8톤트럭(운전사 박노희·42)을 들이받아 관광버스에 타고있던 南海수산고2년전성수군(18)등25명이 중경상을입고 김천남산병원에 입원가료중이다.

이날 사고는 앞서가던 트럭이 40도가량 커브길에서 정차, 맞은편에서 오던 트럭과 만나 운전사끼리 이야기를하던중 버스가 이를 추월하려는 순간 맞은편 트럭을 들이받아 일어났다.

이사고로 관광버스는 차체가 찌그러지고 유리창이 모두 깨졌는데 학생들은 대부분 충돌시 발생한 충격으로 부상을 입었다.【聯】

학생·勤勞청소년 시내버스 回數券

내달부터 全國확대

학생과 19세이하 근로청소년들에 대한 회수권판매제도가 6월1일부터 전국지역으로 확대된다.

교통부는 26일 학생및 근로청소년 할인회수권 사용지역을 현행 서울 釜山 大邱 仁川 光州 大田 馬山등 7개도시외에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하라고 전국시도에 지시했다.

교통부는 이날 시내버스할인제도를 근로청소년에 대해 확대 실시함에 따라 회수권 구입에 불편이 없도록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판매소도 늘릴것도 지시했다.

비타민·한약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W B536-1692 H245-3539

전국의 警察컴퓨터 活用

家族찾아주기 적극 벌여

치안본부는 26일 경찰컴퓨터를 이용하여 헤어진가족찾아주기 사업을 적극추진키로 했다.

치안본부는 각시도경찰서에 전담요원을 배치, 치안본부컴퓨터에 수록된 2천5백만명의 신상기록을 토대로▲소재불명가족▲친지찾기를 원하는 해외교포▲가출인 가족등을 대상으로 찾고자하는 가족의 생사와 소재등을 파악해 알려주기로했다.

헤어진 가족찾기를 원하는 사람은 서울 釜山 大邱의 경우 거주지 경찰서에 직접 조회, 확인토록했으며 기타지방은 각 도경이나 컴퓨터가 설치된 경찰서에 의뢰, 처리토록했다.

특히 고국의 가족친지를 찾기원하는 해외교포에 대해서는 치안본부가 직접 접수처리키로했다.

가스爆發 사건被告

징역 1년~罰金刑

서울형사지법 魯元旭판사는 26일 대한화재보험빌딩지하상가 가스폭발사건과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및 고압가스안전 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가스안전공사 대표 朴益緖씨(45)등 7명의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朴피고인에게 벌금 3백만원을, 대양설비기계부장 鄭仁基(34)가스안전공사관리원 尹大烈(25) 관리보조원 金演奎(19) 피고인등 3명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가스안전공사 점검관 權寧福(35)金弘式(26)宋泰昊(28)피고인등 3명에 대해서는『준공검사를 함에있어 가스사업법시행규칙이 정한기술을 어겼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霧中신호않고過速

船長2명拘束키로

여객선衝突사고

【釜山】부산 多大浦앞 해속 여객선 충돌사고 원인을 수사중인 釜山지구 해양경찰대는 26일 두 여객선이 모두 안개속에 운항하면서도 무중신호를 하지않고 과속운항했으며 레이다도 사용하지않았음을 밝혀내고 피닉스호 선장 김정태씨(34·釜山市中區瀛州1洞8)에 에메리호선장 고춘남씨(38·釜山市影島區瀛仙洞4街285)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및 업무상과실선박파괴 혐의로 구속키로했다.

해경은 또 피닉스호 1항사 이양주씨(34·釜山市西區완월동1街38)와, 에메리호 1항사 김상호씨(31·부산影島區瀛仙洞4街10)등2명도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뽀빠이 李相瀧군

宜寧어린이 위문

【馬山】뽀빠이 李相瀧이 경남 宜寧郡宮柳面 어린이들을 위한 오락회를 열어 즐거운 한나절을 함께 보냈다.

한국어린이 보호회가 후원한 이오락회는 26일 하오 2시 宮柳국민학교 교정에서 6백여 어린이들과 주민등 1천여명이 참석, 뽀빠이의 익살과 어린이보호회 특별회원 6명의 무용, 어린이노래자랑, 장기자랑등으로 한때 잃었던 궁유어린이들의 해맑은 웃음을 되찾아주었다.

이날 李씨는 오락회가 끝난후 뽀빠이 그림이 새겨진 티셔츠 6백50장과 배구공30개 학용품등 푸짐한 선물도 전달했다.【聯】

소설가 柳周鉉씨

柳周鉉씨

소설가 柳周鉉씨가 26일 하오 4시40분 서울 西大門區 弘濟洞 21의14 자택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61세.

柳씨는 경기 驪州태생으로 43년 일본 와세다大 문과를 수료한뒤 48년 월간 白民에 단편「煩擾의 거리」로 당선돼 문단에 데뷔, 30여년동안「朝鮮總督府」「大院君」「자매계보」「태양의 유산」「강건너 연인들」등 수많은 작품을 남겼다.

「鐵壁」들국화

핸드볼 守門將 丁順福양

才質·맹훈련등이 빚은 "스포츠 傑作品"

그것은 차라리 스포츠예술이었다. 아니「神技」라 해도 좋았다.

25일하오 東京에서 열린 제8회 세계여자 핸드볼선수권대회 아시아예선1차리그 대中共戰에서 한국팀의GK 丁順福양(22·사진·光州시청소속)이 연출한「妙技」를 두고 하는말. 그녀는 이날 어느각도에서 볼이 날라와도 볼찬제비처럼 가볍게 뛰어올라 자로잰듯이 정확하게 쳐내고있었다. 볼센스와 유연한 몸동작이 조화를 이루며 만들어낸 인간요격미사일. 그녀가 막아낸 대포알같은 강슛은 모두25개. 그중 반이 골인 됐더라면 승부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어서 그녀의「활약」은 그만큼 돋보일수밖에 없었다.

어느 구기에서나 마찬가지지만「수문장」은 득점으로 연결되는 공격수의 화려한 플레이에 가려 빛을 잃게 마련이다. 그래서 장미꽃으로 비유되는 공격수와에 수문장은 외로운 들국화로 불린다.

그러나 이날은 달랐다. 들국화의 강렬한 향기에 가려 장미꽃들이 보이질 않았던 것.

실업5년생인 丁양이 국가대표팀에 발탁된것은 지난 78년, 光州松源여고입학후 시작, 졸업반때 이미 대표팀 GK로 뛰어올랐으니 그녀는 타고난「수문장」이었다.

그뒤 각종 국제게임에 출전한 丁양은 세계선수권 아시아예선, 모스크바올림픽아시아예선, 3대륙최종예선등에서 한국여자핸드볼팀이 우승을 차지하게한 견인차였다.

『지금도 모스크바올림픽에 참가하지못한게 제일 아쉽다』는 丁양에게 8년의 구력중 가장 인상에남는것은 콩고에서 열린 모스크바올림픽 3대륙최종예선전. 당시 콩고는 경기장에 무장군인을 배치시켜 살벌한 축구장에서 경기를진행했다.

공포감이 컸지만 승리에대한 집념을 정비례로 불태워 선수들은 사력을다해 싸웠고 우승을 따낼수 있었다. 그러나 모스크바행 티킷이 휴지가됐을때는 그렇게 허전할수가 없었다고.

丁양은『손발이 저절로 나갔을뿐』이라고 수줍은듯 말한다.

말은 쉽다. 그러나 재질, 감투정신, 맹훈의 3박자가 맞아 떨어져야『손발이 저절로 나가는법』이다.

丁洪彩씨(54·전남방직 富平노조지부장)의 3남2녀중 차녀인 丁양은 朝鮮大경영학과3학년.『LA올림픽에 나가고싶다』는 그녀의 꿈은 실현반보직전이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그녀는 핸드볼이 인기종목이 되게하는 이나라의 슈퍼스타가 돼있을 것이다.

【東京=鄭東吉특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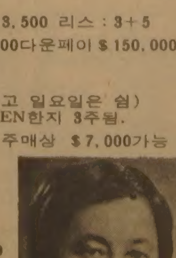
이대환부동산

주택, 건물, 프라자, 아파트등이나 사업체를 사시거나 파실때는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신용과 친절로 봉사하는 이대환부동산 회사에 맡겨주십시오.

* 버라이어티 스토어
①주매상 $8,000이상 건물(1베드룸)포함 D.P. $120,000 아스킹 $210,000
②주매상 $10,000이상 아스킹 $130,000 리스 : 4+5 옵숀 10년

* 도나스·샵
주매상 $9,500 렌트 $3,500 리스 : 3+5+5+5 아스킹 $310,000다운페이 $150,000

* 햄버거·샵
(새로지은 MALL안에 있고 일요일은 쉼) 현재 주매상 $2,000 OPEN한지 3주됨.
좋은 리스에 몇개월내로 주매상 $7,000가능
다운페이 $65,000
아스킹 $169,000



D LEE REAL ESTATE LTD
609 BLOOR ST. W.
B)535-1251
R)536-4250

MID WEST
Auto Body Shop

⊙완전바디 Work.
⊙신용본위
⊙철저한 봉사

260 Mid West Rd. Unit 8
(미들랜드×로렌스) 751-9280

MLS
HWANG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금주의 세리스팅

1. (버라이어티 스토아)
주매상 13,500
8,000
6,500
6,000
4,000(일요일 닫음)

2. (버라이어티 스토아와 건물)
다운타운 바쁜 네거리 위치
코너 스토아
주매상 7,000~8,000(2,3층에 아파트 4개 달린 건물)
가격 43만불

3. 도낫츠·숍
• 일요일 닫고 하루 12시간만 영업
넌 순수익 52,000불
가격 13,5000불
• 주매상 8,500, 7,500불 이외에 쇼핑센타내에 있는 몇몇 Gift 및 Smoke Shop도 있음.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
TEL. (416) 449-8644~5 B), 286-1548(R) M3B 1Z3

"4개의 銅鏡 출토가 日고분 編年뒤엎어"

忠南大 21·22일 百濟연구 국제대회

백제연구 국제학술대회가 21·22양일간 충남대학생회관에서 忠南大 백제연구소주최로열렸다。동교개교30주년기념행사의하나로 열린 이번학술대회에는 한국·일본·중국·서독에서온 학자1백여명이참석,백제의 역사·사상·어문학·고고및 미술에관한 주제발표를 하고 토론을 했다。李進熙씨(在日학자)는「古代 韓日관계사와 武寧王陵」이란발표를 통해 무령왕릉의 발굴은 일본학자가 주장한任那日本府의 주장을 뒤엎었다고 말했고 金哲埈교수(서울大)는「百濟建國考」란 발표에서 고고학의발전에따른 백제건국에 관한 학설을 재음미했다。<日>

古代韓日史와 武寧王陵

仁德천황陵·任那日本府등 「5세기築造·設置」근거잃어

百濟渡來집단이 古代국가形成 뒷받침

◇李進熙씨

63년 여름 日本 奈良縣의 조그마한 고분(新澤126호墳)에서 金製耳飾 瓔珞이 붙은 金製透刻板등 제1급의 유물이 발견됐다。大和政權의 제1급 인물의 대고분에서 출토될만한 유물이었다. 그러나 이 유물이 출토된 고분은 봉토직경이 20m정도의 작은 고분으로 약6백기의 群集墳속의 하나인데다 木棺直葬이었기 때문에 일본 고고학의 상식으로는 해석하기 어려웠다.

8년후 발굴된 公州武寧王陵의 유물이 이수수께끼를 풀어주었다. 한예로 武寧왕비의 頭枕부근에서 瓔珞이 붙은 金製四角形裝飾이 출토됐는데 新澤126호 고분에서도 그와같은성격의 裝飾板이 나왔던것.

또 木棺直葬이라는 묘제는 백제에 허다한것이며 이고분이 자리잡고있는 越智岡구릉일대는 백제도래인 東漢씨의 영역인것이다.

무령왕릉의 墓誌는 신라와 일본의 고분 출토유물의 연구에 큰공헌을했다. 무령왕의 머리부근에서 발굴된 唐草文七獸帶鏡과 같은 형의 熊本 江田船山고분등에서도 나왔다. 따라서 熊本 江田船山고분의 축조연대를 5세기말에서 6세기전반기로 잡을수 있게됐다.

일본학자들은 지난날 船山고분에서 나온 太刀銘文의 마지막 부분의「書者張安也」라는것을 들어 張安은 任那日本府에서 남치한 기술자이며 太刀의 제작자는 反正天皇이있는 大和지방이라 해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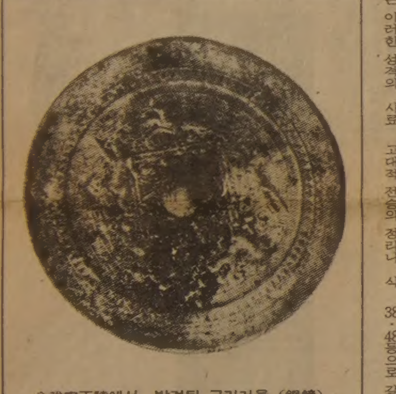
이 銘文을 백제 蓋鹵王으로 해석하고 주인공 백제도래인또는 백제와 관계가있던 인물로 본는 견해도 있었으나 일본학계는이를 묵살했다. 그러나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心葉形垂飾을 더 간략하게 변형시킨 耳飾이 船山고분에서나왔고 다른유물도 백제적성격을 농후하게 지니고있음으로써 大和정권이 5세기전반 熊本지방을 지배한定說은 무너지게 됐다.

무령왕릉에서 나온 4개의 銅鏡은 일본 고분編年의 근거를 뒤엎었다. 일본은 應神천황과 仁德천황을 실제인물로 믿고 그들의陵을 5세기 전반기에 축조된 것으로 보였다. 5세기 전반에 이같은 거대한 무덤이 나타날수 있었던것은 任那日本府에서 획득한 철기와 납치한 기술노예를 이용、河內지방을 개척했기때문에 가능했다는것.

즉 仁德陵과 應神陵은任那日本府가 역사적 사실임을 상징하는 유적이라고 본것이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중국에서 주조된 銅鏡이 仁德陵과 6세기 전반의 무령왕릉에서 출토됨으로써 고분편년과 任那日本府說이 근거를 잃게되었다.

이처럼 무령왕릉의 발굴은 고분과 한일관계사연구에 큰 영향을 미쳤다。지난10년간 백제도래인이 한 역할에 대해서도 많은문제가 해명됐다. 일본의 국가형성의 계기를 백제渡來의 정치집단으로 보는 山尾幸久교수(立命館大)의 연구가있고 6~7세기 중엽의 일본사회를 좌우한 蘇我씨의 시조인 滿智가 백제의 木滿致와 동일인물이라고 한 門脇禎二교수(京都府立大)의 연구를 들수있다.



◇武寧王陵에서 발견된 구리거울(銅鏡)。일본고분과 출토된 유물의 연대를 추정하는데 결정적자료가 되고있다。

百濟建國考

說話式건국論 正史유지방편

河北慰禮、洗劍亭說은 잘못

◇金哲埈교수

삼국의 건국설화간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고구려 신라의 경우 국내외자료가 있는편이지만 백제는 삼국史記밖에 없기때문에 백제는 史記자료만을 분석할수밖에 없으나 지금에와서는 이러한 성격의 사료분석에서 얻을수있는 이해의 한계성에 대해 반성할 필요가 있다.

李丙燾박사는『백제의 시조 온조설과시조 沸流說이 우리나라의 오랜전설로서 그중에는 후세史家의 손에 다소 潤色된 점도 있지만 대개는 백제인의 전설을토대로 구성한것 같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삼국사기나 유교史觀에입각한 史書는 대개 고대적 전승의 정리나 사제를 일삼아왔으니 지금남아있는 삼국사기의 백제시조설화는 李박사의 발표처럼 윤색된것이 아니라 正史體的문제를 유지하기 위한 고대설화적 요소를 탈락시켜 버린것으로 보는게 타당하다.

물론 온조왕의 즉위년을 고구려제2대왕 유리왕의 다음해로 하고 온조에서 肖古王까지의 각왕의 재위연수를 모두 45·49·51·38·48등으로 길게 잡은것을 조작으로 생각되지만 그부정확한 기간에 나타나는 史料들 중에는 백제의 정치적 성장이나 사회진전의 추이를 짐작케 하는사료도 있기때문이다.

李박사는 또 최근에 河北慰禮를 서울洗劍洞일대로보나 산곡간에 끼어있는 곳에 도읍지를 두었을지 의문이다. 만일그곳이 河北慰禮라면 바로 한강하나건너곳에있는 河南慰禮로구태여 遷都할 필요가 있었을것같지 않다.

이같은 점에서 李박사의 해석은 재고할 여지가있으나백제의국가발전을古爾왕대로본는說은그대로따르고싶다.

내슈빌歌謠祭 入賞

大田출신 李亭明씨

한 무명음악인이 미국 컨트리뮤직 페스티벌인 내슈빌가요제에서 입상한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가요계에서 조그마한 화제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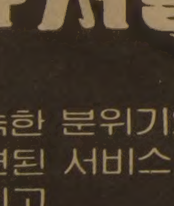
화제의 주인공은「인생이란 정말 혼자라네」라는 신곡을 펴낸 李亭明씨(31·大田).

그는 지난해 5월 미국테네시州 내슈빌에서 열린 제30회 컨트리뮤직 페스티벌에 자작곡을 자신이 노래한「심프슨부인의 늦바람」을 보냈었는데 이작품이 다른 20개작품과 함께 입상했던것.

세계 뮤직아티스트들의 경쟁인 내슈빌페스티벌에서 입상함으로써 팝·뮤지시언으로서의 세계적인정을 받게된 그는 이 노래를 다시 우리말로 번안、「인생이란…」 제목으로 지난주 디스크를 출반한것。남에게 별로 얼굴을 내밀지 않은채 많은 작사·작곡을 가수에게 주고있는 그는 中大연극영화과 출신으로 고등학교때부터 작곡생활을 했었다.

한국일보

광고문의



533·2361

全대통령「太平洋정상회담」제의 意義

「太平洋시대開幕」의 信號

沿岸國들 협력필요성 共同인식
訪美·아세안巡訪때 구체적 構想
經濟的성격展望…美·濠도 적극성

해설

全斗煥 대통령의 太平洋 연례頂上 회담제안은 全대통령이 지난해 6월 아세안 5개국 巡訪때 밝힌「太平洋時代의開幕」을 전개하기 위한 구체적인외교조치로 평가된다.

全대통령의 이번제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담고 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있으나 太平洋연안국가들의 頂上회담이 실현될 경우 지역共同體기구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전망된다.

全대통령이 당초「太平洋시대의 개막」을 제창한 것은 아세안 巡訪첫 기착지인 자카르타에서였다.

지난해 6월25일 수하르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주최한 만찬에서 全대통령은答辭를 통해「아세안、나아가서는 태평양沿岸국가들이 정치·경제·문화등 각방면에 걸쳐 협력관계를더욱 더 발전시킴으로써 위대한 태평양시대가 도래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 했었다.

全대통령이 태평양시대 개막을 제창한 것은 세계의 중심이 유럽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점차 옮겨지고 있으며、이러한 추세에 따라 太平洋연안국가들이 참여하는 태평양시대는 반드시 이뤄질것이라는 역사인식에서 비롯됐었다.

사실 泰國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등 세계의 穀倉지역 뿐만아니라 美日등 선진공업국가、한국과 싱가포르등 新生공업국가들이 모두 태평양지역에속하고있어 이지역에대한 관심은 점차 높아지고있다.

이같은 인식에서 全대통령은 아세안5개국을 巡訪하면서 순방국지도자들과 만나 세계에서 차지하는 태평양沿岸국가들의 중요성과 역할등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고、그결과 태평양沿岸국가들과 아세안과의 협력관계가 성숙하면·태평양지역의 모든 국가들이 함께 발전하고 共榮할 수 있다는 확신에 의견을 같이했다.

따라서 이번 頂上회담제안은 아세안 5개국을巡訪하면서 얻은 태평양지역의 중요성에관한 공통인식을 바탕으로 이를 한단계 더 구체화한 後續조치라고도 봄수있다.

全대통령은 지난해 미국을방문한데 이어 뉴질랜드수상、캐나다수상등 太平洋지역의 域內 국가지도자들과도 만나 太平洋지역 국가들간의 협력증진 문제를 협의하는등「太平洋시대」에대한구체적인구상을 해온것으로 알려지고있다.

태평양沿岸국가들의 협력체제필요성에 관해서는 일본과 오스트레일리아가 적극성을 보여왔다.

일본의 경우는 지난78년 11월 당시 自民黨총재후보였던 오히라(大平正芳) 前수상이 오스트레일리아를 방문했을때「環太平洋공동체案」을 제창하는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왔다。그러나 일본측의 구상은 과거 일본식민지경험을 안고있는아세안국가들로부터 부정적인반응을 얻고있다。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도 민간인들이 중심이돼지난 80년 캔버라 국립대학교에서 太平洋공동체에 관한 세미나를 갖고 常任위원회설치를 결정한데 이어 오는 6월에는 방콕에서 제2차회의를 갖는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같은 域內국가인 미국의 경우 美의회는 수차례에걸쳐 청문회를 갖고 太平洋포럼등 구체적인 기구창설을 제의해왔다.

全대통령이 특히 太平洋지역협력에 적극성을 보이고있는 오스트레일리아의 프레이저수상을 맞아 頂上회담을 제시한것은 큰 의미를 갖고있다.

太平洋지역 頂上회담은 현재 각지역마다 北大西洋조약기구(NATO)、바르샤바조약기구、아프리카단결기구(OAU)、美洲기구(OAS) 등의 頂上회담이 있으나 아시아·太平洋지역만 이같은 頂上회담이 없다는점에서도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사실 2차대전이래 지금까지 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들사이에는 貧富의 격차와 어두운 역사적사건、그리고 서로 다른文化的배경등으로西歐와같은공통적인 협력기구를갖지못해왔다。

지난날 頂上級이 참여하는것으로는 東南亞條約기구와 越南參戰國정상회담이 있었으나 이는 당시 국제정세의 産物로서 消滅된지 오래다. 또 閣僚級모임으로는 越南參戰國외상회의와 우리나라가 제창했던 아스파(아시아·태평양閣僚理事會)등이 있었으나 이것역시 정세변화와 各國의 利害관계로해체되었다.

때문에 현재는 東南亞지역국가들만의 아세안(東南亞국가연합) 頂上會談、그리고 국가간의 交流만이 있을뿐이다. 따라서 이번 全대통령의 태평양頂上會談은 80年代한국외교의 도약을 알리는 중요한 외교적 이니셔티브로 평가될 것같다.

全大統領이 제안한 연례 頂上회담이 어떤성격을 띨 것인가는 아직 정확히 알 수없다. 그러나 域內국가들의 특수성으로 보아 경제협력기구의 성격을 띨것으로 전망된다. 이 頂上회담이경제적차원에서의협력기구로 발전될 경우 中共등의 참여도 전혀 배제할 수없다는게외교전문가들의 관측이다.【尹國炳기자】

새 주택 구입자들

당신이 구입하기전에…

1 온타리오에서 새 주택을 팔려는 모든 건축자, 주택판매자들은 온타리오주택 보증프로그램에 등기되어야만 합니다 건축자, 판매자가 등기되어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등기번호를 요청하면됩니다.

2 오파장을 내기전에 반드시 변호사와상의하십시오.

3 당신이 소유하기전, 당신 주택이 완전한지를 확실히 하십시오. 프로그램은 주택을 완전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만약 어떤 작업을 완전히끝내지 못했을 경우, 예를들어 — 외부페인팅등 — 모든일들이끝날때까지 구매가격의 일부를 붙잡아두는것을 생각하십시오.

4 새 주택보증 프로그램부에서 발행된 "모든 새 주택구입자들이 알아야하는 것" 이라는 책자를 읽는것을 확실히 하십시오.

새 주택 보증 프로그램은 등기되어있는 건축주에게 지불된 예치금을 최고$20,000까지 방어해준다. 건축주가 타이틀을 갖지 못했을때 이것은 역시 당신의 새 주택을 소유한후 1년동안재료나 기술상의 결점에 대해서 최고$20,000까지 방어해준다.
그리고 5년간 최고$20,000까지 주요 구조상의 결점으로 손실에 대해 방어해준다.

그 이상의 질문이 있으시면 전화하십시오.

NEW HOME WARRANTY PROGRAM

NEW HOME WARRANTY PROGRAM
600 Eglinton Avenue East, Toronto, Ontario M4P 1P3
(416) 488-6000

Ottawa (serving Eastern Ontario)
969 Bronson Avenue, Suite 203
Ottawa, Ontario
K1S 4G8
(613)235-7288

Kitchener (serving South-Western Ontario)
385 Frederick Street Mall, Main Floor
Kitchener, Ontario
N2H 2P2
(519)744-08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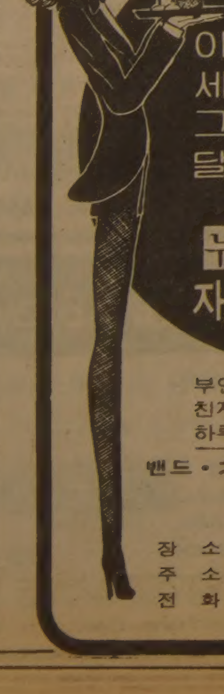
Hamilton (serving Hamilton & Niagara)
499 King Street East, Suite 202
St. John Place
Hamilton, Ontario
L8N 1E1
(416)522-3744

Sudbury (serving Northern Ontario)
1984 Regent Street South
Cedar Pointe Plaza, Unit 3
Sudbury, Ontario
P3E 5S1
(705)522-2522

Thunder Bay (serving North-Western Ontario)
West Arthur Place
1265 Arthur Street West, Suite 704
Thunder Bay, Ontario
P7E 6E7
(807)623-4791

프로축구 불리쟈드를 즐기자

입장권 한국일보사 533~2361
예매처 브랜돈스포츠 598~3732



뉴서울

아늑한 분위기와
세련된 서비스
그리고
달콤한 음악은

뉴서울 만의
자랑입니다.

부인 모시고
친지들과 어울려
하루의 피로를 날려 버리세요.

밴드·가수·무용단 매일공연함.

●연중무휴●

장 소 : 오리엔탈 팔레스2층
주 소 : 529 BLOOR ST. W.
전 화 : 533—3545～6, 533—1500

OB、優勝街道 독주

10회말 楊世鍾 끝내기安打

三美따돌려

三星、롯데 制壓… 大邱 홈팬 즐겁게

프로야구

앞으로 12승, 10패를 배수의 진으로 프로야구 첫우승을 노리는 OB베어스의 독주가 계속되고 있다. OB는 26일 大田홈구장에서 벌어진 三美슈퍼스타즈와의 경기서 연장 10회말 1死후 1번 楊世鍾의 중전굿바이안타로 결승점을 얻어 4—3으로 승리, 18승7패의 확고한 선두를 다져놓았다.

그러나 꼴찌팀 三美슈퍼스타즈의 투지도 만만치 않아 3—0의 리드를안고 가벼운 마음으로 계투에나섰던 OB의 에이스 朴哲淳을 난타, 식은땀을 흘리게 했다.

OB는 2회말 2死후 6번 金裕東의 선제 중월 솔로호머, 3회말 1번 楊世鍾의 좌월2루타, 4회말 5번 申慶植의 중전안타와 도루를 발판으로 1점씩을 모아 3—0의 리드를 잡았으나 5회초 2死후 연속 2안타와 투수 보크로 1점, 8회초 구원투수 朴哲淳의 난조로 집중3안타 1포볼로 2점을 잃어 3—3의 동점을 허락했다.

三星라이언즈는 행운의 7회말 선두타자로 나온 4번 핀치히터 孫祥得이 좌중월 2루타로 물꼬를 열고 3루스틸에 성공, 5번 李萬洙의 좌전적시타로 결승점을 올려 롯데자이언츠를 1—0으로 제압, OB에당한 연패로 분노했던 大邱홈팬들을 즐겁게 했다.

의외의 부진에 고심하던 三星은 좌완 權永浩를 롯데는 언더드로의 에이스 盧相守를 선발로 기용, 6회까지 팽팽한 투수전을 펼쳤다. 7회말 三星의 徐永武감독은 연타석 홈런타자인 4번 朴貞煥대신 孫祥得을 대타로 기용, 멋진 성공을 거두었다. 롯데의 朴永吉감독도 9회말 마지막 공격에서 선두 9번 車東烈대신 崔淳河를 대타로 기용했으나 내야 플라이로잡혔다.

三星의 權永浩는 9회동안 2안타 6삼진으로 완봉승을 기록했다.

◇26일전적

◆대전

삼미 000 100 200—3
OB 011 100 001—4

◇10회연장◇ ▲홈런=金裕東(2회·OB)

◆대구

롯데 000 000 000—0
삼성 000 000 10×—1

◇전기중간순위 (28일현재)

팀	승	패	승률
①OB	18	7	.720
②삼성	16	11	.593
③MBC	14	10	.583
④롯데	10	14	.417
⑤해태	9	14	.391
⑥삼미	7	18	.280

男배구、또 日다스려

韓·日定期戰 張允昌 스카이서브 威力

여자팀은 力不足으로 完敗

日本남자팀은 한국의 적수가 되지못했다. 25일 장충체육관서 벌어진 韓日남녀배구정기전 1차전에서 한국남자팀은 日本대표를 1시간25분만에 3—1로 여유있게 물리쳐 양국정기전서 2승3패를, 58년 아시안게임이후 통산전적서는 9승14패를 기록했다.

한국은 이날 주전세터 李範柱가 지난 NHK대회 日本주니어와의 최종전서 발목부상을당해 벤치에서쉬고 金仁玉을 대신 기용, 넘치는과이팀과 타이밍 좋은 블로킹, 다양한 공격으로 日本을 또다시 울렸다.

姜斗泰는 이날 공격서는다소 부진했지만 위력적 블로킹으로 日本의 공격을 캐트려 게임리더로서 톡톡히 이끌었다. 왼손잡이 거포 張允昌은 좌우공격, 백어택크로상대코트를 유린했으며 마지막 4세트서는 6천여 관중들의 환호를받으며 스카이서브를 시도, 2개의 서브·포인트를 기록했다.

한편 韓·日 여자 대표팀간의 1차전서는 日本이 3—0으로 이겼다.

◇첫날전적

▲남자부

한국 3 (15—7, 6—15, 15—8, 16—14) 1 일본

▲여자부

일본 3 (15—6, 15—10, 15—8) 0 한국

한국、B組에 파리女子농구

제1회 파리 국제여자농구대회(6월2일~5일)에출전하는 한국 여자대표팀은불가리아 이탈리아와 함께 B조에 편성됐다고 대회조직위원회가 대한농구협회에 알려왔다.

이번 대회에는 A조의 쿠바·스웨덴·프랑스를 포함 모두6개팀이 출전, 각조1위팀이 결승전을 벌이게된다.

이번 대회우승은 한국과쿠바가 다툴것으로 예상되고있다. 양국의 대표팀 대결에서 한국은 지난71년 브라질 세계선수권대회에서 72—65, 75년 캐나다 프레올림픽에서 77—70으로 모두 패했었다.

◇코너즈熱戰 세계테니스의정상 지미·코너즈(미국)가 25일 열린 프랑스오픈테니스선수권대회에서 브루스·맨슨(미국)을 공격하고 있다. 코너즈는 이 경기에서 3—1로 완승했다. 【파리25日UPI=聯合】

나의 이력서

金蘇東 ⑤1

(題字 金蘇東)

從軍과 避難생활

元山·陽德등서 政訓활동 「進擊」紙 발간… 포로救命

1950년 10월1일 春川에서 6사단 정훈부장 金商用씨가 지프를 타고 찾아왔다. 北으로 진격을 계속중이라며 정훈공작을 도와달라는 것이다.

10월2일 소설가 鄭飛石과 내아우 金漢日, 그리고 카메라맨 韓昌燮을 대동하고 춘천으로 떠났다. 元山·陽德·成川·順川·球場·熙川지역을 이동하며 종군했다. 생사의 고비를 수없이 겪었다. 불과 50m 전방에서 인민군이 묻고간 지뢰에 UN군트럭이 폭파되어 수십명이 몰살하는 참경도 목격했고, 희천전방에서는 내가탄 차량의 타이어가 펑크나서 후퇴인민군과중에서 몇시간동안 공포에 떨기도 했다.

매일같이 「進擊」이라는 정훈신문을 발행했고 경비석과 나는 후퇴하는 인민군은 절대로 사살해서는 안된다는것을 정훈목표로삼고 그요지를 사단장과 참모장에게 건의했다. 그래서 인민군포로는 날로늘어갔고 이들을 각지의 형무소와 학교등에 수용했다. 전단을만들어 살포했고 주민들에게는 자유의 참뜻을 계몽했다.

7연대병사들은 제일착으로 압록강에 도착해서 큰 전과를 올렸다. 트루먼 대통령이 팔도까지 와서 맥아더원수의 만주폭격을 저지시킨것이 지금생각하면 원통스럽다. 밤10시 평북熙川에서 아군은 후퇴를 해야만 했다. 수십만명의 중공군이 압록강을 넘어왔다는 것이다. 전략적후퇴라고는 하나 당시의우울했던 기분은 다 표현할수가없다. 정훈신문 「진격」을 발행하던 손을멈추고 서둘러 후퇴했다. 군우리에서 15연대가 중공군의 포위를 뚫지못하고 전멸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들은 땅을쳤다. 촬영기사 한창섭도 군우리에서 영영 돌아오지않았다.

평양북방 北倉에서 얼마동안 머물다가 12월초 서울에 돌아왔다. 기다리던 가족들과 만났다. 다음해 1월4일 트럭을 타고 내가족과 정비석은 눈내리는 밤에 大邱를 향해 피난길을 떠났다. 트럭위에서 임신 9개월의 처와 어린아이들이 로프를 잡고 덜덜 떨었다. 차량에 밀려서 거북이 행진으로 밤중에 오산까지와서 밤을 새웠다. 아홉식구가 대구에 도착하니 갈곳이 없다. 대구는 이미 피난민으로 포화상태다. 며칠동안 친지 李甲得씨집에서 콩나물시루생활을 하고 장녀와 장남을 고향 咸昌으로, 나머지 식구들을 義城처가로 분산시켰다.

나는 신문인 白台福과같이 일고동창 李康日군의 집에서 당분간 머물기로했다.

그후 대구역전에서 경북치과를경영하는 친구 崔翔華의 2층에 숙소를 정하고 지내다 몇달만에 가족들을 대구로 데려왔다. 그동안 공비지구 義城에서 3남을 잃고 4남明植이 출생했다. 누구나가 다 경험했던 피난생활의 참상이다. 그동안 헌병사령부의 司政사업일환으로 삼엄한 진공지대 서울에 올라가서 우리수도의 파괴상을 담은 기록영화를 만들었다. 충무로일대는 폭격으로 허허벌판이 됐고 인적이없는서울거리는 무서운 적막만이 흘렀다. 어느집이나 약탈당한 흔적이 완연했고 안국동로터리에는 괴뢰들이피아노와 값비싼 가구들을 넘겨놓은채 달아난 모습도 볼수있었다. 그러한 만행을 겪은 서울의 모습을 필름에 기록하는 동안 전쟁의 참상에 다시한번 가슴이 떨려옴을 느꼈다.

그후 육군, 공군의 정훈영화에도 종사했고, 공비토벌을 위한 경찰영화도 만들었다. 영화각본과 희곡, 영화평론도 썼다. 「新羅城」, 「제2의 生命」등을 문화극장무대에서 연극으로 공연했다. 6·25직전에 영화제작을 기획했던 「제2의生命」은 7개단체연극경연에서 정부가주는 작품상도 받았다. 시나리오 「太陽의거리」(自由극장), 「1백80의 太陽」(병무청), 「女性戰線」(영남일보·鄭飛石작)등의 극본을 집필했고 부산, 대구에 산재한 영화인들을 규합해서 한국영화평론가협회를 결성했다. 吳宗植(故), 全昌根(故), 吳泳鎭(故), 劉斗演(故), 朴寅煥(故), 李淸基, 朴泰鎭, 許伯年, 李眞燮및 필자등이 그때 멤버들이다.

◇피난지 大邱에서 연극「新羅城」을 무대에 올렸을때의 필자(右). (左)로부터 李象哲·金成春.

中共軍에 밀려 서울經由 大邱로

서울慘相 기록영화 찍고 演劇도

"西獨서 한국여자排球선수 2명招請"

일시歸國한 前西獨대표팀감독 朴大熙씨

5分間 인터뷰

◇朴大熙씨가 최근 유럽배구계소식을 전하고있다.

西獨등 유럽지역에 한국배구를심은 朴大熙씨(46)가 18일 일시 귀국했다.

71년3월부터 西獨 여자배구대표팀을 맡아오다 지난 1월 대표팀감독에서 물러나 코치위원회 위원장으로 활약하고 있는 朴씨는『한국을 너무오래 떠나있어서 휴가차왔다』고말했다. 또 한가지 목적이 있다.

西獨1부리그 5위팀 유겐트·센터·포야바크(슈투트가르트市)에서 朴씨를 통해 한국여자선수 2명을 초청했다는것. 초청조건은 월봉1천9백마르크(한화 약57만원)에 2년 계약이다. 집과 점심이 제공되며 西獨말을 익힐때까지 수강료를 클럽에서 부담한다.

1部리그5位 포야바크팀 月俸57만원 2年계약條件

또한 西獨은 각종사회보장제도가 철저하여 봉급에서 상당부분을 떼게되는데 이공제금액시 클럽에서 부담한다.

손에 쥐게되는 돈은 1천9백마르크에 지나지않지만 실제로는 3천마르크이상을 받는 셈이다. 포야바크가 원하는 선수는 세터와 공격수. 세터를 원하는 이유는 상위권도약을위해서라는것.

손재주좋은 한국세터에다 공격수 한명이 보강된다면 1부리그 10팀중 2위까지 오를수있다고 낙관하고있다.

포야바크는 다음 시즌서 3위권내에 들면 한국선수에게 보너스지급을 약속하고있다.

朴씨는 한국계품인 낫소공이 최근 西獨배구협회로부터 공인을 받았다고 전했다.

현재 西獨에는 미카사등 3개의 日本공과 中共공등 4가지가 공인을받고 있으나 한국산 배구공이 공인을 받은것은 처음이다.

朴씨는 오는9월부터 시작될 정규리그서 李喜完이 활약하고 있는 파더본팀을 맡게 된다. 파더본은 李가 진출하기 전까지만해도 1부 리그 3위였으나 李의 활약으로 올해 2위로 올랐다. 1위팀 기센과는 15승3패로 동률을 이뤘으나 한 세트가 뒤져 2위에 머물렀다는것. 朴씨는 파더본팀을 맡는 한편 일주일에 한번씩 대표팀을 비롯 몇몇팀의 기술지도를 담당하게된다.

朴씨에 의하면 오는 12월 西獨서 열리는 국제배구대회남자부에는 蘇聯·폴란드·루마니아, 여자부에는 폴란드·불가리아·헝가리·체코등 강호들이 참가를 희망하고 있으며 한국에도초청장을 보내기로 했다는것. 朴씨는 6월말 西獨에 돌아갈 예정이다. 【金仁奎기자】

한국·네덜란드 5日

대통령盃국제축구 對陣表 확정발표

제12회 대통령배 국제축구대회가 오는 6월5일 개막, 서울을 비롯한 釜山·大邱·光州·仁川·淸州등 6개 도시에서 13일간 펼쳐진다.

9개국 10개팀이 출전하는 이번대회에는 한국대표팀과 할렐루야팀, 許丁茂가 소속된 네덜란드의 PSV아인트호벤, 西獨레버쿠젠팀, 브라질오페라리오팀등 3개 프로팀과 말레이지아·印尼·泰國·印度·바레인등 5개국가대표팀이 참가, A·B조로 나눠 조별예선리그를 벌인뒤 각조상위2개팀이 크로스토너먼트로 패권을 가린다.

◇대통령배 축구 대회 일정표

일	시	대전	장소
5(토)	3시반 5시15분	한국—화란 인도—인니	서울
6(일)	3시 4시45분	서독—말련 할렐루야—브라질	〃
7(월)	6시 7시45분	화란—바레인 한국—인니	대구
8(화)	6시 7시45분	브라질—태국 할렐루야—말련	〃
9(수)	6시 7시45분	바레인—인니 한국—인도	부산
10(목)	6시 7시45분	말련—태국 할렐루야—서독	〃
11(금)	3시 4시45분	화란—인도 한국—바레인	광주
12(토)	3시 4시45분	브라질—서독 할렐루야—태국	청주
13(일)	3시 4시45분	인도—바레인 화란—인니	인천
14(월)	6시 7시45분	서독—태국 브라질—말련	서울
16(수)	5시 6시45분	A1—B2 B1—A2	〃
18(금)	5시 6시45분	3·4위권 결승전	〃

▲A조 : 한국대표, 화란, 인도, 인니, 바레인
▲B조 할렐루야, 서독, 말련, 브라질, 태국

歌手 빙·크로스비의 遺品경매

紀念레코드등 百萬弗 예상

30萬弗짜리 그림도

크리스머스·캐럴송인「화이트크리스머스」와「고요한밤」으로유명한 빙·크로스비의유품이 곧 경매에 붙여진다.

오는 28일 경매할 유품은 그동안 그가 상으로 받은 많은골드레코드들, 롯, 낚시대, 사냥총, 트로피, 편지·스틸사진등 다양하며 예상가격도 천차만별이다. 남은 디스크는 10달러면 살수 있을것이며 알프레드·뮤닝스경이 그를 위해 그려준 「황야에서」란 제목의 사냥하는 그림은 30만달러이상에 팔릴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경매에 참여할고객은 4백여명으로 보이며 경매예상액은 1백만달러(한화약 7억원). 경매소식이 알려지자 세계각지로부터 『경매할 물건이 어떤것들이냐』고 편지와 전화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는것. 팬들의 관심을 끌고있는 물건들중에는 빙·크로스비가 보브·호프, 도로시·무어등과 공연한 영화「길」의 포스터와 1927년 취입한 그의 첫번째 디스크인 「나는

◇빙·크로스비

해외스포츠화제

傳說의 美프로野球스타 컴퓨터월드·시리즈出戰

奇想天外의 假想對戰

人氣투표로 멤버선정

아론, 게릭, 메이스등망라

타이·콥, 스탠·뮤지얼, 루·게릭, 베이브·루드로부터 윌리·메이스, 행크·아론, 피트·로즈에 이르는 美國프로야구전설의 스타들이 오는7월14일 기상천외의 컴퓨터·월드·시리즈를 벌인다.

컴퓨터 가상대전을 앞두고 전국의 팬들을 대상으로 내셔널·리그와 아메리칸·리그를 대표할 스타들의 인기투표가 한창진행되고있다.

스포츠·캐스터인 재크·벅, 린제이·넬슨이마련한각본에따라 스타들의 플레이가 결정되고 그들의 생애통산기록에 따라 플레이의 결과와 승부가 가려지게된다.

이날 까지 1930년대 아메리칸·리그의 뉴욕·양키즈 베이브·루트와 함께 강타자로 활약했던 루·게릭이 최고득표로 인기를모으고있다.

내셔널·리그 외야수로는 타격王 윌리·메이스, 홈런王 행크·아론, 1940년대 카디널즈의 강타자 스탠·뮤지얼등이, 1루수로는 필리즈서 3천안타를 돌파한 안타제조기 피트·로즈, 2루수로는 1920년부터 5년간 타격1위를 차지했던 카디널즈의 로저스·혼스비, 3루수로는 80·81년 최우수선수인 필리즈의 마이크·슈미트, 유격수로는 1909년까지 6차례나 타격수위를기록했던 파이어리츠의 호너스·와그너가 스타팅·멤버로 꼽히고있다.

내셔널·리그의 선발투수는 1960년대를 휩쓸었던 다저스의 샌디·쿠팩스, 포수로는 로이·캄파넬라.

아메리칸·리그 외야수로는 신화적인홈런타자 양키즈의 베이브·루트, 1940년대 레드삭스의 강타자 테드·윌리엄즈, 프로야구초기에 12차례 수위타자를 기록했던 타격왕 타이거즈의 타이·콥, 1루수로는 루·게릭, 2루수로는 60년대 트윈즈의 강타자 로드·커루, 3루수로는 오리온즈의 브룩스·로빈슨, 유격수로는 50년 전성기의 양키즈유격수 필·리주토. 선발투수로는 50년대 양키즈서활약했던 화이티·포드, 포수는 50년대 양키즈의 스타 요기·베라.

이들 스타들의 컴퓨터대결은 그라운드에서의 실전보다 더욱 신기하고 재미있는 결과를 빚어낼것으로 기대를 모으고있다. 【外紙】

旌善 네쌍동이 幼兒院입학

【旌善】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江原道旌善의 네쌍둥이자매가 이제 유아원에 입학, 푸른 꿈을 키우고있다. (사진)

지난77년5월12일 1란성 4태아로 태어나 세인의 관심을 모았던 旌善郡舍北邑舍北里2반 崔丙圭씨(42)의 첫째 一梅, 둘째 一蘭, 세째 一菊, 네째 一竹양등 4공주.

이들 네쌍둥이는 그동안각계의 온정의 손길에 힘입어 시련을 딛고 건강한 모습으로 지난3월 舍北邑 새마을東原 유아원에 나란히 입학했다.

첫째 一梅양과 둘째 一蘭양은 비록 다른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않는 비사교적인 성격이기는 하나 노래솜씨만은 단연 일품이라고 辛誠順교사(25)는 평한다.

그런가하면 세째一蘭과 네째一竹양은 꼼꼼하고 차분한 성격에다 색상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 그림을 곧잘 그린다는것.

그러나 이들네쌍둥이는 공동의식이 뛰어나 화장실에갈때도 꼭 함께 붙어다닌다.

성격과 행동이 너무나 깔끔해『깔끔이들』로 통할정도라는것. 【聯】

流星의 劍

<392>

李炳注 作
李友範 畵

勇名 天下에 떨치다 ⑩

홍계남은 안성에 다다르자 군사들을 한곳에 멎게 하곤 단기(單騎)로 적의 성문 앞으로 뛰어가서 외쳤다.

『너희들이 나의 아버지를 죽였다. 그래놓고 너희들이 살아 남을줄 아느냐. 아버지를 너희들손에 죽게 해놓고 내 또한 살아남을 마음이 없다. 나는 죽을 맹세코 너희들을 도살하겠다』

이때 연산이 조총대에 이르길

『삼천을 내어 쓰러질만큼 총을 쏘란』

고 했다. 말하자면 일제사격으로 위협을 하되 한두사람만이 계남의 팔과 다리를 겨누어 발사하라는 뜻이었다. 그런데 묘한 일이 일어났다. 조총대의 발사는 하나 같이 불발(不發)이었다.

이에 관한 흑암종태의 기록이 있다.

『7월 그믐날 안성에서 홍계남군과의 전투가 있었다. 홍계남이 단신 우리들의 진앞에 섰다. 당장 죽여 없앨수 있는 호기였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생포(生捕)할 요량으로 조총을 쏘아 팔과 다리를 다치게 하려고 했는데 이상스럽게도 30정의 조총이 전부 불발이었다. 그것이 우리 사졸들을 기겁케 한 또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홍계남이 신장(神將)인 까닭에 그를 향해 쏜 조총이 불발이 되었다고 억측하게 된것이다. 뒤에 알고보니 불발의 원인은 지난밤 잠깐 쏟아진 소나기에 있었다. 조총대는 야영중 소나기를 맞았는데 그때 화약이 전부 젖은것이다. 그러나 잠깐동안 소나기가 퍼붓다가 멈춰버렸기때문에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았다. 화약도 완전히 젖은 정도가 아니라서 모두들 그냥 장전했던 것이라서 불발이 된것이다…』

아뭏든 조총이 불발이고 보니 칼을 쓰든지 활과 창으로 대항해야 할 터인데 적병 가운데 한사람도 홍계남에게 대적할만한 용기를 가진 자가 없었다.

이윽고 적은 홍자수와 이더남의 머리를 던져주어 그것을 홍계남이 수습하는동안 기병(奇兵)을 출동시켜 사로잡을 계책을 세웠다. 적은 홍자수의 머리와 이더남의 머리를 던졌다. 계남은 통곡의 소리를 지르며 아버지 머리앞에 절하고 그 머리를 소중히 안아들었다. 더남의 머리도 그렇게 했다. 그때 적들이 계남을 포위하여 공격을 시작했다. 일종의 살진(殺陣)이었다. 수백을 헤아리는 일본도(日本刀)가 백일하에 번쩍거렸다. 눈부셨다.

계남은 한팔로 자수와 더남의 머리를 안고 한손에 장검을 들곤 살진의 일방으로 접근해갔다. 그 눈은 난란하게 광채를 발하고 땀과 눈물에 범벅이 된 얼굴은 이글이글 타는듯 했고 짙은 눈썹으로 급지어진 미우(眉宇)와 꽉 다물어진 입은 천군만마라도 물리칠 수 있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었다.

계남이 칼을 휘두르니 일진의 바람에 풀숲이 눕듯 길이 되었다. 계남이 재빨리 몸을 돌려 그곳으로 돌진하여 포위를 벗어나선 아버지의 머리와 더남의 머리를 자기 진중에 안치한 다음, 추격해 오는 적에 맞서서 싸우기 시작했다.

검의 일진(一振)에 수명이 쓰러지고 일섬(一閃)에 수명이 또 쓰러졌다. 마침내 신불과 조인식이 들이닥쳤다.

적은 혼비백산 도망치기 시작했다.

계남은 좇을 건 좇고 놓아줄 건 놓아주어 석양이 비낄 무렵엔 안성에 평화가 찾아들었다.

그때야 비로소 계남은 땅을 치고 통곡했다.

『이 불효를 아버지 용서하소서』

그 울음소리는 주위사람들의 폐부를 찌르는듯 했다.

운전교습
SOUTHERN ONTARIO DRIVING SCHOOL SPECIAL
10시간의 개인운전교습 집으로나 사무실로 모시러갑니다.
ONLY $129.00
무료신청서, 무료핸드북, 무료필기시험에 필요한것.
한번 와 보십시요. ※조금의 영어가 필요함.
월—금 오전10시—오후5시
2489 BLOOR ST. W. SUT210
(BLOOR & JANE 써브웨이)
766—4441, 766—4644

SHANGHAI RESTAURANT
드디어 해삼탕 개시!
메 뉴 : 군만두, 찐만두, 짜장면, 우동
Open Hours : 화~금 11 : 30AM~12PM
일요일 11 : 30AM—11PM
(공휴일도 문 엽니다)
주 소 : 334 SPADINA AVE.
(NEAR KENSINGTON MARKET)
전 화 : 864—9347

意安飯店
의 안 반 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 4 시까지 영 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 등을 준비해 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4 PM~4 AM
토~일 : 12P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와 Chestnut코너)
☎ : 977—9734

JAGUAR 종합보험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자동차보험.
※비지네스 보험.
※집보험.
※생명, 상해보험, 등
⊙영어를 할수있는 한국학생 (파타임) 구합니다.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Miss. 정)

코리아 하우스
KOREA HOUSE
한식전문
즉석불고기
정종, 맥주
666 BLOOR ST. W.
TORONTO, ONT.
*536-8666

오사까 하우스
각종 술을 써비스 합니다.
값싸고 맛있는 식당(초밥·국수류등)
부디 한번 찾아주세요(쓰끼야끼, 덴뿌라, 사시미)
※스토아시간 :
월~목 11 : 00AM~10 : 30PM
금요일 11 : 00AM~11 : 00PM
토요일 5 : 00PM~11 : 00PM
일요일 5 : 00PM~10 : 00PM
OPEN 7 DAYS
12 TEMPERANCE ST.
☎ : 368—2470
Queen
Bay
Temperance St.
Ⓟ
Yonge
King

Maximode

○ 숙녀를 위한 수입품 불란서, 이태리 쌪손 옷을 전시한 현대식 쇼우룸.
○ 가격이 저렴합니다.
OPEN : MON(월)~SAT(토)
9 a.m.~5 p.m (오전 9 시~오후 5 시)
147 Spadina Ave. #200(2층)
☎ : 596—1413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한국인의
화초 도(소)매상
가장 저렴한 가격
SHERBOURN써브웨이옆
☎ : 923－9948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한국인의 도매상
한 인
연합상사
25-27 Rangemore Rd.
☎ : 251-6578

시설및 수리

"집수리 · 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전화 : 669－5784 Mr. 심

"가게및 집수리 일체"
시설및 수리 (상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성심 성의껏 봉사해드리겠읍니다.
전화 : 425－8585 Mr. 김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전기시설 · 보수
CANCO ELECTRIC CO. 각종 냉동기 에어콘
전화: 270－3118 오 현 구

T. V. 출장 수리
전화: 431－0102 미스타 박

목수일 합니다.
◉제네랄·콘트랙터 면허취득 ◉각종건축수리및 신축상담
전화 : 249－0003 Mr. 최 6시이후 전화요망

식 당

CHOI'S RESTAURANT
메뉴: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낮12－밤12시까지, 목금: 낮12－밤1시까지
토: 낮4시30분－밤11시반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Rose Garden (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일류요리사, 홍콩식 중국요리 취급
전화 : 656－0456, 654－6609 유 창균

식 품 점

한 밭 식 품
◉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274－5401

동 양 식 품
일주일 내내 영업, 일요일도 정상영업 합니다.
(화요일만 오후1시~10시까지) 많은 식품을 준비하고 있아오니 계속 이용해 주십시요. *배달도 합니다.
1662 JANE ST. WESTON ONT. 전화: 248－513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전화: 532－1054 (아리랑식당 옆)

고 려 식 품 680 Bloor St. W. Tor.
주 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전화:531－2242

삼 복 식 품 주 7일 영업,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서 울 식 품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생 선

K & R Sea Food
전화 : 259－1585
▲얼리지 않은 각종 생선.
▲싱싱한 횟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 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 530－1870
오전 11시~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의류수선

의류수선, 가내봉제 상세한 문의 바람
전화 : 530－1046, 7 p.m~10 p.m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에어콘·히팅·냉장고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
(김종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 366－0960(B) 임 태 호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 533－2361

운전학교

오행근운전학교
전화 : 423－3035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69－1960(B), 743－3377 Mr. Eastman

이삿짐및 운송

나 라 운 수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전화 : 630－6602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인 쇄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대표 : 이 인 용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전화 : 244－2301

크로바인쇄소
3351 Lakeshore Blvd. W.
전화 : 251－9587(B) 252－7491(R) 위 정 남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자동차수리

Midwest Auto Body Shop 전화 : 751－9280
▲완전 바디 숍, 신용본위
▲260 Midwest Rd. Unit 8 (미드랜드×로렌스) 임 종 민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 (New Toronto,)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 533－2157

AL'S ESSO Service
Mechanics Repair (All Maker & Model)
Tune－up, Break Repair, Electronic Repair,
Tire & Battery (한국분에게는 염가로 친절봉사해드림)
400 Front St. W.(C.N.Tower 옆)
전화 : 596－6902, Mechanic 최 양호

자동차 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HUMBERVIEW MOTORS
G.M. (시보레·올스모빌)
전화 : (B) 236－1011, (R) 763－1155 손 명철

매매 부동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 용 현 부 동 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ROYAL TRUST (유 복 영)
전화 : 762－8255 West 지역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SINCERE REALTY INC. (채 준성: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장 의 사

장 의 사 (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 써브웨이) ☎ : 221－1159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쉐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 박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임송학 태권도장
1963 WESTON RD. (1층)
전화 : 247－7577 (웨스톤 × 로렌스) 로브로앞

영정태권도장
1065 St. Clair Ave. W.
전화 : 652－0000 사범 : 정 영 수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T 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페인트 벽지(월페이퍼)

★봄맞이 집단장을 하시지 않으시렵니까?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기술로써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전화:745－6792(Mr.우)

학 교

씨알한국인학교 (교장 유희자)
전화 : 960－0074

Y어린이학교 (김창열)
전화 : 536－1166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안강용한약건재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보약제와 신경통약이 다량 수입되었읍니다.
교민들에게 특별 염가 제공코져 합니다.
전화문의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 (465 DUNDAS W.)
전화 : 596－8407, 596－7373 최 호 권

하르빈한약상사 각종 디스토마 특효약 입하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전화 : (B)536－6854, (R)531－7505 서 춘봉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 (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서 울 한 의 원
한의사 김 장 석 (New York, U. S. A.)
전화 : 1－212－762－4694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전화 : 530－0522 531－4165(R)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B.A.R.I.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근무중
BOOKKEEPING & ACCOUNTING
MANAGEMENT CONSULTING, INCOME TAX PREPARATION
전화 : 239－6802 이 영 철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전 C. A. FIRM ACCOUNTANT
4750 Jane St. Suite No.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484 BLOOR ST. W. TOR.
전화: 537－3171(B), 669－2710(R)

정장우 회계사 (PAUL C. CHENG)중국인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625 Dufferin St. Ste.407 (B)636－3616 (R)690－7153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45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매·도매함
16 Osler St.
☎ : 762-7255, 7256
762-2700

구 인

Baby Sitter (베비 씨터) 구함.
입주하셔서 월 2회 쉬시면서 1살된 아기 돌봐 주실분. 부모님같이 모시겠읍니다.
(월/$600)
전화 : 536-0290

Spray Painter 동업주 구함.
Epoxy Finish 유경험자로
자본 $10,000~$15,000을 투자할수 있는분
자세한 내용은 서면 문의바람.
P.O. Box 3046, Station B,
Rexdale, Ont. M9V 3Z6 Mr. Kim

경험있는 여자자켓 만드실 Full Time 재봉사 구함
(주급 : $220부터~)
전화 : 368-2819 (Mr. Wong)

바이올린 교습생 모집
전화: 535-0708 박 명 진

피아노 레슨 학생구함
경력 : A.R.C.T. U Of T B.M. Performance
전화 : 531-4579 신 수명

입주하셔서 애기 돌(한살반, 네살)
보아 주실분 구함.(Steeles × Bathurst)
전화 : 889-4574(B) 225-7143(R)

식품점에서 일할 젊은이 구함.(40세 미만)
◉정직하고 양심적인 분
◉성실하고 부지런한 분
◉자동차 면허 있는 분
대우는 능력에 따라 우대함. 가급적 직접 내방바람.
삼복식품

의류수선 (복식 양재, 또는 봉제하청)
동업자 구함 - 기능자에 한해서 남녀 불문
상세문의 오후6시~9시 전화: 530-1046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좋은장소에
지렁이잡이 하실 분. 높은 수입 보장함.
전화 : 466-1461

일요일 가게 Cashier 구함 (유경험자에 한함)
(Kingston × Midland) 전화 : 266-6355

◉주말에 일하실 남자학생 (파트타임)
시간: (금·토·일)
◉젊은 여자 Full Time 일하실분 구함
(월·토)
전화: 762-1572, 769-9854

그리운 철우여 연락하라. 만나서 술한잔하세! 해병 187기 이성규가 해병 188기 정경태를 찾음. 우리는 1968~69년에 걸쳐 월남 호이안에서 같이 싸웠음.
연락처 : 57 Octavia Street,
San Francisco, Ca. 94102
전화 : 1-415-552-1438

경험있는 미용사(헬퍼) 구합니다.
킴스 미용실 전화: 532-7094

일본음식과 한국음식 만들수 있는분 구함.
538 St.Clair. W. 전화: 654-6609

남자분 가게 Full Time Helper 구함.
전화: 431-0979

구 혼

결혼상담실 (한국기원 내) 상담자 : 최규찬 김운서
653A BLOOR ST. W. TORONTO. (20부터 60세 사이)
전화 : 533-0168 매일오후 1시~10시

30세 재혼(남) 대졸(한국), 미국생활 1년
고생같이 하실분 아래주소로 연락바람.
P.O.BOX 3313 Gardena Calif. 90247 U.S.A.

착실한 26세부터 34세 사이의 신부감 구함
57 Willows Lane Pickering, Ont. (Mr. Kang)
꼭 관심있으신분은 서신 연락바람.
(비 영주권자라도 관계없음)

본인은 당년 38세의 신체건강하고 생활력있는 독신 남자입니다. 초 재혼 불문하고 여생을 함께 하실 뜻있는 여성을 찾읍니다. Mr. 박
★주소 : P.O. Box 1217 Station B
Weston, Ont. M9L 2W9

매매및 양도

Copier (복사기)
Model : Mita 500D. (Very Good Condition)
사무실용으로 적합. 전화 : 533-2364 Mrs. 김

토론토 북쪽 새로지은 Mall안에 있는 Fish & Chips Restaurant 팝니다. (Private Sale)
장래성이 대단히 좋음.
전화: 886-3375 6:00p.m.~9:00p.m. (Peter)

House for Sale (Christie & Bloor 지역)
Subway근처. 6년된 새집. 12 Room, 3 Bathrooms
지하실 꾸밈. $119,990 전화 : 534-5985

House for Sale (Private)
3 Bedroom Mortgage($75,000) 13% until 84년
Mortgage 좋은 Side Split Bungalow
가정사정상 급히 팝니다.
Markham × Lawrence
전화 : 439-1433(R) 463-7423(B)

성업중인 쥬니어 데파트먼트 스토아 급매
Open Hour : 월-토 (9:00a.m-9:00p.m) 꼭 관심있는분의
연락바람. 전화 : 1-576-7021, 1-576-9899(밤9시이후)

3 Bed Room Town Home 매매
Air Conditioning. 실내 Pool장. Sauna.
Ensuite Laundry 구비되어 있음.
Mortgage : 11¾%. 가격 : $62,900
(영×스틸 북쪽)
전화 : 881-9232 5시반 이후 (Mr. Kim)

공장지대 Office Building 안에 있는 경쟁없는
Donuts Shop. 도너스 만드는 시설이 완비되어 있음.
주매상: $3,500~$4,000
Open: 오전 6:00~오후 6:00
아스킹: $150,000
연락처: 665-0790 Mrs. Lee

Yonge St. 에 있는 꽃가게 급매
위치: 리치몬드·힐 지역
넓이: 4000 Sq. F.
주인이 이주관계로 적당한 가격에 급매코져 함.
꼭 관심있으신분 영어로 문의바람.
전화: 773-5530 Mr. Grabner.

Full Liquor License가 있는
40석 Family Restaurant 급매
전망이 좋고 이윤이 높음.
꼭 뜻있는 분은 1166 Morningside Ave. at Sheppard로 오셔서 Mrs. Kim을 찾으세요.

성능좋고 속도빠른 사진 식자기
(SAKEN SPICA - K)를 급매합니다.
문의처 : 한국일보사
전화 : 533-2364 Mrs. 김

Restaurant For Sale (Tavern)
동쪽끝에 좋은 환경에 위치한 식당 급매.
Good Lease(20 Years), Good Terms. 가격 : $350,000. 좌석 : 300
영업시간 : 7:00 a.m~1:00 a.m (Mon.~Fri.)
9:00 a.m~10:00 p.m (Sat.~Sun.)
자세한 내용은 오후 5시이후에 연락바람.
전화 : 284-0304 (Alex)

"Fish & Chips" Fast take out Business for Sale
with option to purchase building.
(빌딩도 겸해서 팔수 있음) 전화 : 828-6103

자개, 문갑, 자개 삼층장 매매
전화 : 661-4581

미국이주관계로 꽃가게 급매. 미시사가 초입
Plaza 안에 있음. 전화: 624-7597 (Mr. Lee)

50mm 스피커 달린
Sound-Projector
전화 : 368-2819 Mr. 왕

피아노 급매.
Chickering Piano(Walnut Wood)
3년된것이나 거의 새것임. Eaton에서 새것 $4,500나감.
가격 : $2,500
전화 : 463-7423 Mrs. Kim 439-1433(R)

6년동안 한주인이 경영했던 성업중인 큰 규모의
Variety Store 매매
넓이: 1700 Sq.ft. 리스: 8년반, Rent: $1,168/mon.
주매상: $7,000이상+로타리오. 아스킹: $93,000+스탁
790 Military Trail(Morningside &Military Trail)
꼭 관심있으신 분의 내방바람.

성업중인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3,000 렌트: $300(Mon.) 리스: 5년
2988 Lakeshore Blvd. W.

2 Bed Room 달린 Grocery Store 매매
주매상 : $3,000~3,500
전화 : 694-1912

Kingston Rd.와 Victoria Park Corner에
위치한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전화: 698-0844 언제든지 연락요망.

좋은 위치의 빌딩과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로타리오머신과 딴 여러종류의 복권등 있음
전화 : 537-6296 Tom

이훈모 부동산 전화 : 225-1204
1) Coffee Shop in Office Building. 렌트: 약 $1200/mon.
주매상: $5000. 주5일영업. 아스킹: $16만
2) Donuts Shop. 현재 주매상: $8,000 리스: 20년
렌트: $3500(옆에 달린 Office포함). 아스킹: $325,000
다운페이: $15만 요구.
3) Fish & Chips in Mall
주매상: $4,000. 아스킹: $130,000
다운페이: $70,000. 주6일영업. 월~금: 10:00a.m.~7:00p.m.
토: 11:00a.m.~5:00p.m.
4) 교회 건물
가격: $319,000 (토론토 동쪽지역)

낚시용 Boat 매매
거의 새것임. (16 Feet Long)
전화 : 270-1981 (Mrs. Kim)

"가 구" 직접 공장에서 만들어 파는 까닭에 여러모로 고객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1) 3 pcs. Wall Unit. $199
2) 7개의 설합달린 책상 $65
3) 거울달린 화장대 $79
4) Bed room set(9 pcs) with mattress $399
5) 5 pcs. Kitchen Set (식탁 + 4개의 의자) $89
6) 쇼파 4 pcs. $399 etc.
937 QUEEN ST. W.
364-0984 REMA FURNI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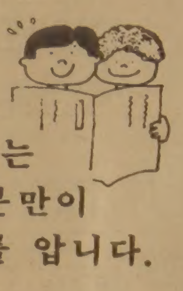
Variety & Grocery Store 매매
주매상 : $7,000 이상
아스킹 : $89,000 + 스탁 ($35,000)
〈All Cash〉 전화: 767-0762

하우스 렌트

사무실 세놓읍니다.(다운타운 소재)
월: $220. Own Sign available. (any size)
전화 : 444-1322, 365-1489

Bloor한인상가 중심부에 위치한 가게 Lease함.
선물센타나 금·은방에 알맞음.
전화 : 481-3677 (Frank)

가게 Rent 합니다.
698 Bloor St. W. (1500 Sq.ft.)
전화 : (B)533-7966, (R)826-5118



한국일보
안내광고는
내보신 분만이
그 효과를 압니다.

가 구 점

ECOSYS FURNITURE
2300 YONGE ST.
전화 : 486-0397 김 만 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석민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여정웅)

정 숀 꽃 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화 랑

KIM'S ART GALLERY
각종 유화, 동양화 도매, 각종 Picture Frame
1286 Weston Rd. 전화 : 243-0233

도 서 판 매

World Book(백과사전)
☎ : 533-2364(Mrs. 김)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스
Weston Mall (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미 용

ANNIE'S BEAUTY CARE CENTER
Skin Care. Ear Piercing. Fashion Make up.
각종 미용상담에 관해 전화문의도 받읍니다.
6093 Yonge St.(영 × 휜치)
전화 : 223-7884 Mrs. Lee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수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631 Bloor St. W.
한국관 앞, 서울여행사 이층
전화 : 588-1480(B), 243-8026(R)

SALON YOUNG
(블루어×로얄욕)
남·녀 컷 & 파마전문
3074 Bloor St. W. 전화 : 231-4285
월요일 휴업

레이몬드미용실 (수잔: 한국인)
• 남·녀 컷, 파마전문
•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쇼어×로얄욕) 전화: 255-4745

백 화 점

미 도 파
454 BLOOR ST. W. 전화 : 536-1692

번역및통역

번역, 통역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 (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 (5시 이후)

보 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사무용구및 계산기

SKY WAY Business Machines
215 Carlingview Dr. Unit 109 Rexdale
전화 : 675-1295 김 인환

사 진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619 BLOOR ST. W. 전화 : 534-1085 김 춘 탁

새 한 칼 라 현 상 소 전화 : 535-7772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촬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
COMMERCIAL · ART PHOTOS · WEDDINGS VIDEO 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3시30분~오후9시30분

Peter's Photography.(미시사가지역)
광고, 결혼식사진 전문. 전화: 270-2709

선물 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

빅 · 세 븐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MISTER O FOR MEN
전화 : 964-2606, 869-0589, 275-2187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스 포 츠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전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트로피및 상패 50% OFF
GOLF PRO SHOP
영업시간 : 월~금: 10a.m.~8p.m. 토: 10a.m.~6p.m.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시계·귀금속 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 (Kipling × Albion)
전화 : 742-1205(B), 745-1632(R) Mr. 마

악 기 점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783-6871(B)
주소 : 1178 EGLINTON AVE. W. 이 상 철

SOO PIANO SERVICE (조율, 수리)
Sim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전화 : 222-4662 김 수 웅

＊ 한국일보 안내광고 ＊

2ND CLASS MAIL NO. 5248